

모심의 눈 ● 지금은 각자도생에서 '함께살기'로 나아갈 때!

#### 기획특집 —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 생명운동과 협동조합: 생명협동운동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 생명운동의 '협동', 변혁성과 전환성: 한살림을 중심으로
- 기후생태위기 시대 협동조합운동
- 돌봄과 탈식민은 탈성장과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의 돌봄운동
-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호혜적 돌봄 생태계
- 탈성장, 도덕적 가치를 넘어 현실 대안의 그물망으로
- 탈성장에 최적화된 몸과 마음 만들기
- 체제 전환, 탈성장, 생명운동을 연결하기
- 생명운동이 공통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 일상에서 실천할 동사를 스스로 찾기
- 공통장의 낭만화를 경계하고 생명운동 명확히 하기

시 선 ● 현재를 위한 담론- 한살림에서 청년의 존재에 대하여

정기구독 안내

# 모심과 살림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담론,  
한살림 안팎의 보다 다양한 현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합니다.

## 구독료

1년 1만 5천원

2년 3만원

## 구독신청

이메일 [mosim@hansalim.or.kr](mailto:mosim@hansalim.or.kr)

전 화 02-6931-3604

누리집 [www.mosim.or.kr](http://www.mosim.or.kr)

## 연구소 누리집에서

지난 글을 보실 수 있으며,  
과월호 구입도 가능합니다.



## 투 고 를 받 습 니 다

지면에 수록하고 싶은 글(또는 주제와 구성안)을 보내주세요.  
편집부 검토를 거쳐 수록하며, 해당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독자모임을 지원합니다

『모심과살림』 독자 모임을 진행하실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모심과살림』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모심과살림』 20호를 읽고 난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책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의견을 적어주시거나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눠주셔도 됩니다. 나눠주신 의견은 차기호 지면에 소개될 수 있으며,  
수록된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 『모심과살림』 독자 의견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심과살림』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주실 곳 [mosim@hansalim.or.kr](mailto:mosim@hansalim.or.kr)

# 모심과 살림

20<sup>호</sup>  
특집호

##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연구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연구자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 모심과살림 20호 2022년

|        |                                                                                                                                                                               |
|--------|-------------------------------------------------------------------------------------------------------------------------------------------------------------------------------|
| 등록번호   | 강남, 사00117                                                                                                                                                                    |
| 발행인    | 신명호                                                                                                                                                                           |
| 편집자문위원 | 신명호, 정규호, 홍덕화                                                                                                                                                                 |
| 편집부    | 임채도, 조미성, 최민영, 홍수린, 김세진                                                                                                                                                       |
| 디자인    | 그린다                                                                                                                                                                           |
| 펴낸 날   | 2022년 12월 30일                                                                                                                                                                 |
| 펴낸 곳   | (사)모심과살림연구소<br>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81길 15 4층<br><a href="http://www.mosim.or.kr">www.mosim.or.kr</a> / <a href="mailto:mosim@hansalim.or.kr">mosim@hansalim.or.kr</a> / 02-6931-3609 |

책값은 8천원입니다.

## 목차

### 모심의 눈

- 지금은 각자도생에서 '함께살기'로 나아갈 때! - 신명호 4

### 기획특집 -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 [생명운동과 협동조합]

- (발제) 생명운동과 협동조합 - 정규호 12
- (토론) 생명운동의 '협동', 변혁성과 전환성 - 류하 28
- (토론) 기후생태위기 시대 협동조합운동 - 강민수 38
- (정리) '생명운동과 협동조합' 논의 42

#### [생명의 돌봄운동]

- (발제) 돌봄과 탈식민은 탈성장과 어떻게 만나는가 - 백영경 48
- (토론) 생명의 돌봄운동 - 서미영 66
- (토론) 누구나 돌보고 돌봄받을 수 있는, 호혜적 돌봄생태계 - 문현주 70
- (정리) '생명의 돌봄운동' 논의 74

#### [생명운동과 탈성장]

- (발제) 탈성장, 도덕적 가치를 넘어 현실대안의 그물망으로 - 김현우 78
- (토론) 탈성장에 최적화된 몸과 마음 만들기 - 신승철 94
- (토론) 체제전환, 탈성장, 생명운동을 연결하기 - 홍덕화 100
- (정리) '생명운동과 탈성장' 논의 108

#### [공통장으로 보는 생명운동]

- (발제) 생명운동이 공통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 조미성 114
- (토론) 일상에서 실천할 동사를 스스로 찾기 - 김자경 136
- (토론) 공통장의 낭만화를 경계하고 생명운동을 명확히 하기 - 안새롬 144
- (정리) '공통장으로 보는 생명운동' 논의 150

### 시선

- 현재를 위한 담론- 한살림에서 청년의 존재에 대하여 - 김진아 158

지금은  
각자도생에서  
함께 살기로  
나아갈 때!

지난 11월 중순에 저희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 찾기’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연 토론회였습니다. 협동조합, 돌봄운동, 탈성장, 그리고 공통장(common)이라는 네 개의 주제를 각기 ‘생명운동’과 짝을 이루어 다루었습니다. 그날 오고 간 다채로운 이야기들은 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날 제가 인상 깊게 들은 두 개의 에피소드에 관해 저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에피소드 하나:** 토론자 김성훈 선생은 최근 어떤 조합원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조합원은 “지난 10년 동안 생협 물건을 써왔는데 최근에 마켓○○를 이용해 보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며 생협을 떠났답니다.

**에피소드 둘:** 네 번째 발제자인 조미성 선생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지 않은 몇 마디 언어로도 가슴이 뛰기 때문에 운동에 동참한다고 한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 한살림선언을 처음 읽었을 때 우리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언어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위 에피소드 하나의 예전 조합원 이야기에 놀란 것은 지난 10년 동안 그에게 생협은 그저 친환경 물품 구매처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초창기 한두 해 그럴 수는 있어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법이지요. 과거에는 친환경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곳이 적으니 생협이 그런대로 매력적이었다면, 이제는 ‘유기농’이라고 선전하는 곳이 많은 데다가 ‘새벽 배송’이라는 놀라운 서비스까지 곁들여지니 마음을 뺏기는 모양입니다. 한살림운동은 곧 세상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라고 믿고 있던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와 같은 이탈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확실히 초기의 한살림생협은 ‘몸에 좋은 친환경 물품을 소비하고 싶다’는 조합원 공통의 욕구를 넘어서는 운동을 지향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의 선조들 처럼, 협동조합 운동의 본령을 세상을 바꾸는 변혁운동이라고 해석했고, 그 이념적 토대로 생명운동 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뛰었던 겁니다.

에피소드 둘에서 한살림운동을 이야기할 때 가슴이 쿵쥔거렸던 것은 우리 각자의 작은 활동이 세상의 큰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구매 행위가 이 나라의 오염된 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며 마침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을 갈아엎게 될 거라는 믿음은, 곧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열어가는 데 내가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협의 더욱 충직한 소비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물품을 더 열심히 소비할수록 세상의 변화는 빨리 다가올 테니까요. 그러나 에피소드 하나에서와 같은 소비자가 이탈하는 것은 조합원 개인의 활동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운동 이야기에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와 둘의 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좋은 생활재를 소비하고 싶다는 것은 개인 차원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이 개인 차원의 욕구를 집합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조직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개인의 욕구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장인 데 비해서 말이지요. 또한 한살림선언에 나타난 생명운동 담론은 대면해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반 모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반 모임은 소비할 물품을 주문하는 장이었을 뿐 아니라, 생활나눔과 교육, 각종 생명운동과 관련된 행사나 프로그램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연히 개인의 소비 행위는 철



학적 가치를 운반하는 생명운동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매할 물품을 결정하는 과정이, 혼자서 오직 가격과 품질, 편의성만을 따지는, 요즈음의 환경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환경은 비대면·비접촉 생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특히 그 점에서 우리 한국사회는 유독 앞서갔습니다. 어떤 이는 “고립의 시대에 한국이 가장 나쁜 성적을 내는 이유는 혁신과 기술 혁신 때문”<sup>1)</sup>이라고 말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생협이 주문도 온라인 앱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 오래입니다. 주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은 철저히 익명화됩니다. 소비라는 개인 차원의 욕구는, 원래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듯이, 철저히 개별화된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매장에서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고른 물건의 값을 계산대에서는 그저 알려줄 뿐입니다. 조합원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이나 생명운동 담론 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자본의 상품들이, 물건을 사는 데 신체적·정신적 노동을 절약하고픈 욕망을 부추기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령,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한참 전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면밀히 계산해서 한꺼번에 주문하는 생협의 예전 방식은 상당히 번거로운 정신노동임에 틀림없었는데, 이에 비해 전날 밤 한두 가지를 즉흥적으로 주문해서 다음날 새벽에 받아보는 모습은 편리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마법이 아닐 수 없겠지요.

우리 한살림이 맞닥뜨린 위기는, 그야말로 초연결 시대에, 실제로는 철저히 고립돼 있는 현대인들의 환경과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개인의 어떤 행동이 바깥 세계의 큰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않

---

1) 노리나 허츠(2021), 『고립의 시대』 웅진지식하우스.

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 만나게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코로나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한자리에 모일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거나 모이기를 거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만나고 관계 맺는 공생체를 꿈꾸었던 우리의 한살림 운동은 어느덧 이런 상호작용의 장(場) 만들기를 반쯤은 포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세상 환경이 그렇게 변했으니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생명운동 포럼에서 여러 분들이 주신 지혜의 제언들을 종합해 보면 무언가 하나로 수렴되는 방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각자도생의 시류를 넘어서서 ‘함께 살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만나고 교류하는 상호작용의 관계 맺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 농업과 먹거리 운동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이슈 및 세력과 손을 잡고 지역 기반의 생활운동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것 등이 주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운동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단지, 온라인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핑계로 사람 관계의 단절을 방치하고 공동체적 시도를 포기하는 일은 그만하자는 것이지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생협의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바깥세상 사람들과의 이종교배에도 적극 나서자는 얘기입니다. 단절된 관계의 끈을 다시 잇고 허물어져가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고립’이라는 키워드로 진단한 한 경제학자의 처방도 이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낼 방안을 찾는 것이다. … 우리의 나라, 도시, 공동체가 얼마나 원자화되고 양극화되었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력과 온정과 배려의 근육을 키운다면 서로 더 큰 연결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공동의 운명을 지닌 동일한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sup>2</sup>

2022년 12월

신명호 모심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

2) 노리나 허츠(2021), 앞의 책, 385p



생명운동은, 생명을 파괴하고 소외시키는 문명과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살림’의 길을 선언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생명생태 위기이자 전환의 시대, 새로운 생명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찾고자,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생명운동 포럼을 열어 여러 말씀을 모았습니다. 모심과살림지 20호에서는 ‘생명운동의 길찾기’ 포럼에서 오간 귀한 이야기를 짝 채워 실었습니다.



기획특집

---



#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 생명운동과 협동조합: 생명협동운동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정규호(한살림연합)

---

환경정치학을 공부한 후 대안적인 민간연구소에 대한 꿈을 품고 '바람과 물연구소', '제3섹터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 한살림연합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왔다. 전환사회에 대한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 및 이행전략, 실천모델에 관심이 있다.

✉ ecosociety@hanmail.net

##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하여

생명운동은 인간소외, 공동체해체,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한 ‘죽임’의 세상을 ‘생명 살림’의 세상으로 바꿔 내기 위해 대안을 찾고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생명운동에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활동부터 생명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운동의 형식과 내용 속에 생명이 가진 특성과 원리를 담아 내려는 노력도 함께 있다.

협동조합(운동)의 기본 시선은 소외되고 파편화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향해 있으며, 상호 연대와 협동의 경제활동 방식을 통해 조합원 공동의 필요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이윤과 경쟁을 앞세워 약자를 소외시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협동을 통한 자율과 자립, 자치의 힘으로 문제 해결과 현실 변화를 만들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운동성을 내재하고 있다.

### 1) 흐름 및 전개 과정

이처럼 현실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운동 조직이 시대 상황과 당면한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자기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역시 시대별 상황에 맞추어 역할과 특성을 계속 변화시켜 왔다.

(한국)생명운동은 1970년대까지의 사회운동(민주화운동, 농민운동 등) 경험과 이에 대한 성찰로서 운동 노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생명농업운동, 생명협동운동, 생명공동체운동 등이 등장했다. 이후 생명교육운동, 생명문화운동, 생명사상운동이 나타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종교사회운동 영역이 결합하면서 생명평화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한편, 2010년대 이후부터는 지구적 생명위기(기후위기와 생태적 재난 등)와

각종 사건(세월호 참사, 구제역 살처분, GMO와 방사능 오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생명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명윤리, 생명안전 문제가 주목을 끌었다.<sup>1)</sup> 하지만 오늘날 생명운동은 전체적으로 자기 정체성과 존재감이 예전 같지는 않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지구적이고 총체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생명운동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한편, 협동조합의 전체 역사를 보면 근대 산업혁명의 길을 일찍 나섰던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나서서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고, 농업이 중심이 된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들고, 고리대금업자 횡포가 심했던 독일에서 상호부조의 정신을 담아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듯이, 시대가 당면한 조건과 문제의 성격을 협동조합의 역할과 유형 속에 담아 냈다.

(한국)협동조합운동의 경우를 보면, 전체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고는 하나, 격변기의 한가운데서 경험의 축적되고 계승되기보다는 단절되고 불연속되는 과정이 많았다. 오늘날 협동조합의 구체적 모태는 1960년대 이후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으로 나타났는데, 규모와 역사가 적지 않은 데 비해 한계가 있었다. 민간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과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발전을 지속해 온 협동조합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생활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게 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협동조합이 대안 경제 영역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또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과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여타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났다. 하지만 한편으로 협동조합이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고 협동조합을 단지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전달자로서 제한된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

1) 정규호(2022). “전환기 생명운동의 방향과 전략”.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 찾기』. 모심과살림연구소 기획세미나 자료집. 103-104쪽.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sup>2</sup>들을 포함해서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2) 상호 연관성

각자의 영역에서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 발전해 온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 간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연관성이 확인된다.

첫째, 변화를 지향하는 ‘운동성’이다. 생명운동이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에 기반한 현대산업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간성 회복과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면, 협동조합은 이윤과 경쟁을 앞세운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만들어 낸 소외와 배제, 억압의 문제를 호혜와 협동의 비자본주의적 경제모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둘째, 개성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이다<sup>3</sup>. 생명운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생명살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협동조합 역시 출자금 구성과 조합의 공동생산-공동구매-공동이용 방식을 통해 조합원 개개인의 파편화된 힘을 모아내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해 내는 데 장점을 발휘한다.

셋째, 다양성을 아우르는 ‘역동성’이다. 생명운동이 이질적 다양성의 내포를 통한 창조적 역동성을 발전과 진화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면,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조직운영 원리를 가진 사업체와 결사체의 균형 있는 운영<sup>4</sup>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창조적으로 실현해 가는 특성이 있다.

---

2) (편집자 주) 개별법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8개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여기서는 기존의 낡은 ‘공’(公)과 ‘사’(私) 이분법을 넘어 개별 주체들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살리는 상호 관계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공공철학에서 말하는 ‘활사개공’(活私開公)의 원리를 담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4)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업체와 충분한 참여와 합의 과정이 중요한 결사체가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균형잡이’이자 ‘방향잡이’로서 해당 조합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처럼 생명운동과 협동조합 사이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운동성’과 개성과 자율,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가는 ‘공공성’과 ‘역동성’이 공통된 특징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실천적 결합인 ‘생명협동운동’의 의미와 역할을 다루는 바탕이 된다.

## 생명협동운동의 등장 배경과 특성

필자는 생명협동운동이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창조적 결합으로 인한 독특성을 보이며, 실제로 현실의 실천 영역에서 의미 있게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위기 시대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전환적 역할을 찾아가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등장한 생명협동운동과 서구 협동조합운동에서 등장한 생태학적 자각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 생명협동운동의 등장과 전개

생명협동운동은 기존의 운동 방식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등장했다. 생명협동운동의 토대가 된 강원도 원주 지역은 1970년대를 전후로 민주화운동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곳이다.<sup>5)</sup>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운동 방식을 새롭게 검토한 결과, 1980년대 들어 운동 노선의 전환 과정에서 생명협동운동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당시 활동가들의 중요한 문제의식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과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조직을 열심히 만들었으나, 급속

---

5)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협동조합 교육과 함께 신용협동조합운동이 펼쳐졌고, 1972년 남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통해 농촌과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신탁과 소협 등 협동조합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부락개발사업들이 이루어졌다.

한 도시화, 산업화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급증하면서 애써 만들어 놓았던 협동조직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둘째, 생명의 토대인 땅이 비료와 농약으로 파괴되고 농민들이 농약 중독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에서, 도시 공산품을 값싸게 공급(파이프라인 역할)하는 기존의 소비조합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자립과 생명력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런 문제의식들은 농촌과 도시, 생산과 소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서로 살림’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동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직거래운동을 통해 도농상생의 공동체 사회를 실현해가는 한국형 생명협동운동을 모색하고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생명협동운동의 시작을 연 1세대 운동가들은 서구의 근대적 협동조합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 현실에서 찾으려는 인식들이 강했다.

“본래 유럽으로부터 온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 생산조합이란, 압정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만 ... 지구가 위협해지는 상황에서 ‘신용’도 ‘협동’도 다른 개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말 그대로 창조적 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sup>6</sup>

한살림생협의 시작점인 ‘한살림농산’(1986년)과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1988년)의 설립 취지문을 통해서도 생명협동운동의 길을 앞서 걸어온 한살림의 기본 문제의식이 확인된다.

---

6) 장일순(1997).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148쪽.

“갈수록 더해가는 분열, 불신과 공해가 만연하는 죽임의 삶을 협동과 화합, 믿음이 가득한 살림의 삶으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는 한살림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살림농산을 개설한다”<sup>7)</sup>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은 생명살림의 실천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생산방법과 생활양식을 지양하고, 사람다운 협동의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먹을거리를 살려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려 한다.”<sup>8)</sup>

이처럼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직거래 운동을 통해 도농상생의 공동체 사회 실현을 지향해 온 한살림은 생명협동운동 단체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소비자협동조합이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틀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 서구 협동조합운동의 생태적 각성과 시사점

한국의 생명협동운동과는 결이 다소 다르지만, 서구 협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난 생태학적 문제의식은 생명위기 시대에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협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난 생태학적 문제의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춰오던 기존의 문제인식에 ‘생산조건’이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 주었기 때문이다.<sup>9)</sup>

이윤과 경쟁을 앞세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운동이 등

---

7) 박재일(1987). “한살림을 시작하면서”(한살림농산 설립 취지문) 중에서

8) 이상국(1992).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의 실제와 발전과정”, 『한국소비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사)한국소비협동조합연구회, 232쪽.

9) 정규호(2014). “생명위기 시대와 협동운동”. 『녹색평론』 137호(7-8월호).

장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협동조합 역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의 식은 ‘레이들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협동조합이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기업과 경쟁하면서 차별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변하는 환경과 풍토에 적응하지 못해 멸망한 공룡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보고서를 집필한 레이들로 박사의 경고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보고서에 담긴 협동조합에 대한 생태적 문제의식인데, 소비자협동조합을 예를 들어 ‘소비자 제일주의’를 재검토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들의 번덕과 과시적 소비욕구로 인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협동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보존 사회’(Conserver Society)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세계가 빈약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소비자협동조합(소협)은 경제성과 검약을 강조함으로써 후기산업시대 소비자사회의 거품과 낭비를 추방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 풍요롭고 포식하는 사회에서 소협은 놀라운 판매기록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방종하지 않는 건실한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팔지 않는가에 의하여 소협이 평가될 것이다.”<sup>10</sup>

이처럼 협동조합 영역에서 생태적 각성은 인간중심의 대안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을 인간과 자연 간의 공생 관계까지 확장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1970년대에 세계가 오일쇼크를 경험하며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성장이라는 한계’를 자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80년대 이후, 오일쇼크에서 비롯한 위기감이 사라지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런 인식은 희미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

10) 레이들로 저. 김동희 역(2000).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1980년 모스크바 ICA 총회 A.F. 레이들로 보고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126-127쪽.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협동조합운동 영역에서 생태학적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 생명위기 시대,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진단과 재검토

### 1) 생명협동운동의 현재에 대한 진단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한 초고속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 과정은 전통 농업사회의 급속한 해체와 인간소외,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명협동운동이 등장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협동조합 전체에서 볼 때 이러한 생명협동운동은 극히 일부 영역이다. 생명협동운동의 흐름은 생협운동, 그중에서도 주로 한살림과 두레생협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자리 잡아왔는데,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성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

2000년대를 거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협 사업이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생명’이란 말은 사업과 활동, 조직 운영 전반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다. 한살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살림운동이 곧 생협운동’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협동조합의 언어로 한살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명협동운동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점점 약해졌다. 물론 한살림 전체 차원에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으나, 조직의 운영과 사업 및 활동 영역 전반에서 ‘생명’이란 말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물품은 한살림의 가치와 영혼을 담아 내고자 하는 것이지만, 관심은 점차 구색과 편의성, 내용물의 안전성 등에 집중되었다. 조합원들이 찾는 매장은 생명살림터보다 물품 구매처로서 의미로 굳어지고 있다. 이전에 함께 물품을 구매하고 나누며, 때로는 적극적인 구매로 생산지의 손해를 보존하려고 하기까지 했던 조합원 공동 이용의 경험은 약해지고, 매장과 개별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점차 개별화되어 이용하게 되었다. 규

모화와 전문화, 기능적 분화 과정에서, 대면적 관계에서 이뤄지던 소통과 공감이라는 기반이 위축되면서 생명협동운동단체로서 정체성 또한 약해졌다.

## 2) 생명위기와 생명협동운동의 역할 재모색

생산과 소비, 생활의 토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생태학적 도전 앞에서 기존의 경제 이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협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경제활동과 생존의 기본 요소인 식량, 에너지, 물 등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지혜로운 이용은 협동조합은 물론 지금 시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요구되는 가치 기준이자 책무가 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초창기에 정직과 개방, 타자에 대한 배려 등 주로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가치가 강조되었다면, 성장기에는 민주주의, 평등, 연대와 같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가치가 강조되었다. 이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가치가 달라져 왔다. 이제 생명위기 시대를 맞아 강조되어야 할 협동조합의 가치는 생태학적 윤리와 책임성이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생태학적 도전을 받고 있다. 이때 협동조합운동은 위기에 처한 개체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과 활동 영역에서 생명안전, 생명돌봄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단단히 하고, 지역 생활권 단위로 상호부조의 호혜적 연결망을 촘촘히 짜면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활동 등 위기 상황에서 삶의 문제를 협동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생존의 토대인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지혜롭게 이용하면서 기후변화와 식량,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협동조합의 조직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이제껏 협동조합운동이 고용창출과 복지서비스 실천을 통한 국가와 시장의 ‘대체자’ 또는 ‘보완자’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생명위기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운동은, 총체적인 전환을 매개하고 대안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촉진자’이

자 ‘문제 해결자’, ‘대안 제시자’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 점에서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의 길을 찾고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생명협동운동은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등장했고 일찍이 문제의식과 역할을 고민해 왔다.

##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을 위한 방향과 과제

### 1) 협동조합운동의 역할 재조명

기후위기,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전면화 된 생명위기 상황에서 각자도생의 생존경쟁 속에서 공멸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창조적 대안의 길을 찾아 새롭게 차원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두고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협동조합운동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생존과 경제활동의 기본 요소인 식량, 에너지, 물 등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지혜로운 이용을 협동조합의 주요 역할로 설정하고, ‘더 많은 생산과 소비’에서 ‘더 좋은 생산과 소비’로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바꿔낼 필요가 있다. 개체 중심 생존주의의 틀을 넘어 공존과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서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방식과 과정이 이웃과 자연 생태계,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명살림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조합원의 책임 있는 활동도 함께 펼쳐져 나가야 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역할 재조명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실현하고 결핍을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가치를 창출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방향에서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 2)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의 과제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은 생명위기 시대를 맞아 강조되는 협동조합의 전환적 역할에 대한 의미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협동조합운동의 자기 성찰로서 전환적 노력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과 실천의 영역에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식의 확장과 진화

대다수 사람들이 의지하며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 체계가 삶의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은 생명협동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생명위기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온 가치와 제도, 시스템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만큼, ‘오래된 믿음에 대한 낯선 통찰’<sup>11)</sup>을 통해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이 일어나야 한다.

협동조합 영역에서도 조합원의 요구를 모두 실현하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조합원 요구의 질적 전환은 협동조합의 중요한 운동적 과제다. 그만큼 조합원 참여에 있어서도 참여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참여의 질적 심화가 필요하다. 주어진 선호(preference)를 모아 내는 방식을 넘어서 선호 자체의 전환을 이끌어 확장된 인식을 통해 질 높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양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의제와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더해 속의민주주의 원리가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기제로 적극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합원의 다양한 생각들이 자유로이 표출될 때,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는 게 아니라, 의식의 확장과 조직의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이기도 하다.

---

11) 레베카 코스타 저, 장세현 역(2011), 『지금, 경계선에서: 오래된 믿음에 대한 낯선 통찰』 쌤앾 퍼커스.

## (2) 전환 거점으로서 공간 만들기

생명협동운동에서 공간은, 의식의 확장과 실천을 매개하는 거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주목해 공간을 만들고 중층적으로 연결,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생명위기 시대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개인의 삶의 불안감을 높이는 가운데, 서로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미더운 삶의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촘촘한 호혜적 관계망을 통해 든든한 삶의 의지처이자 안식처, 비밀 언덕, 보금자리로서 삶의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고, 이곳을 중심으로 돌봄과 치유, 순환과 재생의 유기적 연결과 식량과 에너지 등의 생태적 자급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관계를 맺으며 배우고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전환은 결국 사람들의 관계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임, 교류, 체험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학습하며 이런 관계 맺음으로 공동체적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의식을 확장하는 성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따스한 정감이 넘치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안심하고 머물면서 치유와 활력을 얻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경제적 관계를 서로의 삶을 돌보고 살리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맺어 생산과 소비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돌봄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한다.

넷째, 새로운 삶의 양식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대안의 공간’이 필요하다. 삶을 바꾸는 것은 공간을 바꾸는 것이고, 공간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험하고 실천하는 토대이자 거점으로서 대안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확장해 가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 3) 한살림 생명협동운동의 과제와 방향

한살림 생명협동운동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심지어 모순적인 영역들(사업체와 결사체,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이 협동해서 서로 살림(相生)의 관계로 재조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구체적 실현 방식은 유기농산물 직거래에 기반한 협동운동이었다.

하지만 한살림이 시작된 지 약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유기농과 직거래에 대한 한살림만의 차별성은 희석되었다. 또 규모가 커지면서 더 복잡해진 사업과 조직을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협동운동으로서 활력과 관계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생산과 유통, 소비 영역에서 조직과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효율화함으로써 한살림운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확장해 온 점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고도성장과 지속성장의 시대가 지나면서 한살림을 이끌어 온 성장의 논리와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데다,<sup>12</sup> 생명위기가 전면화 되는 상황을 맞이함으로써,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환은 한살림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으로서 한살림운동의 방향과 과제는 철저하게 현실적 조건과 토대 위에서 찾아야 한다. 초창기 한살림 생명협동운동이 창조적 소수의 선도적 노력을 통해 전환의 힘을 이끌어 냈다면, 지금은 8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전국적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한살림 생명협동운동의 전환성을 찾고 확장해 가야 한다. 현실에 기반하되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통찰력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중적 조직기반을 가진 한살림이 생명협동운동을 힘 있게 펼쳐 나가기 위해

---

12) 조합원 가입과 매장 개설 증대가 조합원 이용 확대와 공급고 성장을 뒷받침하던 것이 성장시대의 논리이자 방식이었으나, 중복·미이용·탈퇴 조합원의 증가와 1인당 이용액 감소, 고정지출비용의 증가로 이런 논리와 방식이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서는 다양한 구성원의 질 높은 협동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 교육과 홍보로 구성원들끼리 인식의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기본으로 강조되어 왔던 바다. 여기에 더해 협동의 질을 높여 전환적 역할을 해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살림 생명협동운동의 비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대중운동 조직에서 추상적인 가치 지향으로는 전환의 힘을 모아 내기가 쉽지 않다. 한살림이 강조해 온 ‘도농상생의 공동체’와 ‘한살림세상’에 대한 전망을 명료화해서 공통된 지향과 목표를 향한 구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안적 실천 모델을 공간에서 실현해 내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동안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 영역에서 생활공동체와 생산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살림운동과 지역순환농업운동을 펼쳐 왔지만, 한살림 생명협동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자 실현지로서 모델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살림이 지향해 온 대안적인 생산-소유-생활양식과 노동-학습-생활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모델을 한살림의 지역과 매장, 농장 등에서 만들어 내고, 이곳을 지역생명운동의 거점으로 삼아 농업과 먹을거리 영역은 물론, 에너지, 환경, 돌봄,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살림의 자급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sup>13</sup>

한편, 대안 모델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실천 모델이 가진 대안적 의미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살림의 생산-소비 협동에 기반한 운영 방식과 직거래 체계, 협의적 가격 결정과 책임생산, 책임소비 구조 등은 그 자체로 대안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살림 사업 영역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과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의미를 확인하고 사회화해 나가는 것도 생명협동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위기 시대를 맞아 대중운동조직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사회적

---

13) 한살림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미래비전에서 ‘행복한 삶의 공간의 창조와 확장’을 주요하게 제시한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으로 적극 발신함으로써 조합원 주체성을 한 차원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에너지 자급,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 등을 통해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으로 생명살림 세상을 열어가는 것은, 조합원이 단지 물품 이용에 만족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명협동운동을 향한 자부심과 사명으로 주체적 역량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 생명운동의 ‘협동’, 변혁성과 전환성: 한살림을 중심으로

류 하(한알마을)

원주에서 생명공동체운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생명평화결사 정책위원장, (사)한알마을 대표,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에 문명전환을 화두로 여러 길벗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다.

✉ syukim333@hanmail.net

## 근대 협동조합 및 한살림(생명운동)의 변혁성과 전환성

산업혁명과 함께 활성화된 자본주의에 대응하여 시작된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변혁성을 가지고 있었다. 산업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고용 노동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자본을 축적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해 토지를 비롯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이에 기초해 자유로이 노동자를 고용해 노동의 전유를 통해 노동이 생산한 가치를 전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산업혁명기의 협동조합은 이에 대응하여, 생산 수단을 노동자들이 공유하고 생산된 가치를 공동체적으로 전유해 자본주의 제도를 변혁하고자 하였다.

레닌은 러시아혁명 이전에 있었던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적 변혁 전략에 대하여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며 변혁성과 전환성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혁명 이후 레닌은 신경제정책(NEP)을 수립하면서 협동조합과 협동적 소유가 사회주의 이행 전략으로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와 노동이 있어야 할 경과 과정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변혁성과 전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명운동으로서 한살림운동을 시작할 즈음, 1960년대부터 시작한 근대적인 협동운동을 대부분(신용, 소비조합, 생산조합, 협동농장 등) 경험해 본 원주그룹은 기존의 협동운동을 평가<sup>1)</sup>하면서 운동의 전환을 모색한다. 김지하 시인의 회고록에도 등장하지만 ‘신용조합운동을 빼고는 모두 실패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

1) “1970년대 원주에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을 중심으로 김영주 씨, 박재일 씨, 이경국 씨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분들과 제가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의 농민과 광산 근로자를 중심으로 협동운동을 조직했던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협업운동과 신용협동조합운동에 힘을 많이 쏟았지요. 그러다가 저는 민청학련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1980년에 제가 출옥한 후, 그동안 추진해 오던 1970년대의 협동운동을 평가한 결과 실험운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념적 토대가 취약했던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명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분열시키고 죽이는 삶의 질서에 대항하며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살림》 무크지, 『나락 한 알 속의 우주』에서 재인용.(밑줄 강조는 필자)

것은 사업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근대문명의 본질에 대한 ‘이념과 시선’의 실패이기도 했다. 또한 시장과 국가에 길들여져 변혁성을 상실한 근대 협동조합의 한계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면서는, ‘협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사유와 함께 변혁성을 갖는 협동운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장일순은 자신과 동료들이 1960년대부터 실천해 왔던 근대적인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래 유럽으로부터 온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 생산조합이란 압정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만, 지금은 대기업의 하청업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구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신용’도 ‘협동’도 다른 개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sup>2)</sup>

기존의 협동조합이 체제내화하고 창발성을 상실하면서 변혁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자, 지구가 위험해진 생명위기시대에 협동조합운동이 의미 있려면 ‘생명가치’의 변혁성과 전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한살림운동의 실험판이라고 할 수 있는 1985년 “원주소비자 협동조합”(현 원주한살림)을 창립하는데 이때 ‘농민들은 유통과 유기 농산물 등을 생산하고, 소비 공동체(5가구 이상)는 이것을 생산비와 농민살림살이를 고려한 협정 가격으로 직거래하는’ 한살림운동의 기본 양식이 정해지게 된다. 당시에 이는 획기적이고 전환적 성격을 갖는 운동이었다. 첫째, 당시만 해도 유기농업과 유통과 등 생태친화적인 농사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도 인정받지도 않았다. 게다가 국가와 자본은 농약과 화학비료, 기계농업을 통한 식량증산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격

---

2) 장일순, “풀 한포기도 공경으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 1997.



정책이다. 근대문명은 무한욕망의 시장논리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살림운동은 처음부터 시장논리를 넘어 농산물의 가격을 농민과 소비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당시까지의 협동조합운동은 ‘이해관계에 따라’ 동종(同種)유대의 협동조합이 원칙이었고 ‘이해관계가 다른’ 이종(異種)간 협동은 연합단위차원에서나 유효한 것으로 믿었었다. 그러나 한살림은 처음부터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협동하면서 연대와 협동운동에 전환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제 40년이 다가오는 한살림 생명운동은 규모 면에서 성장하였지만, 변혁성과 전환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유기농업을 비롯한 유기농 식품의 생산과 유통 등은 국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도 제정되고 정부정책도 제도화되었다. 법 제정 초기에는 유기농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되는 듯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은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변혁성과 전환성이 상실된 것이다. 생명운동의 창조적인 혁신성을 계발(啓發)하기보다는 점차 정부정책과 시장논리를 따르고 있다. 협정 가격 정책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변혁성과 전환성을 담보한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에 한살림(생명운동)의 변혁성과 전환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 기후위기를 전환의 계기로 삼는 생명운동의 시선

근대과학과 문명의 성과 중 하나는 ‘행성 지구’의 발견이다. 1957년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는 인간의 눈으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는 첫 번째 시선이었다. 1968년 나사(NASA)의 달 탐사선 아폴로 8호에서 찍은 ‘지구돋이’ 사진은 생명이 사는 푸른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1990년 태양

계를 벗어나면서 행성지구가 태양계에서도 아주 작은 행성(Pale Blue Dot)<sup>3)</sup>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근대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인간이 광대한 우주에 속하며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의지해 수많은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근대문명으로 대변되는 무한욕망의 성장경제체제는 인간 자신의 삶의 터전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협하는 체제라는 것을 일깨운다.

기후문제의 발생 원인이 서구 근대문명이라는 점에서 근대문명을 향유하고 있는 어떤 사회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자유로울 수) 없다. 노벨상 수상자인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 파울 크뤼첸(Paul Crutzen, 1933-2021)은 2002년, 이 세기를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세기 동안 인간이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지구 환경과 기후는 향후 몇 천년 동안 자연스런 운

---

3) 칼 세이건은 이 장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

“저 점을 다시 보세요. 저기가 바로 이곳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들어보았을 모든 사람들,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저 곳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이, 우리가 확인하는 모든 종교, 이념, 경제 체제가,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가, 모든 영웅과 겁쟁이가, 모든 문명의 창시자와 파괴자가, 모든 왕과 농부가, 사랑에 빠진 모든 젊은 연인들이,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희망에 찬 모든 아이가, 모든 발명가와 탐험가가, 모든 도덕적 스승들이, 모든 부패한 정치가가, 모든 인기 연예인들이,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저곳- 태양 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입니다. 그 모든 장군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일부분을 지배하려 한 탓에 흘렀던 수많은 피의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의 한 영역의 주민들이 거의 분간할 수도 없는 다른 영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간절히 서로를 죽이고 싶어 하며, 얼마나 열렬히 서로를 증오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용,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희미하게 빛나는 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어두운 우주 속의 외로운 하나의 알갱이입니다. 이 거대한 속에 묻힌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 줄 이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 지구는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종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세계를 방문할 순 있지만, 정착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좋은 삶든, 현재로서는 우리가 머물 곳은 지구뿐입니다.”

[https://namu.wiki/w/%EB%B3%B4%EC%9D%B4%EC%A0%80\(%ED%83%90%EC%82%AC%EC%84%A0\)#:~:text=%EC%A0%80%20%EC%A0%90%EC%9D%84%20%EB%8B%A4%EC%8B%9C,%EA%B2%83%EC%9E%85%EB%8B%88%EB%8B%A4.%5B%EC%9B%90%EB%AC%B8%5D](https://namu.wiki/w/%EB%B3%B4%EC%9D%B4%EC%A0%80(%ED%83%90%EC%82%AC%EC%84%A0)#:~:text=%EC%A0%80%20%EC%A0%90%EC%9D%84%20%EB%8B%A4%EC%8B%9C,%EA%B2%83%EC%9E%85%EB%8B%88%EB%8B%A4.%5B%EC%9B%90%EB%AC%B8%5D)

행으로부터 일탈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지질학적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이에 이 시기를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창함으로써 ‘인류세’ 논의를 촉발시켰다. ‘인류세’ 논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중이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근대적 인간은 지구행성과 조화롭게 사는 탈근대적 ‘신인류’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국지적(局地的)인 것이 아니라 지구적이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국부적(局部的)인 것이 아니라 전 생명에 영향을 준다. 기후위기는 인간에게 지구 공동체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사람이 생명의 영장(靈藏)적 존재로서 각성하고 진화의 과제를 새로이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사람의 출현으로 실현된다. ‘인류세’ 논의는 역설적으로 인간 의식이 보편적으로 진화할 것을 요청한다. 바로 지구공동체에서 못 생명과 더불어 사는 ‘신인류’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찍이 한살림은 『한살림선언』에서 “생명은 정신이다”, “인간 정신의 세계는 ‘우주 정신의 자기조직화’, 즉 우주 진화의 역동적 표현”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를 초월하는 인간 정신은 자기보다 큰 생명인 공동체와 생태계의 질서에 참여하고 지구의 정신에 통합되며 종국에 가서는 거룩한 우주의 마음에 합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생명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그 이상의 것으로 자기 한계를 초극하여 진화함으로써 창조의 기쁨을 느끼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우주를 포함한 모든 생명에 담겨 있고 바로 이 거룩한 생명이 바로 한울님이다”고 하였다.

한살림(생명)운동이 전환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업과 운동에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담아내느냐 하는 것과 조합원들의 의식의 변화와 삶의 진화가 그 기준일 수밖에 없다.

## 기후변화와 근대문명의 성찰로 '협동'이 함께 해야 하는 가치 - '공생, 검약, 평화'

“박재일 회장도 일생 농민들을 위해 살겠다면서 1966년 원주에 왔습니다. 그때 ‘계급운동이 아니라 협동운동 속에야 말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계산된 협동은 안 됩니다. 성서에도 나오지요, 하루 포도밭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이야기.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도, 저녁에 왔다 간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므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식적으로는 아침부터 10배 일을 하였다면 그만큼 더 돈을 주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자연의 나라, 자유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 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한 협동으로 좋지 않겠습니까?”<sup>4</sup>

생명운동은 문명전환운동이다. 문명의 전환은 사람의 의식과 삶이 변하는 것이다. 무한성장으로 대변되고, 무한욕망을 자극하는 근대문명에 의존적인 삶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생명운동은 우주적 존재로서 인간의 정신적 자각과 ‘자연과 공생’, ‘사람사이의 공생’을 지향한다. 생명운동의 최초 보고서인 「생명의 세계관 확립(確立)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擴張)」에서 ‘확립’이 인간의식의 진화를 의미한다면 ‘확장’은 생명운동을 통한 생명협동문화의 ‘확산’을 의미한다. 기후위기를 인간의식의 진화와 ‘생명협동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생명가치가 포괄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이 견지해야 될 가치는 1)공생, 2)검약, 3)평화를 꼽을 수 있다.

---

4) 장일순, “풀 한 포기도 공경으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 1997

## 1) 공생(共生)

근대문명은 인간 중심의, 개인 중심의 사유와 시선에 의해 확장되어 왔다. 자연에 대한 인간우위, 인간중심 시선에서 전개되어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추출하고 파괴하고 있고, 무한 욕망을 추구하며 극심한 계급화와 차별화로 지구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다가올 문명은 자연과 사람의 공생, 사람과 사람의 공생, 남반구 북반구의 공생을 추구하는 문명이어야 한다.

한살림이 해 왔던 운동에 깊이를 더하는 노력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2) 검약(儉約)

『적을수록 풍요롭다』의 저자, 제이슨 히켈(Jason Hickel)은 포스트자본주의로 가는 길의 1단계 과제로 ‘계획적 진부화를 끝내기’를 제시한다. 수많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 지나면 망가져 교체가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려 애쓴다’라고 고발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각종 전자제품의 평균 수명은 7년 이하로 떨어졌다. 물질이 풍요와 잦은 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

한살림(생명운동)운동에서 검약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기술을 공유하고 제공하는 센터’를 협동운동으로 만들 수 있다. 생활 가전제품 수리, 간단한 집수리 등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하고, 집수리 기술 등을 포함해 생활 기술 공유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유형의 기술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인간인식의 성장에 필요한 무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 3) 평화(平和)

기후위기는 대체로 북반구 국가들의 책임이 크나, 피해는 남반구 국가들이 입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식량과 물 등을 놓고 국가 간, 민족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안에서도 문제의 주범은 자본과 국가임에도,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이 입고 위협받는다. 문화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와 계급 및 계층 간 갈등과 투쟁이 사람의 심성을 분노와 화 등으로 황폐하게 만든다. 기후정의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하나, 정의보다는 지구공동체의 평화를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일상에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는 약자들과 연대하거나 평화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

생명가치가 확장되고, 하나뿐인 지구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문화를 실험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생활기술공유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근대적 협동 양식이라면, ‘생활기술공유센터’는 탈근대적 협동양식으로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운영과 참여에서부터 ‘탈근대적 생활양식을 지향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삶을 깊이 하는 성숙의 장’임을 천명하고 이를 수용하는 가운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생활기술공유센터’는 한살림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생활기술의 교육과 지원, 사람이 성숙하는 명상과 수행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자 그물망(네트워크)이 될 것이다.



# 기후생태위기 시대 협동조합운동

강민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경쟁보다는 협동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며,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살고 있다. 사회적기업 콤비즈협동조합 대표로 일했으며 현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한국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관련 다수의 논문과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실전편)』(공저),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공저)를 썼다.

✉ coopkor@gmail.com



## 시대와 사회문제

사회문제란 많은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어떤 것을 말한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능력주의에 기반한 불평등, 양극화, 지역 격차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중 기후위기 문제는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긴급한 공동 실천을 요청하는 의제다. 기후변화는 점진적이거나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한 신자유주의 기업경영의 산물이다. 시장이 다시 사회를 위한 기능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sup>1)</sup>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과제로 삼을 수 있는 문제다.

## 생명운동, 협동조합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이 운동성, 공공성, 역동성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은 과도하게 커진 시장을 다시 사회를 위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돕는 사회적 존재다. 때로는 경쟁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성장과 발전 또는 탈성장을 주장한다 해도 이는 결국 지구라는 시스템을 고려한 것으로,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공동 과제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사회 안에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운동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1) (편집자 주) 칼 폴라니가 말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란 시장의 지배에 맞서 인간, 자연, 삶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는 사회보호를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 연대해 대안사회(공동체, 협동조합, 분권체제 등)를 만들고 다양한 보호입법과 경제규제를 제정해 전국화(세계화)하는 시장을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위한 방법의 차이만 있다. 그러므로 차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21세기 협동조합운동의 과제

### 1) 협동조합운동의 목적과 방향

협동조합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류가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더 나은 사회경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

### 2) 협동조합운동의 이론적 역사

협동조합운동은 운동이론의 측면에서 협동론-협동조합 공화국론-협동조합 섹터론-협동조합 지역사회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협동조합운동의 구분과 특징

|       | 제1세대                     | 제2세대                               | 제3세대                                       | 제4세대                             |
|-------|--------------------------|------------------------------------|--------------------------------------------|----------------------------------|
| 시기    | 1844년 이전                 | 1844년 - 1950년대                     | 1950년대 - 2008년                             | 2008년 이후                         |
| 정치 사회 | 산업혁명<br>자본주의             | 1,2차 세계대전<br>사회주의의 등장<br>1929년 대공황 | 냉전시대<br>자본의 황금기<br>1970년 자본불황과<br>신자유주의 등장 | 2008년 금융위기<br>기후위기<br>코로나 19     |
| 평가    | 공동체 경제의 가능성을<br>사상적으로 정립 | 협동조합을 통한<br>새로운 사회경제 구상            |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부<br>분전략                        | 시장의 자기조정<br>에 대한 사회의<br>보호운동이 필요 |
| 이론    | 협동론                      | 협동조합공화국론                           | 협동조합 섹터론<br>협동조합 지역사회론                     | ?                                |

우리시대 협동조합운동의 목표와 관련하여 레이들로 박사는 1980년 ICA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협동조합의 위대한 목표는 드넓은

도시 안에 수많은 커뮤니티를 창조하여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충족할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 공통의 이해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자조해 도시지역을 지역사회로 바꾸는 ‘사회적 정착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주장한 레이들로의 논의는 지금과 같은 (기후생태 위기를 초래한) 시스템에서 개인의 전체 생활 가운데 일부를 경제적 합리주의에 토대하여 재조직화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 3)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방향

그의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1세기 협동조합운동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운동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거대한 전환』의 저자이며 경제인류학자인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사회에서 경제 체제가 분리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시장의 출현이 자생적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경제적 자유주의 이념이 낳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국가도 시장도 사회라는 실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시장을 실체적 경제 안에 재착근(reembedding)시켜야 한다고 했다. 21세기 협동조합운동은 폴라니의 주장처럼 기존 시스템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을 사회를 위한 기능적인 것으로 돌려놓고, 과도하게 커진 시장에 맞서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주도가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운동과 생명운동은 그동안 축적된 인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회 보호 운동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 모두 어떤 성장과 발전도 사회와 생명 시스템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함을 믿기 때문이다.

# ‘생명운동과 협동조합’ 논의

정리: 김세진

현장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질문] 구도완

정규호 박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겠다. 우선, 생명 운동과 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하면서 ‘개성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공공성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다. 공동 생산, 공동 구매, 공동 이용을 잘해 왔다는 내용이다. 이때 공공성은 모두가 이용하는 커먼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것은 사적인 영역을 국가 영역에 맡기지 않고 협동조합이 우리끼리 대안적인 것을 해 가자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다.

둘째, 생명운동이라는 비전과 그것을 담는 협동조합이라는 그릇, 즉 운동 방식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생명운동의 정신으로 새롭게 의식을 바꾸어 보자는 말인 것 같다. 의식을 바꾸기 위한 운동으로서 도농 직거래 운동과 협

동조합운동을 해 왔고, 협동의 조건을 만드는 운동을 해 왔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하고 한 가지 답으로 실험의 거점, 공간을 만들자고 했다. 그것이 전환마을 같은 것인지 교육 공동체 같은 공간을 만들자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 [답변] 정규호

사적 영역의 공공화라고 할 때, 공공성은 고민되었던 부분이다. 흔히 공공이라고 하면 그동안 국가 영역이었는데 요즘은 ‘커먼즈’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공 영역을 지역과 커뮤니티에서 가져온다. ‘공공철학’ 하시는 김태창 선생님은 기존에 우리가 걸어왔던 사회가 ‘떨사공공’, 사를 떨하고 공공을 받드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활사개공’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즉 사적인 영역을 활성화해서 공을 열어 나자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개개인의 출자금이 모여 공공적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개념은 좀 더 다듬어야 한다.

한살림뿐 아니라 생협 전체에 기존의 성공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저성장이라는 배경도 있지만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시장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플랫폼 비즈니스다. 예전의 생협 간 경쟁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협들은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생명 위기라는 사회 현상을 같이 맞닥뜨리고 있다. 적어도 조합원들의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기본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살림도 물류와 전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따라가긴 어렵다. 그렇다면 차별화된 영역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이 주는 의미와 결합할 순 없을까. 특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하는 시장 유통 체계 변화의 결정적 문제는 생산과 소비 영역을 비주체화하고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당연히 협동조합운동 영역이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조합원이 주체성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관계의 힘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그것은 이용 만족도 차원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용 만족도를 넘어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 등을 같이 만들어 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운동성과 가치성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합원 노동과 노동 결사체 부분도 조합원 제도 시스템 재설계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 [질문] 조미성 \_

발제와 토론하신 분들께 공동으로 질문한다. 협동조합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현실에서 여러 활동을 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의 논의들에서 나오는 언어나 감각은 1920-30년대 혹은 1980년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20년대의 위기 상황과 지금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언어는 무엇일지, 그 감성과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 [답변] 김성훈 \_

정규호 박사가 소개한 ‘활사개공’ 개념을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런 개념은 협동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바라보는 개념일 것 같다. ‘서로살림’이라는 표현도 있다.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확장해 주는 만남의 원리로 말하는 서로 주체성이념이라든가 하는 철학적 논의들이 있었다. 한국적 차원에서 함석헌 선생의 논의도 있고, 품앗이, 두레, 계, 향약이라는 전통적인 개념도 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협동의 개념과 원리를 다시 가져오는 게 오히려 지금의 21세기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대언어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 옛날 이야기하듯 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 생각 전환이 이미 일어나야 하는 시기에 변화 없이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서 문제라고 본다. 나 역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만 있고 방향은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 [답변] 류하 \_

근대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에 협동 양식이 변했다. 근대 이후 협동의 언어는 ‘공유’라고 생각한다. 공간 공유도 중요하지만, 생활기술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공간이 확장되어야 한다. 생명 가치가 중요한 언어인데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생과 검약, 평화라는 가치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 [답변] 정규호 \_

21세기의 새로운 생명운동 언어는 나도 못 찾았지만, 더 이상 ‘각자도생’은 답이 아니라는 게 사람들 가슴에 강하게 자리 잡았다고 본다. 사람들 마음에 협동, 연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앞으로 협동조합운동이 이런 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주요 과제다. 전환적 생명협동운동의 출발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한살림 운동이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변혁성을 기준으로 지금을 평가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 현재 80만 조합원이 있는 대중운동 조직으로서 한살림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살림은 그동안 축적된 신뢰의 기반과 조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를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어떻게 전환적 생명운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조직과 시스템으로 현재 한살림이 가진 역할

들이 있는데, 바로 정신적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일 것이다. 한살림이 전환적 실험들의 뒷배가 되어 이들을 인큐베이팅하고, 한살림 안팎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 [정리] 입체도 \_

이제 1부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다.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이라는 주제가 쉽지 않았다. 생명운동이 처음 대두된 1980년대 초반에는 그 자체로 전환기의 변혁성을 띄고 있었다. 목표와 전략, 방법에서 다 새로웠다. 당시 있었던 좌우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관계, 사회구성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살림의 세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기존의 저항에서 창조라는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들이, 한층 더 이런 목표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략도 민중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부분에서 시작했다. 농민들이 농약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해, 직거래와 유기농을 중심으로 전략을 짰다. 방법 면에서 기존의 정치 투쟁이나 폭력적 투쟁보다는 생활과 문화라는 부분으로 운동의 방식을 한 차원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고 새로운 제안이었다.

현재가 전환기라면, 문제는 30년 전에 만든 한살림 패러다임이 지금 적용 가능한가, 유효한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류하 선생님이 강조하신 말씀, 즉 전환기에 한살림운동의 변혁성을 어떻게 다시 되살리고 꾸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강민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즉 협동조합운동이 사적인 영역이나 자기 예방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정리하자면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의 접합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오늘 토론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생명운동을 거시담론이나 메타담론에 머무르게 하기보다 중 범위의 토론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명운동은 협동운동을 통해 실사구시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협동조합운동은 대안적 정체성이나 운동의 방향성 면에서 생명운동의 논리를 고민하게 되면 그런 현실적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긴 시간 동안 토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다.

# 돌봄과 탈식민은 탈성장과 어떻게 만나는가<sup>\*</sup>

백영경(제주대학교)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서로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배틀그라운드』, 『프랑켄슈타인의 일상-생명공학시대의 건강과 의료』, 『여성운동 새로 쓰기』 등이 있다.

✉ yg.paik@gmail.com

● 이 원고는 저자 사정상, 창작과비평 195호의

<백영경, 2022, “돌봄과 탈식민은 탈성장과 어떻게 만나는가”> 라는 글을 다시 수록하였습니다.

---

## 기후위기의 위험과 탈성장 논의의 전개

이제 기후위기는 누구도 낙관적인 해결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해마다 일어나는 대규모 산불로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대량의 탄소를 배출해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고, 이는 다시 잦은 산불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들어 일어난 일들만 잠깐 검색해보도 증가하고 있는 위험을 알리는 소식들이 보인다. 구글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위협 요인으로 기후위기의 여러 측면을 언급했는데, 그중 하나로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력 차단 사태도 지목되었다.<sup>1</sup> 구글은 2020년부터 미국 지도에 산불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현재 겨울철 산불이 예년의 3배 이상 증가했는데,<sup>2</sup>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대형 산불로 번지는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고온 현상과 가뭄 탓이라고 한다. 호주에서는 산불과 전염병으로 코알라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지고 있는 섬나라들의 이야기를 넘어, 올해 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열대 폭풍 ‘아나’로 인해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등의 국가가 큰 피해를 보았다. 코로나19 외에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식물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농업이나 어업 등 자연 의존적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생태계의 변화에 민감해진 지는 꽤 된다. 한여름 폭염이나 미세먼지, 밥상물가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곤 하는 도시민들과 달리,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무엇을 경각해야 하는지, 어류 자원의 변화나 잦아지는 태풍에 어떻게 대처하고 언

1) “구글, 공급망 위협요인에 ‘산불’ 추가...”기후변화 위협적”, 2022. 2. 6. 한경 ESG.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041342i>

2)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겨울철 산불 발생이 평균 11건인 데 비해, 2022년 1월 현재까지는 33건이 발생했다.

제 무엇을 출하해야 하는지는 이들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해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올겨울 한반도 남쪽 지방의 꿀벌 실종 사태나 김 양식장 피해 사태는 기후위기의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말 그대로 사람이 먹고사는 일 자체를 위협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감하게 한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나 잦아지는 전염병을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들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당장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지가 물에 잠기거나 인간이 버티지 못할 정도의 고온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우선 먹을 것이 부족해져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렇게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위기의 성격에 대한 진단, 개입의 방향에 관한 판단, 근본적인 변혁의 필요성과 체제 전환에 대한 요구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기후위기에 관한 대응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것인가를 둘러싼 경합이 펼쳐지는 하나의 장(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기후 정치의 전선은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서 과연 서로가 주장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적절하고 충분한지로 옮겨온 셈이다. 어떤 위기라도 새로운 확장의 계기로 만들려는 시도가 장기인 자본주의체제의 속성을 참작하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위기에 대한 진단이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기술관료적 해결(technocratic fix)만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도 증가하고 있다. 설령 큰 지향에서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논의에서 빠진 점이 없는지 짚어보는 작업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작업의 필요성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자본주의의 무한한 성장주의를 지목하며 탈성장(degrowth)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흐름에도 해당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탈성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제쳐둔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성장의 중단이 기층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탈성장 담론은 글로벌 북반구 중심의 논의이며 여전히 발전을 필요로 하는 글

로벌 남반구의 삶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추구해야 할 것은 적절한 수준의 성장이지 탈성장은 아니라는 반론이 본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sup>3</sup> 이에 대해 탈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탈성장이란 역성장이 아니며, 성장과는 아예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 삶을 재조직할 것을 촉구해왔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탈성장론이 글로벌 북반구 중심의 담론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성장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져온 문제점과 기후 위기를 비롯한 생태적 재앙에 대한 비판이 글로벌 북반구에서는 탈성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나오고 글로벌 남반구에서는 기후정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두 흐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sup>4</sup> 실제로 에콰도르의 부엔 비비르(Buen Vivir)를 비롯해 탈성장의 흐름 속에 있다고 볼 만한 여러 실험이 글로벌 남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발전을 앞세운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가 만연한 글로벌 남반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탈성장론을 무조건 글로벌 북반구의 담론으로 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료 조달부터 노동력의 문제, 유통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지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성장이라는 개념은 일국 단위에서 정책적 모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참조할 만한 지점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그 일국 단위의 성장이 규모와 무관하게 다른 지역에서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눈 감게 만들 우려도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단 적절한 성장의 규모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본국에 생겨나는 노동력과 돌봄의 공백 문제, 토지 및 원료 수탈의 문제, 공해 산업과 폐기물의 수출 문제, 현지 노동력에 대한 저임금과 인권 탄압 문제들을 지금같이 기후위기 문제가 절박하게 다가올수록 중요한 일은 전환을 위한 큰 담론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탈성장론도 담론적 궤적을 따라 논의를 비판적

3) 강경석, 김선철, 정건화, 채효정. (2020).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창작과비평, 48(4), 223-251.

4) Sultana, F. (2021). Critical climate justice. The Geographical Journal. 1-7.

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실에서 탈성장론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면서 꼭 필요함에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필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천에서는 계속 배제되는 영역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탈성장론이 학술적 담론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생태건전성을 지향하는 중요한 실천적, 체제 전환적 사회운동의 장이라 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도드라지게 된다.

### 탈성장 논의가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탈성장론이 1970년대 형성된 이래로 성장지상주의에서 탈피해 에너지와 물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가치를 재조정하며 제도를 바꾸어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따라서 처음부터 돌봄이라는 가치에 친화적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탈성장론과 에코 페미니즘은 비슷한 시기에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큰 내적 친연성을 가진다. 물론 탈성장론을 한가지 경향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환경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 성장, 윤리적 소비 등 성장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흐름이 지배하면서 탈성장론 자체가 주축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탈성장론으로는 성장의 폐해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글로벌 북반구 중심의 담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탈성장론은 애초부터 글로벌 북반구의 생활방식이 환경과 노동 착취에 따른 비용을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면서 유지되어온 ‘제국적 삶의 양식’(imperial mode of living)<sup>5</sup>이라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sup>6</sup> 이러한 제국적 삶의 양식은 생태적으로 지

5) Brand, U., & Wissen, M. (2012).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and the imperial mode of living: articulations of state-capital relations in the multiple crisis. *Globalizations*, 9(4), 547-560. which is sustained by capital and the capitalist state,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sistence of resource- and energy-intensive everyday practices and their socio-ecological consequences. The imperial mode of living is principally based on an unlimited appropriation of resources and labour power and on a disproportionate claim to global sinks.

6) Dengler, C., & Seebacher, L. M. (2019). What about the Global South? Towards a feminist decolonial degrowth approach. *Ecological Economics*, 157, 246-252.

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여성이나 글로벌 남반구 혹은 남반구 출신들에게 떠맡기고 있으며,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들의 자원을 약탈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sup>7</sup> 소위 발전을 이루었다는 나라들에서 일반 시민들이 영위하는 삶조차 실제로는 글로벌 남반구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국적 삶의 양식을 비판하는 탈성장론은 만약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밀고 나갔다면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탈식민의 문제의식도 포함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탈성장론은 생태 문제와 젠더 정의 사이에서 늘 생태 문제를 우선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2016년 페미니즘들과 탈성장연대(FaDA, Feminisms and Degrowth Allance)가 형성되면서 주류 탈성장론에 던진 가장 큰 비판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탈성장론이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전환과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연대를 추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관계는 애매한 면이 있으며 지역으로 갈수록 더 큰 편차를 보인다.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돌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연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겨온 근대 자본주의 및 여성의 몸과 노동력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지탱되어온 자본주의적 경제에 대한 비판을 보이며 페미니즘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 문제의 긴박성 앞에서 젠더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는 중이다.

이렇게 젠더 문제가 뒤로 밀리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돌봄 중심의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젠더 문제가 왜 중요하며 페미니즘적 접근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구체적 인식은 부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자는 주장에 집중할 뿐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노동의 성별 집중현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성장 페미니즘이 강조하는 바는 주류 탈성장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점증적이고 해방적인 방식으로 돌봄을 탈상품화하려 할 때, 이를 통해 돌봄노동을 재배치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사

---

7)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Rjcel Salazar Parrennas).(2009). 세계화의 하인들. 문현아 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회적·생태적 정의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젠더 정의를 위한 투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성주의적 개입이 없다면 탈성장론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돌봄의 사회화가 돌봄노동의 상품화 경향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탈성장 페미니즘은 체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돌봄 소득”(care income)이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의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모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봄 위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sup>8</sup> 돌봄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돌봄 소득의 목적은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개인들에게 돌볼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돌봄에 소득을 지급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돌봄 소득을 통하여 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사회가 처한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일이라면서 돌봄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를 한국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떤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돌봄 소득이라는 개념이 낯선 것과는 별개로 하지만 돌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소득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주어지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가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아픈 가족을 돌보며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방식의 돌봄 수당은 가족을 일차적인 돌봄의 책임자로 간주하여 가족 위주 돌봄 체제를 유지시키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노동의 가치를 타인을 돌보는 노동에 비해 낮게 보상하

---

8) Feminisms and Degrowth Alliance (FaDA). (2020). “Collaborative feminist degrowth: pandemic as an opening for a care-full radical transformation.”

<https://www.degrowth.info/en/feminisms-and-degrowth-alliance-fada/collectiveresearch-notebook/>



는 문제가 있다.<sup>9</sup> 이런 경우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이들은 더 높은 임금을 쫓아간 결과 타인을 유급으로 돌보면서 자신의 가정은 돌봄 공백에 시달리는 결과에 시달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무임 노동과 타인을 돌보는 유급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노동의 부담을 질 것인가, 그도 아니면 사랑의 이름으로 낮은 보상과 함께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면 현재의 가족 제도와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에 보상을 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돌보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돌봄의 민주적 재분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임금 노동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누군가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 임금을 받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주로 여성들의 돌봄 독박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노동 시간의 단축도 이루어지지 않고 돌봄의 민주적 배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로 따라서 한국 돌봄 확대의 핵심은 돌볼 수 있는 시간의 확보, 결국 노동시간의 감축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감축 의제의 경우 그 혜택이 정규직, 그것도 일부 직종에 한정되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면,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당을 통해 사회 전반의 유급 노동시간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때의 돌봄 수당이란 돌봄 행위 자체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기 보다는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가치를 따라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을 구분하며, 여성 노동의 가치를 끝없이 평

---

9) 조기현, '돌봄의 화폐화'에 대한 단상, 《생태적 지혜》, 2021. 8. 17. <https://ecosophialab.com> > 돌봄의-화폐화에-대한-단상

가절하하는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탈성장 페미니즘에서 탈성장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주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탈성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여성에게 집중되어온 돌봄노동이나 여성이 담당 해온 출산과 양육이 사회재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이었음에도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이 결국은 자본주의체제의 작동에 핵심적이었음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성역할뿐 아니라 가족제도 전반이나 핵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의 현실에 대한 비판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현실의 돌봄에 스며 있는 제국적 삶의 방식

돌봄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도, 탈성장도 이뤄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현실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탈성장 페미니스트들은 주류 탈성장론자들과 마찬가지로 탈성장이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폭넓은 사회와 생태정의의 문제이며, 탈성장은 역성장이 아니고, 탈성장의 의제가 글로벌 북반구/중산층 이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역 간, 세대 간, 지역 내, 생태 부정의를 가져오고 있는 ‘과도하게 발전된’ ‘제국적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음을 강조한다. 다만 이러한 탈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 자체에 제국적 삶의 방식이 여러모로 깃들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페미니스트 탈성장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돌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과 환경 문제에서 어떤 방식의 젠더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어떤 분업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현실의 돌봄노동이 수행되는 방식은 이주의 문제를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젠더화되어 있는 만큼이나 인종적 위계를 동반하고 있다. 글로벌 북반구의 국가에서

여성에게 쏠린 돌봄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고 남녀가 모두 임금노동자로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기 위한 노력이 탈성장이나 지구적 차원의 부정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종종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글로벌 남반구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돌봄에서 젠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탈식민운동과 탈성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sup>10</sup>

실제로 돌봄노동, 그중에서도 무급의 돌봄노동은 기존 경제 이론에 내재한 젠더 규범과 남성중심주의적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탈성장을 내세우지 않는 기존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에서는 돌봄노동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서 ‘회피하기(avoiding) / 변화시키기(modifying) / 이전하기(shifting) / 재배치하기(redistributing)’라는 네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이 가운데 탈성장 페미니즘에서 제일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돌봄노동을 무급에서 임금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으로, 삶의 더 많은 부분을 화폐화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물론 다른 전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생겨나는 돌봄의 필요를 남에게 맡기는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전가하는 돌봄노동의 총량을 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에게 떠맡겨지는 부당한 돌봄노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돌봄의 필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지금보다 좋은 사회란 더 많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사회이지 돌봄의 필요가 줄어드는 사회는 아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아랫사람에게 맡겨지는 돌봄을 피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기술적 해결을 찾는 것 역시, 가령 세탁기나 청소기처럼 많은 수고를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

10) Dengler, C., & Lang, M. (2021). Commoning Care: Feminist Degrowth Visions for a Socio-Ecological Transformation. *Feminist Economics*, 1-28.

11) Knobloch, U. (2013). Geschlechterverhältnisse in Wirtschaftstheorie und Wirtschaftspolitik. Widerspruch: Beiträge zu sozialistischer Politik, 62, 60-65. Dengler, C., & Lang, M. (2021)에서 재인용.

인 해결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어떤 노동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기도 하고, 기계화가 노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동과 관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모든 노동들을 기계화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불러오는 생태 비용의 증가를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들어 돌봄노동을 대신할 인력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부쩍 늘어난 가전제품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빠른 주기로 만들어지고 버려지면서 쓰레기 증가에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북반구의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남반구의 저임금 노동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제까지 무급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운동의 현실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돌봄노동의 대가를 올리는 문제를 도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sup>12</sup> 탈성장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방식, 즉 국가의 지원 확대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는 결국 화폐와 시장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모델은 실제로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서구의 복지사회를 가능하게 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는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노동과 자연의 착취에 기반한 것인데다 현재의 환경 재앙을 가져온 화석연료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돌봄체제로의 전환에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지원마저 언제든 철회하려는 정부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의 중요성을 낮추어 보자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원 확대는 페미니스트 탈성장론이 사용할 수 있는 하

---

12) 여성노동자회 x 전국여성노동조합 (2022), 『2022 20대 대선, 여성노동자가 제안하는 대선의제 성평등 노동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위하여』 참조.

나의 방법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탈성장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의 영역에서도 화폐화 된 관계를 축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화폐화 된 관계만 축소하면 된다는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생산과 재생산, 생산과 소비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경계를 획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임금노동과 부불노동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자본주의사회를 작동시키는 근간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돌봄의 영역에서 탈상품화 된 돌봄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국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모색하다 보면, 결국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공통영역, 다시 말해 커먼즈(common)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삶의 공통영역으로서 커먼즈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화 되지 않은 자발적인 돌봄들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커먼즈의 핵심에는 돌봄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커먼즈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들의 자발적인 노동을 당연시하고 적은 임금이나마 제공하는 시장만도 못하다는 의혹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생태적 가치를 앞세워 편리함을 제공하는 상품의 사용을 꺼려하면서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노동을 민주적으로 나누어 맡으려는 노력은 부족할 때, 결국 그 일을 떠맡게 되는 것이 늘 그 일을 해오던 여성들이나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하급자가 되는 사례들을 몇 번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커먼즈에 대한 거부감과 의혹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은 현실에서의 커먼즈가 반드시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를 모두 구현하지는 않다는 점을 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아가 과연 체제 변혁을 위한 커먼즈인지 아니면 그저 공동체적인 가치를 내세울 뿐인지에 따라 그 성격을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다. 커먼즈가 임금노동과 부불노동, 공사 구분, 개인과 공동체, 자연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분법을 문제 삼는 것은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러한 체제의 변화 속에 돌봄노동이 특정 성별의 사람들에게 쏠

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나아가 작은 단위의 집합적 삶을 넘어서 현재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분업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커먼즈를 통해 체제 변혁의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노력 없이 국가와 시장이 아닌 공동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자원봉사와 다름없는 돌봄을 강요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는 차라리 시장에서 돌봄노동의 제값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발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돌봄 커먼즈 논의에서 젠더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탈식민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돌봄 커먼즈를 글로벌 북반구의 시야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공동육아나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돌봄 공간 정도에서 상상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이렇게 이미 우리가 아는 대안적 돌봄의 모델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체제 전환의 고리로서는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과연 이러한 시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가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많은 경우 이러한 돌봄 커먼즈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주체들이 여성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희망은커녕 적대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돌봄의 커먼즈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도시 중산층의 삶이나 글로벌 북반구의 시야를 넘어서서, 자본주의적인 방식 바깥에서 이루어져 온 많은 공동의 삶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남반구의 여러 지역에서, 한국 안에서도 빈민들이 생존하는 데서 돌봄의 커먼즈는 이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쪽방촌을 재개발한 후에 원래 살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변화된 주거형태나 공간 배치 속에서 이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관계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공동의 삶 자체가 파괴된다. 현실의 세계에는 이미 가족을 넘어서, 국가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많은 돌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정받지 못한 돌봄들이 없었

다면 세계가 이만큼도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임도 분명하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러한 돌봄의 존재를 취약계층이나 빈곤지역, 저개발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온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회변혁을 위한 단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도시의 중산층들이 상상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실제로는 제국적 삶의 방식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이미 앞서 제기하였지만, 돌봄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나의 가족, 돌봄을 통해서 유지하고 싶은 삶의 품위가 내 가족의 지위와 재산인 경우라면 돌봄은 결코 대안적 가치가 될 수 없다. 돌봄이 전환적인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해서도 다른 상상이 필요한 것이다. 가족은 무엇이며, 혈연에는 어떤 가치가 있고, 이웃은 누구이며, 좋은 휴식이란 어떤 것이고, 내 몸을 잘 돌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살고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과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등에 대해서 서구/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남성상이나 다른 여성에게 노동을 전가하지 않는 돌봄노동의 재배치를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분업의 문제나 인종주의의 문제, 서구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면 모두 낙후된 것으로 취급하거나 탄압하고 차별해온 역사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성장 사회는 이윤이 아니라 삶의 유지와 안녕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이며, 코로나 19 이후 돌봄이 중심적 가치가 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정말로 변혁적이기 위해서는 탈 성장에 더해서, 탈식민의 관점과 교차성의 시각을 잃지 않는 페미니즘이 요구된다.

### **최일선 공동체(frontline community)라는 의식**

돌봄 노동의 여성 쏠림 현상을 변화시키고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는 것이 자칫 제국적 삶의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돌봄 문제가 현 체제의 틀 안에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는 성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



다. 동시에 돌봄 문제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식민주의나 성장주의적 자본주의와 같은 더 큰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후위기와 전염병의 지속 속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차별적인 성격 역시 강화되었다는 현실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sup>13</sup> 여기서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돌봄 노동자들 역시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위협의 ‘최일선’에 있으며, 동시에 체제 전환을 위한 ‘최일선 공동체’의 일부라는 의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sup>14</sup>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최일선 공동체(frontline community)라는 용어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빈곤층, 유색인, 토착민, 소수자 집단이나 기후변화를 특히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는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기후위기 이전에도 이미 불이익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으나 특히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자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집단이다.<sup>15</sup> 기후위기의 해결에서 최일선 공동체의 현실과 관점을 반영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최일선 공동체는 물론 기후변화를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그대로 기후변화의 ‘최일선’에서 저항해온 집단이기도 하다.<sup>16</sup>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환경 정의 투쟁은 원주민들에 의한 것이고, 이미 1990년대부터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the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라는 이름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최근의 썬라이즈 운동(the sunrise movement)로 이어지는데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그저 취약한 집단

13) 김현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13(2), 41-77.

14) Butt, M. N., Shah, S. K., & Yahya, F. A. (2020). Caregivers at the frontline of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Gender & Development, 28(3), 479-498.

15) Fernandez-Bou, A. S., & Ortiz-Partida, J. P. 3 challenges, 3 errors, and 3 solutions to integrate frontline community needs in climate change policy and research.

16) Dhillon, J. (2018). Introduction: Indigenous resurgence, decolonization, and movements for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 and Society, 9(1), 1-5.



이 아니라 노동 및 여성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정의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sup>17</sup>

최일선 혹은 최전선 공동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운동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해 8월 탄소중립시민회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비판하면서 허울뿐인 시민참여 대신 ‘최전선 시민과 영역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했으며<sup>18</sup>, 10월에는 기후정의행동 참가자 일동의 이름으로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우리가 희망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19</sup> 기후정의행동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최전선의 민중과 공동체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변혁의 주체”이며, “청소년, 청년, 빈민, 장애인, 여성, 노동자, 농민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 큰 피해를 겪는다는 이유에서” 취약계층이라 말하지만, “이는 민중의 취약함이 아니라, 체제가 만들어낸 권리의 박탈과 배제의 결과일 따름”이며, “이러한 ‘착취와 폭력’에 맞서 싸우는 기후위기 최전선의 민중과 공동체는 기후위기를 넘어설 변혁의 주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최일선 공동체의 의미는 취약성과 투쟁의 주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가지 측면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실 취약함의 성격이나 원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거기에 맞서는 투쟁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맞서는 주체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취약함은 그저 취약함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일선 공동체의 경우에도 그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위협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들은 어떤 종류의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투쟁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의미를 읽어내면서 새로운 연대를 열어가는

17) Dolan, P. (2020). Inclusion of Frontline Communities in the Sunrise Movement, Brandeis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8)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참여’를 가장한 비민주적 논의 규탄한다. 2021년 8월 6일.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811473>

19) 기후정의행동 참여자 일동,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우리가 희망이다. 2021. 10. 14.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80>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돌봄의 문제로 이어서 보면, 결국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비경제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평가절하하고 돌봄 노동을 값싼 저임금 노동으로 만들어 착취하며, 돌봄의 지구적 연쇄효과를 통해 돌봄의 부담을 결국 글로벌 남반구로 넘기는 체제는 자연을 착취하고 비용을 외주화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후위기를 낳는 체제와 동일한 체제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시장이 될 것이다.<sup>20</sup> 현재의 위기는 소위 생산적 노동만이 노동이며, 물질적인 면에서만뿐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사회를 생산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며 생태계를 돌보는 재생산 노동을 평가절하해 온 체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보면 현재 돌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감염병 위기로 인해 그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취약성과 투쟁을 모두 최일선 공동체의 문제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일선 공동체라는 발상과 실천이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좁은 의미의 기후재난 피해에 갇혀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3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의료와 교육 노동자들은 최일선 공동체의 일원임에 분명하며, 이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의료진의 안전, 전염병 속에서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역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교통과 주택, 교육, 복지와 같은 삶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장해가는 투쟁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에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숙제이지만, 이러한 투쟁 없이 돌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최일선 공동체가 위기의 최일선에 있다고 해서 이들이 단지 취약한 존재가 아니라 해결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

---

20) 낸시 프레이저, 문현아 역 (2017). 자본과 돌봄의 모순. 창작과비평, 45(1), 329-353.

한 시사점을 준다. 돌봄 노동자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이들의 문제를 취약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전환의 목적이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데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돌봄의 문제를 단지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해결책으로 접근하게 될 때, 그 해결책은 지구적인 불평등이나 환경 정의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크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돌봄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이를 통해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돌봄의 현장에서 나와 내가 속한 사회, 나아가 인간 너머의 세계를 돌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일선 공동체의 일원이며, 돌봄의 공백 속에서 받는 고통과 극복의 실천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투쟁의 최일선일 것이기 때문이다.

# 생명의 돌봄운동

서미영(한살림고양파주)

---

한살림고양파주에서 돌봄기금을 조성하고, 조합원과 돌봄활동을 펼치는 것이 참 즐거운 조합원이다. 이사장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명운동과 돌봄의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

✉ hslky24@hansalim.or.kr

도농공동체운동으로 시작한 한살림이 밥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길로 ‘돌봄’ 의제를 택하고 돌봄운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살림이 왜 돌봄을?’이란 질문도 듣지만, ‘한살림이라 돌봄을!’이라는 소감을 나누기도 한다. 한살림이 이루려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떠올려 보면 살림운동이 곧 돌봄운동의 모습으로 대치된다. 밥상살림으로 먹을거리 돌봄을 한다. 농업살림으로 생산자 돌봄을 한다. 지역살림은 지역으로 나아가 연대하고 돌봄을 확장한다. 생명살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며 돌봄의 그물망을 촘촘히 하여 돌봄 공동체로 완성된다.

인간의 삶은 관계와 돌봄으로 이루어진다. 태어나기 위해 부모가 필요하고, 태어나는 순간도 엄마와 함께해야 하며, 갓난아기일 때는 양육자의 돌봄이 절대적이다. 성장하여 누군가의 돌봄 없이 독립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기도 한다. 그러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혼자일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관계를 추구하며, 돌봄을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꼭 어른이 어린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것도 아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어린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나이 들어 아픈 부모를 돌봐야 하는 일도 생긴다. 이런 돌봄 상황이 예고되지도 않는다. 가족을 돌봐야 할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에는 큰 혼란이 온다. 그 혼란 가운데 경험했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독박 돌봄으로 지치기도 하고,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불효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으며, 돌봄 시설과 서비스는 불만족스러웠으며,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의 불합리함도 보였다. 그런데 한살림이 돌봄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돌봄, 우리가 만족하는 돌봄일 것이다.

한살림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한살림운동의 지향’을 낭독하며 서로의 의지를 다진다. 이렇듯 돌봄에도 ‘한살림 돌봄의 지향’으로 우리의 의지를 담아본다. 한

살림의 돌봄은 생명의 존귀함으로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생명을 생활 속에서 온전히 구현할 수 있게 하는 ‘모심의 돌봄’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가 관계를 통해 자립을 도모하는 ‘소통의 돌봄’이다. 조합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이웃을 돌아보고 연대하는 ‘나눔의 돌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삶의 전 영역을 보살피는 ‘생애의 돌봄’이다. 지구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순환의 돌봄’이다.

이런 돌봄운동을 펼칠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한살림 조합원이다. 우리 조합원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 어느 부분에서 그럴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시대 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아 행동으로 앞장서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이렇게 준비된 조합원과 함께 한살림돌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활동은 조합원활동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봉사나 여가를 즐기는 활동이 아닌 ‘돌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 합의된 용어는 아직은 없다. 한살림고양파주에서는 돌봄활동과 돌봄사업에서 일할 조합원을 ‘아이돌봄 선생님’, ‘생활돌봄 활동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일할 사람이 있다면, 돌봄활동과 돌봄사업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 준비된 것이다. 그 다음은 돌봄활동과 돌봄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재원이 있어야 한다. 돌봄을 진행할 물리적 공간, 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수익자 부담이나, 관 사업 등을 위탁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참여하여 조성하는 돌봄기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한살림고양파주에서는 한 달에 천 원씩 모으는 돌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11월 현재 1,2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 달에 천 원이지만, 조합원 1만 명이 참여하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의 돌봄기금이 조성되는 것이다.

한살림 매장이 집 근처에 있으면 “우리 ‘한세권’에 살아!”라며 자부심을 갖는다. 한살림이 돌봄기금을 조성해서 돌봄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돌봄을! 우리가

만들어서 실현해!”라는 성취감, 만족감,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필요해서 만든 돌봄이 확장되어 우리가 만족하는 돌봄이 되고, 내가 받은 돌봄이 돌고 돌아 서로 돌봄으로 순환되었으면 한다.

#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호혜적 돌봄 생태계

문현주(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의 즐거움과 힘을 경험하며,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로 일하고 있다.

✉ moon@salimcoop.org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은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의료사협으로서 조직 운영 가이드라인 10원칙을 선포하였으며, 그 중 열 번째 원칙이 ‘호혜적 돌봄’이다. 돌봄은 혼자만의 힘이나 소수의 친한 관계만으로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하고, 돌봄이 독박이 되거나 이윤 추구의 장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돌보기만 하는 사람과 돌봄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나뉜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돌봄의 관계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돌봄이 고갈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되어야 하기에 ‘더’ 돌보고 ‘같이’ 돌보고, ‘잘’ 돌보기 위해, 돌보고 돌봄 받는 연습과 돌보는 실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출발은 호혜적 돌봄, 존엄한 돌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현재의 돌봄이 정의롭지 않음을 직시하는 것이었다. 서울복지재단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며 노부모를 돌보는 서울 시민의 89%는 여성이었다. 남성이 아플 때 배우자가 간병하는 경우는 96.7%지만 여성이 아플 때 배우자가 간병하는 경우는 27.5%라는 게 현실이다. ‘좋은 죽음’이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우리 사회의 답이 있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여성이 독박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돌볼 사람이 가족밖에 없는 현실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두렵고 힘겨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은 돌봄의 가치와 확대의 필요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돌봄 현실의 부정의를 인식하고 이를 바꾸어 가려는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아플 때 좋은 돌봄을 받고 싶고, 내가 살던 지역에서 안심하고 나이 들어 가고 싶어 하며, 아파도 늙어도 장애가 있어도 나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좋은 돌봄, 존엄한 돌봄에 대한 연구에서도 좋은 돌봄을 상호의존과 그 과정에서 관계가 발전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사회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등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기능 외의 부분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 ‘지역 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는 ‘내가 그 커뮤니티에 살고 싶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 핵심은 ‘제도와 서비스의 확대와 촘촘한 연결’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의지하고 안심할 수 있는 관계망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살림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돌보고 돌봄받는 연습하기, 돌보는 실력 키우기가 필요하다**

살림 조합원은 좋은 이웃 되기, 건강 돌봄 학교, 심폐 소생술 교육, 나이 들어 살고 싶은 마을 그리기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돌봄의 철학과 기술을 익히고 있다. 또한 조합원 모임에서 자신이 어떠한 돌봄을 받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고, 돌보는 과정에서 말하기와 경청의 태도, 돌봄 관계망의 동심원을 그려보는 돌봄장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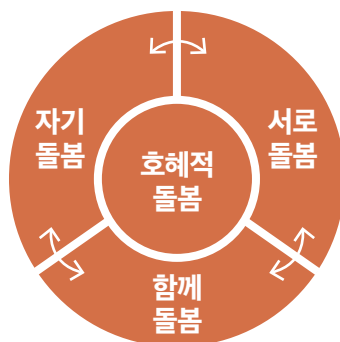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돌보는 사람을 돌보자)**

돌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돌봄과 함께,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돌봄의 2선, 3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료, 건강 사업 및 조합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사자와 돌봄자가 편하게 와서 대화하고 운동하고 인지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있다. 돌봄 자원활동가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서로 돌봄 카페가 있고,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의료지원(예방접종, 골밀도 검사 지원)이 있고, 오랜 돌봄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통증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참여하는 운동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 **‘자기 돌봄·서로 돌봄·함께 돌봄’이 서로 맞물리며 복돋아질 때 만들어진다**

호혜적인 돌봄은 건강의 주체로서 스스로 돌보는 힘을 키우는 ‘자기 돌봄’, 혼자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  
건강의 주체로서  
스스로 돌보는 힘을 키우는  
**자기 돌봄**



“돌볼 수 있을때 돌본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통해서  
함께 건강해지는  
**서로 돌봄**

개인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돌봄을  
협동하는 조직을 통해 해내고자 하는 **함께 돌봄**  
“돌봄이 필요할 때 좋은 돌봄을 받는다”

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서로 돌봄’, 개인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돌봄을 협동으로 함께해 나가는 ‘함께 돌봄’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 이에 살림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유연장 작성, 건강교육(자기 돌봄), 건강모임(서로 돌봄), 데이케어 센터, 방문요양 등의 돌봄 기관 운영과 돌봄 자원활동(함께 돌봄)이 조직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있는 제도는 적극 활용하고, 없는 제도는 현장에서 시도하고 새롭게 제안하며,**

**제도 바깥에서라도 필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간다**

협동조합은 정부나 기업이 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요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조직이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같이 기존에 있는 제도는 적극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없는 제도, 예를 들어 병원과 집의 중간 집으로서 일명 ‘케어비앤비’ 같은 제도는 현장에서 직접 시도해 하여 경과를 보고 지속 확산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럼에도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스스로 자본과 사람을 모아 ‘직접 하자’는 기조로 사업과 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생명의 돌봄운동’ 논의

정리: 김세진

## [질문] 구도완 \_

먼저 문현주 선생님께 질문한다. 돌봄을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과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답변] 문현주 \_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참여가 경영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다. ‘살림’이 의료에서 돌봄으로 사업 영역을 통합하자고 했을 때 여러 맥락 중 하나가 돌봄사업에서는 조합원이 돌보는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운영 과정과 의사 결정에 의료보다 훨씬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돌봄이 시장의 돌봄사

업보다 반드시 질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 안에서 얼마나 기본적인 것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조합원이 운영과 돌봄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돌봄의 질이 담보되고 지속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여기에 중심에 두는 게 필요하다.

#### [질문] 구도완

백영경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다. ‘탈성장과 돌봄’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다. 탈성장이 되면 화폐 수입과 GDP는 줄어들지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거나 다른 질적인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탈성장과 돌봄이 행복하게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저개발 국가에서 어린이나 여성들이 물 길는 노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탈성장의 길과 돌봄의 길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답변] 백영경

탈성장과 돌봄이 행복하게 만나지 않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깨끗한 식수가 없는 곳에서 식수를 생산하는 것과 탈성장은 무관하다. 필요한 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라, 성장주의에 경도된 성장과는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돌봄의 주류화’에서 주류화라는 것은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별생각 없이 선거 의제로 그걸 집어넣고 디지털 녹색성장과 돌봄을 같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저는 한살림이 돌봄운동을 해 온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문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돌봄의 사회화’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돌봄의 사회화는 상품화

될 수밖에 없고, 국가가 돌봄노동을 염가로 구매해서 바우처로 뿌리는 방식밖에 될 수 없다. 누가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회화라는 것은 오히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저하하고 상품화를 가속화하면서 노동의 여성화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그런 면에서 ‘살림’에서 잘해 오신 돌봄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돌봄을 말하다 보면 제일 나오지 않는 게 가족제도 비판이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돌봄이 되면 곤란하다. 그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 이성애자 중심의 핵가족이 각각 자기 집에 들어앉아 아이 낳아 기르면서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돌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다른 세상으로 가야 한다.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상속제도를 비판하고 노동시간을 감축해야 하고 에너지 쓰는 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돌봄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하는 돌봄 이야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돌봄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야 진정한 생명논의고 돌봄 논의다.

서미영 선생님이 한살림 조합원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문제에 대안을 찾는 것에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진정성을 믿는 편이다. 다만 공감의 대상을 확장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해결 대상을 확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한살림 같은 조직에서 그런 문제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중요한 주체가 될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탈성장, 도덕적 가치를 넘어 현실 대안의 그물망으로

김현우(탈성장대안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활동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10년간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에너지 체제의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연구했으며, 에너지 전환, 도시 정치,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민주화 등에 관심을 두고 글을 쓰고 있다. 지금은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으로 신문 발간을 돕고, 기후위기를 알리는 교육과 탈성장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안토니오 그람시』, 『정의로운 전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를 되찾자』, 『GDP의 정치학』, 『녹색 노동조합은 가능하다』,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공역), 『적을수록 풍요롭다』(공역), 『심층적응』(공역) 등이 있다.

✉ nuovo90@hanmail.net



## 체제 변화와 탈성장 대안

기후위기, 더 넓게 보아 ‘인류세’ 개념이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삶 전체의 양태에 걸친 것이다. 위기의 근원은 무한한 자원 이용과 노동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 자본주의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지목되며, 따라서 위기 해결 방식도 그러한 남용과 폭력을 저지하거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생태적 현대화’를 바탕으로 한, 녹색성장부터 그린 뉴딜에 이르는 주류 정책 대안들이 제안하는 부분적인 개선과 보완만으로는, 이 자연계와 인간계를 넘나들어 펼쳐지고 있으며 장구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가 해소될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기후위기와 함께 코로나 상황이라는 만성적 비상사태를 맞아 급진적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sup>1)</sup>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9월 24일, 서울의 기후정의행진에서도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같은 구호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결국 기후위기는 원인과 해법 모두에서 자원 소비와 경제적 활동 방식과 관련된 문제임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와 변혁의 대상인 ‘체제’의 실체와 변화 방법이 되는 ‘전략’, 그리고 변화의 결과로 만들어질 ‘미래상’에 대한 합의는 아직 미비하다.

홍덕화는 실제로 기후정의를 기치로 체제 전환을 내걸더라도 개별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정의로운 전환이 곳곳에서 언급되나 급진적인 전환으로 확장되는 일도 드물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론적으로도, 자본의 축적 전략을 분석하고 운동 전략을 모색하는 데 아직까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sup>2)</sup>

1) 안드레아스 말름, 우석영 장석준 역. (2021)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마농지.

2) 홍덕화, (2021) ‘탄소중립인가 기후정의인가, 전환정치 이정표 그리기’. 『전환의 질문, 질문의 전환』 풀씨.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체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의 발생원과 기상학적 메커니즘을 기술공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 이렇게 지구 환경과 인간 사이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거나 악화하게 만든 그 체제를 더 깊고 넓게 살펴보아야 하고, 이 체제를 바꿀 현실의 대안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해법으로 기술 면에서는 매우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결국 기후위기의 원인 자체이기도 한 자본주의 시장 권력과 전 지구적 정치 체제를 다루어야 함을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구도완은 ‘산업/자본/국가/인류 중심주의’로부터의 생태전환을 주장한다.<sup>3</sup> 제프 만(Geoff Mann)과 조엘 웨인라이트(Joel Wainwright)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념형으로서 ‘기후 리바이어던(Climate Leviathan)’, ‘기후 베히모스 (Climate Behemoth)’, ‘기후 마오 (Climate Mao)’, 그리고 ‘기후 X(Climate X)’라는 정치 체제 유형을 제시한다.<sup>4</sup> 예를 들어 현 기후 체제인 UNFCCC는 자본주의 내에서 전 세계 기후 통치권력을 의도하는 기후 리바이어던에 해당하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나 조프 베이조스 같은 자본주의 내의 이단아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기후 베히모스들이다. 중국의 급속한 에너지전환에 기대를 걸 수도 있겠지만(기후 마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어렵다. 자본주의 바깥에서 지역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후X가 상정되지만 그 실체는 불분명하다. 즉 이 중 어느 이념형도 현실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거나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과 유사한 조망을 제시하는 사이토 고헤이는 녹색자본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대안으로서 ‘탈성장 커뮤니티’를 모색하고 있다.<sup>5</sup> 하지만 정

---

3) 구도완, (2021) ‘한국에서 시민사회와 국가는 어떤 생태전환 정치를 해왔는가?’, 『전환의 질문, 질문의 전환』 풀씨.  
4) Mann, Geoff and Joel Wainwright. 2018. *Climate Leviathan: A Political Theory of Our Planetary Future*. Verso.  
5) 사이토 고헤이, 김영현 역. (2021)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다다서재.

치적 주체와 구현 방식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말름 역시 시장 기반 해법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속도와 규모를 담보하는 ‘생태적 레닌주의’를 호출한다. 그러나 말름은 아나키즘과 국가 권력 장악을 중시하는 공산주의 전통 사이의 낡은 대립에 기반한다. 말름에게 강력한 레닌주의적 의지가 있지만, 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계급 구성과 정치적 조직화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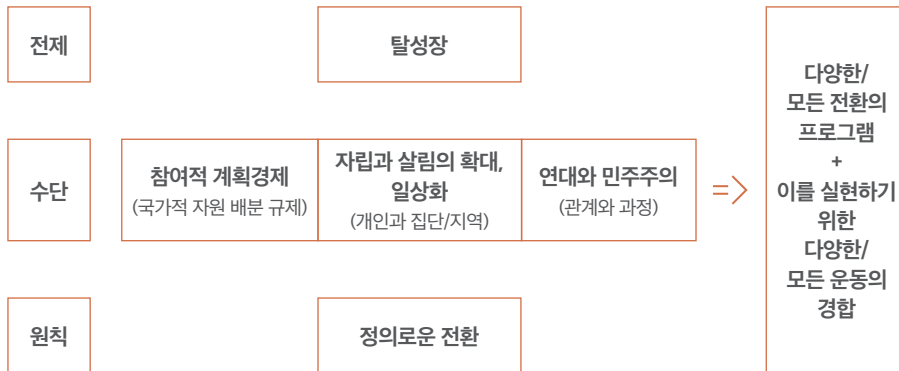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세계 여러 곳의 기후정의운동이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법 모두에서 자원 소비와 경제적 활동 방식과 관련된 구조, 즉 자본주의와 그 한 축인 성장주의에 주목하면서 탈성장 이론과 운동에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원칙과 방향에서 ‘탈성장’의 전면화 또는 경제의 질서 있는 후퇴와 축소를 통한 관리된 탈성장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생태적 붕괴, 멸종, 특히 ‘지구 행성적 한계(planetary boundaries)’라는 개념과 이미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산과 소비의 상당한 감소 또는 적극적 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현실에서 의미 있는 ‘탈동조화(decoupling)’가 없다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나 녹색성장도 허상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런 인식 위에서 GDP(국내총생산) 향상을 유일한 지표로 하는 ‘경제 성장을 상대화하고 다른 질적 지표들을 주류화 하자’는 아이디어와 운동으로서 탈성장은, 기후위기 대응 논의에 중요한 탈출구를 열어 주는 개념이자 운동의 좋은 축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탈성장을 전제로 ‘공공자원’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민주적인 참여 계획의 열개를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한다. 유럽연합을 위한 그린 뉴딜(GNDE) 그룹은 ‘성장 없는 그린 뉴딜(A Green New Deal without growth)’을 분명하게 제안한다.

요컨대 탈성장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 아닌’, 그리고 장기적이고 항상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회의 형태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시작할

수 있게 해 준다. 탈성장을 전제로 하여 (국가 수준의) 참여적 계획 경제와 (개인과 집단/지역 수준의) 자립과 살림 확대, 그리고 관계와 과정으로서 연대와 민주주의 심화라는 수단과 앞 뒷면을 이루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sup>6</sup>

#### [그림]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구성 요소



#### 내러티브 있는 시나리오로서 탈성장<sup>7</sup>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 『성장의 한계』 저자들의 논의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러나 그들의 해안은 정확했고 절실한 호소는 여전히 울림을 갖는다. 성장의 한계라는 개념은 ‘지구행성적 한계’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탈성장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 큰 간극이 존재한다. 기후위기가 대규모 멸종 사태를 암시하면서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탈성장이라는 대안은 그럴듯하지만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이상은 멀고 코앞의 전기요금 인상과 벌어들일 이윤은 구체적이다. 탈성장은 ‘자발적 청빈’이나 ‘마이너스 성장’

6) 김현우, (2021) '기후위기 대응과 탈성장 모듈 접근'. <https://ecosophialab.com/기후위기-대응과-탈성장-모듈-접근>

7) 이 절은 다음 글의 일부를 활용했다. 김현우, (2022) '탈성장의 사회상에 대한 역사적 시나리오적 접근', 탈성장의 사회상에 대한 역사적 시나리오적 접근. <https://ecosophialab.com/탈성장의-사회상에-대한-역사적-시나리오적-접근>

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고, 좋은 경우에도 ‘도덕적 가치’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이런 수용은 탈성장에 대한 명시적 비난이나 논쟁보다 더 나쁠 수 있다.

탈성장은 ‘탈성장 커뮤니티’, 즉 주로 유럽과 중남미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론가와 활동가들의 공동체에서 전개되는 논의를 통해 내용을 갖추고 있다. 탈성장 커뮤니티 바깥의 대다수 이들에게 탈성장은 ‘간디의 물레’가 주는 이미지 이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탈성장 이론가들은 탈성장을 보다 명료하게 또는 입체적으로 정의하려 노력하고 있다.

개념으로서 탈성장은 주로 GDP 향상을 지표로 하는 경제 성장을 상대화하고 다른 질적 지표들을 주류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윤을 위한 생산, 파괴, 폐기, 착취를 줄이고 지구 행성적 한계 내에서 삶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기획과 연대를 보장할 경제와 정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이슨 히켈은 이를 위해 △계획된 진부화 끝내기, △광고 줄이기, △소유권 대신 이용권 보장, △식품 폐기 없애기, △생태계 파괴하는 산업 규모 줄이기, △공공재 탈상품화와 커먼즈 확장, △부채 탕감과 급진적 풍요, △새로운 화폐 구조, △민주주의의 힘, △정신적 탈식민화와 생태주의 인식에 기반한 두 번째 과학혁명, △포스트 자본주의의 새로운 윤리학을 대안으로 제시한다.<sup>8</sup>

이런 제안은 따지고 보면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생협운동, 생명운동, 사회적경제운동들이 제안하고 실험해 온 것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안과 운동에,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운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와 서사로 엮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탈성장 대안이 단지 규범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나리오가 되어, 주연과 조연 배우들이 지문과 대사를 갖고 연기하며 연출자가 1막과 2막을 지휘하는 한 편, 아니

---

8) 제이슨 히켈, 김현우 민정희 역. (2021) 『적을수록 풍요롭다』 창비.

수많은 편의 드라마로 제시된다면 어떨까? 다행히도 그런 시도들이 시나브로 늘 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에릭 홀트하우스의 논의를 보자.<sup>9</sup> 그의 책의 부제는 온난화 시대에 가능한 것에 대한 급진적 비전을 제시한다. 그는 1부에서 ‘지속적 비상사태’를 묘사하고 2부에서는 2020-30년 사이에 극적인 에너지와 경제 전환에 성공을 거두고 2030-40년에 획기적 관리가 진행되며, 2040-50년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영성이 지배적인 모습이 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무작위로 선발된 100명의 사람들이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그들 각자가 원하는 2050년의 모습을 통해 하나의 희망적인 비전을 만들어 내고, 모든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그는 에너지의 100% 무탄소 전환, 모든 가스와 전기회사의 국유화, 시골 지역과 재생농업 투자, 포괄적인 도시 재설계 법안, 주4일제 근무, 보편적 서비스 보장 등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2050년까지 완전한 순환 경제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원주민의 주권 인정과 기후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영구기금 설립을 요구하고, 비용 마련을 위해 억만장자에게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그는 정치 체제가 바뀌고 새로운 사회계약이 실현되고 그런 뉴딜의 글로벌화가 진행된다고 한다.

2부에 서술되는 획기적인 관리를 설명하며 저자는 이런 변화는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모델은 지구 급변 시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yworth)의 ‘도넛 경제학’<sup>10</sup>과 순환 경제 이론<sup>11</sup>을 언급한 후, 탈성장 경제로의 전환이 어떤 ‘느낌’일지를 묻는다. 왜냐하면 기후 재앙의 악화 속에서 모든 사람을

9) 에릭 홀트하우스 신봉아 역. (2021) 『미래의 지구』 교유서가.

10) (편집자 주) 경제학의 목표를 성장이 아니라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사회적 기초 이상의 안정을 누리는 공간에 인류가 머무르게 하는 것에 두고, 그 수단으로 공평한 자원 분배, 욕망 제어, 기술 혁신, 효과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이론

11) (편집자 주) 폐기물과 오염 저감 계획, 제품과 원료 재사용, 재생가능한 원료와 에너지 이용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순환 경제를 주장하는 이론

돌보는 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시스템보다 훨씬 매력적인 대안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과 여행은 지금보다 수고롭지만 더 즐거운 일이 된다. 지구공학의 적용을 심각하게 논의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남긴 교훈은 사회운동이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광범한 탈탄소화를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지구를 돌보는 일은 새로운 (오래된) 영성이라고 말한다. 그의 내러티브는 다른 미래에 대해 상상 훈련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추상적인 데이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북극곰과 기후난민의 사진이 사람들을 기후행동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주장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폭로와 제안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동기와 감정이 수반된 시나리오 또는 내러티브로 엮일 때 힘을 갖는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드로다운(Project Drawdown)’을 이끈 환경경제학자 폴 호컨(Paul Hawken)이 시도하는 것도 내러티브 작업의 일환이다. 그는 『한 세대 안에 기후위기 끝내기』에서 드로다운, 즉 감축과 회복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한다.<sup>12</sup> 2017년에 펴낸 『플랜 드로다운』이 100가지 탄소 감축 솔루션에 대한 수학적 평가와 설명이었다면, 이 책은 그런 솔루션들을 내러티브로 엮은 것이다. 해양, 숲, 야생화, 토양, 사람, 도시, 식량, 에너지, 산업, 행동과 연결 등 10개 범주로 나눈 글의 제목을 보면 내러티브의 집합적 이미지가 떠오른다. △방목지 생태학, △꽃가루 매개자들의 재야생화, △개개비의 울음소리, △숲이 농장이다, △깨끗한 조리용 가열 기구, △여자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구를 복원시키는 친절한 행동들, △도시에서의 이동성,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기, △모든 것을 먹기 등등. 각 솔루션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통해 풀어 낸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

---

12) 폴 호컨, 박우정 역. (2022) 『한 세대 안에 기후위기 끝내기』 글항아리.



는 미완결 목록인 ‘펀치 리스트(Punch List)’를 만들고 서로 연결하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탈성장이 미래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를 말하지 않으면, 루저나 별난 취향을 가진 게토가 하는 주장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탈성장은 도덕률이 아니며 경제 이론인 것만도 아니다. 탈성장은 규범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하다. 미래를 그리는 시나리오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야 한다. 아무리 거칠고 소박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그려 보고 말을 배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잘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하게 올바른 시나리오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논쟁을 일으키는 크고 작은 탈성장 시나리오를 각자 그리고 집단적으로 쓰기 시작해야 한다.

글로벌 그린 뉴딜을 제안했던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최근작 『회복력의 시대』에서 재야생화되는 지구에서 생존을 다시 상상하자면서, 효율성과 성장을 최선이자 정상이라고 간주한 현대 과학과 경제학의 전제를 바꾸는 전환을, 최근 정치와 운동에서 엿볼 수 있다며 변화의 실마리와 연결했다.<sup>13</sup> 아르투로 에스코바르(Arturo Escobar)는 『플루리버스』에서 자치와 공동성의 세계를 설계하는 자원으로서 탈성장을 다룬다.<sup>14</sup> 탈성장 시나리오와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운동, 발견되고 재발견된 이론과 운동 자원은 의외로 많아 보인다.

### 단절적·틈새적·공생적 변혁 전략

하지만 문제는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모아 놓은 것이 곧 탈성장 또는 탈성장의 운동 전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탈성장운동에 의한, 탈성장 운동을 위한 전략과 질문이 탈성장운동 내부에서 부족했다. 이 점은 2018년 스웨덴 말뫼에서 열린

13) 제러미 리프킨, 안진환 역. (2022) 『회복력 시대- 재야생화되는 지구에서 생존을 다시 상상하다』 민음사.

14) 아르투로 에스코바르, 박정원 엄경용 역. (2022) 『플루리버스』 알렘.



탈성장 회의에서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탈성장 연구자들은 탈성장 커뮤니티의 지배적이고 암묵적인 전략 접근 방식, 즉 당시 저자들이 ‘전략적 비결정론(strategic indeterminism)’이라고 설명했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degrowth.info는 탈성장과 전략에 대한 10부작 시리즈를 신기 시작했고, 오늘날 비엔나 탈성장 그룹(Degrowth Vienna)으로 알려진 젊은 활동가와 학자들은 사회생태적 변혁을 위한 전략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첫 번째 탈성장 회의를 조직했다. 비엔나 탈성장 회의 조직팀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했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4,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대화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잠정적 결론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sup>15</sup>

우선 탈성장과 전략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성장 사고에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른 운동들과 위계적 관계를 가지는 전략 그룹이 형성되면서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 어려워지고, 결국 건강한 피드백이나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다. 이들은 ‘전략’이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것(thought construct)으로 본다. 이것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행위자들이 원하는 최종 상태를 향해 체계적으로 변화하려는 의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며, 현상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최종 상태의 비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연한 마음지도(flexible mental map)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는 홀트하우스가 말한 상상 훈련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또한 이들은 조직화 자체가 전략의 일부라는 점을 환기한다. 사회생태적 변혁은 다양한 지식과 실천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 자신이 탈성장 지지자나 진보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

15) Barlow, Nathan et al. 2022. *Degrowth and Strategy: how to bring about social-ecological transformation*. Mayfly Books.

비엔나 탈성장 그룹은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와 했던 가상적 대화를 활용하여 변혁의 상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라이트는 자본주의를 ‘길들이기’, ‘분쇄하기’, ‘탈출하기’, ‘잠식하기’ 등의 경로를 제안하고, 단절적, 틈새적, 공생적 변혁 방식이 모두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보았다. 라이트에게 이러한 변혁 방식은 각각 혁명적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및 사회민주주의적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는 게임의 은유를 사용하여 공생적 변혁을 게임의 규칙 변경에 연결하고, 틈새적 변혁을 게임의 특정 동작에 연결하고, 단절적 변혁을 게임 자체 변경에 연결했다. 이 아이디어를 탈성장과 연결하면 현재 여러 수준과 방식으로 펼쳐지는 기후행동들이 전략적 캔버스 안에 배치된다.

#### 탈성장을 위한 전략적 캔버스

| <div>전략적 논리</div> <div>변혁의 모드</div>                                                   | 해악 줄이기                                         | 구조 넘어서기                                                       |
|---------------------------------------------------------------------------------------|------------------------------------------------|---------------------------------------------------------------|
| <p>틈새적 변혁: 자본주의 사회의 주변부에, 일반적으로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 외부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p>  | <p>저항하기<br/>예) 기후정의 시위</p>                     | <p>탈출하기/ 대안 건설<br/>예) 정치적 개입 없는 광범위한 생태마을 운영/ 타인과 네트워크 구축</p> |
| <p>공생적 변혁: 궁극적으로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 형태를 바꾸고 현재 체제 안에서 대중적·사회적 권력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 <p>길들이기<br/>예) 국가 CO2 배출량의 절대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책</p> | <p>해체하기<br/>예) 장기적으로 대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정책</p>                   |
| <p>단절적 변혁: 기존 제도 및 사회 구조와 첨예하게 대결하거나 단절하기를 추구한다(단기로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음).</p>           | <p>멈추기<br/>예) 불복종 행동</p>                       | <p>타격하기<br/>예) 노동자의 공장 점거</p>                                 |

라이트의 변혁 유형 중에 ‘틈새적 변혁’은 탈성장 운동으로서 중요하며 그 기초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탈성장은 자본주의 및 성장 중심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과 관련 있다. 또 직접 민주주의적인 상향식 대안을 구축하는 것은 탈성장 정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다. 틈새 행위자들이 구현하는 대안은 경제의 주변부에 있으며 종종 확장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공생적 변혁’이 중요하다. 원하는 원하지 않은 대안 공간을 확장하고, 생태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로운 활동을 제한하며, 사회 제도를 형성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탈성장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단절적 변혁’은 탈성장에서 일반적인 방식이 되기는 어려운 일시적이고 소규모 사례들인 것이 현실이다. 탄광 점거와 같은 불복종 행위는 다른 형태의 행동에 힘을 부여하고 채굴 자본주의의 리듬을 교란함으로써 저항을 넘어선다. 단절이 발생하는 다양한 규모를 파악하고 세 가지 변혁 모드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이 전략적 캔버스 안에서 자기의 지형을 식별하고 적합한 전략을 모색하면서, 목표와 관련해 자신의 행동을 자리매김하며 동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탈성장 전략과 쟁점

비엔나 그룹은 탈성장 전략 논의에서 몇 가지 이론적 쟁점을 제기한다. 하나는 탈성장은 전략인가, 목표인가, 또는 특정한 질인가 하는 문제다. 성장과 관련하여 전략이 사용되는 방식은 종종 다음의 이해 중 하나를 반영한다. (1) 탈성장 자체가 전략이라는, 예를 들어 “생태사회주의가 지평선이고 탈성장이 그로 향하는 길이다”와 같은 언명이다. (2) 탈성장은 구체적인 유토피아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커먼닝이나 시민 불복종 등이 이를 이루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3) 탈성장은 전략의 한 특질로 제시되며, ‘탈성장 전략으로서 슬로우 시티 접근’ 등과 같은 표현으로 등장한다. 탈성장 커뮤니티와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주장은 탈성장 전략(목표로서)이 탈성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 즉 탈성장 미래를 위한 탈성장 전략(2와 3의

결합)이라는 이해다.

탈성장이 그 자체로 사회적 운동인지, 운동에 대한 해석적 틀인지, 탈성장 스펙트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토론거리다. 이에 대해 비엔나 그룹은 현존하는 운동의 의미를 충분히 고양하고 연결하면서 실용적 또는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회운동과 생태운동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에서 탈성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탈세계화 또는 기후정의운동에서 커먼즈, 부엔 비비르(Buen Vivir)<sup>16</sup>, 식량 주권, 비영리 협동조합과 같은 운동 및 대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가 탈성장 기획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대안의 모자이크 내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 탈성장 접근이지만 특히 돌봄 혁명, 자유 소프트웨어, 기본소득 보장 또는 전환 도시, 이 네 가지 전략이 탈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의 쟁점은 탈성장 전략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탈성장 전략은 다양한 종류의 ‘유기적 지식인’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다양한 저항과 투쟁에 참여하는 하위 대안 그룹의 실천적 지식의 조합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관한 논의는 탈성장 전략에 대한 네 가지 전략적 함의가 있다. 첫째, 국가가 아닌 (특정 영역) 시민사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탈성장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탈성장운동의 중심 무대로 국가를 포함하라는 요청은, 국가 관료 집단이 시민사회운동을 포섭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 외부 운동과 내부 운동의 연결이 약화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성장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넓히려면 활동가, 연구자, 시민 간의 토론의 장과 같은 대안 공간을

---

16) (편집자 주)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에서 유래했으며, 최근 헌법에 명기된 단어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좋은 삶’이라는 뜻

통해 생태사회 정책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살펴볼 마지막 쟁점은 ‘체제 전환’의 유력한 대안 또는 기획으로서 탈 성장과 생태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생태사회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로 점차 탈성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마이클 로이(Michael Roy)의 제안을 참고할 만하다. 그는 최근 요르고스 칼리스(Giorgos Kallis) 등 탈성장 이론가들과 함께 작성한 테제를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먼슬리 리뷰』에 실었다. 그는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는 생태 스펙트럼의 급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운동이자 제안이며, 두 조류 사이에 상호 존중하고 수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탈성장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이 사회주의자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며, 생태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모두 탈 성장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동의하는 영역을 매핑하고 생태 사회주의적 탈성장에 대한 주요 주장 중 일부를 제시할 수 있다.<sup>17</sup>

테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는 성장 없이 존재할 수 없다. (2) 이 왜곡되고 파괴적인 힘에 대한 진정한 모든 대안은 급진적이어야 한다. (3) 생태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과 소비 감소가 필수 불가결하다. 가장 유용한 활동조차도 지구가 한계가 있음을 존중하며 펼쳐져야 한다. (4) 소련의 생산주의적 사회주의는 막다른 길이었다. 기업이나 주류 녹색 정당들이 옹호하는 ‘녹색’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5) 북반구가 탈성장 과정에서 더 큰 부분을 맡아야 한다. 동시에 남반구가 북반구의 ‘발전’이라는 생산주의적이고 파괴적인 모델을 모방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은 또한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한 기존 소비 모델의 변형을 포함한다.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지지하며 생산주의와 소비주의를 깨고 사회적·정치적·오

---

17) Löwy, Michael, Bengi Akbulut, Sabrina Fernandes and Giorgos Kallis. 2022. "For an Ecosocialist Degrowth". *Monthly Review*. April. 2022.

락적·예술적인, 재미나고 에로틱한 활동에 더 많은 자유 시간을 할애하는 새로운 문명을 지향한다. (7)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은 화석 과두 정치와 정치·경제적 권력을 통제하는 지배 계급과 대결해야만 쟁취할 수 있다. 이 투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는 노동 계급의 정의를 사회생태학적 재생산을 수행하는 사람들까지로, 즉 현재 사회생태적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세력인 청년과 여성, 농민과 원주민까지로 확장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기후정의운동, 생명운동, 사회주의운동들은 아마도 이 테제들 대부분에 동의할 것이나, (3), (6), (7)의 테제와 관련해서는 이견과 논쟁 지점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부터 진지한 토론을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 **결론: 탈성장 논의와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기후위기가 요청하는 체제 전환을, 현실적인 논의와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자원들이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의 제안들 속에 유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로 레닌주의 변혁 모델(이미지)에 갇힌 한국 사회운동은 탈성장론과 생태사회주의의 결합 및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체제 전환이라는 구호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적극적 현실 정치와 경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 논의는 ‘참여적 계획 경제’를 통해 유용하게 결합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 체제 전환의 현 실태로서 한국의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경제 계획(거시적·지역적·부문적 수준의)을 작성하고 경합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수단이 되는 급진적인 계획 경제 청사진을 만든다면, 이는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뼈와 살이 될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성장을 위한 성장’을 넘어서는 체제와 사회는 먼 미래의 과제, 즉 노동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국유화한 이후의 과제가 아니라, 당장 여러 규모와 방식으로 현실화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One(some) of 운동

들’, ‘one(some) of 주체들’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기존의 운동들(생협부터 노동자 대안 생산까지 이르는)과 접속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깃발을 꽂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탈성장론과 운동에도 남은 과제가 많다. 사회적 평등을 전략에 내재화하고 실천으로 풍부히 만들어야 하고,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으로 새로이 구하고, 핵심 실천(변혁) 영역에는 사례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고 운동을 연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탈성장에 최적화된 몸과 마음 만들기

신승철(생태적지혜연구소)

---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이사장,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동아대 전임연구원, 녹색당 정책자문 등을 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기후 전환사회』, 『정동의 재발견』, 『지구살림, 철학에게 길을 묻다』 등이 있다.

✉ redshand@naver.com



### 들어가며 : 탈성장을 해낼 사람 만들기: 주체성 생산의 과제

탈성장(De-growth)에 대한 발제문을 읽다 보면,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마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적인 어젠다(agenda)에 따라 근대적인 책임 주체(subject)가 미리 주어져 있다는 생각까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탈성장과 관련된 주체성 생산(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이라는 과제를 배제한 채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제도 생산 등을 언급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특히 개인적인 주체성이 아니라 집단적 배치에 따르는 주체성과 관련해서는 더욱 주체성 생산이라는 과제는 직접적인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은 분명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탄소화라는 기술주의적 해법으로는 불충분하며, 물질발자국<sup>1)</sup>을 1/10로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탈성장 자체가 질서 있는 후퇴와 수축 경제로 구체적인 이행기 전략을 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꿈으로만 간주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질발자국 축소는 소비와 생산의 감축을 의미하며, 욕망의 미시정치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을 전제로 한 수축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성장 내핍 상황에 대한 완충 영역으로, 기후정의 맥락에 대한 합의나 미래 세대와 현존 세대의 삶이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전환 프로그램으로 정의로운 전환 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탈성장 제도를 다시 얘기하는 것 역시도 ‘그 일을 해낼

1) (편집자 주) 물질발자국은 탄소배출 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 에너지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저자는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기술적으로 탈탄소화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과 소비의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사람 만들기'로서의 재특이화 과정, 다시 말해 주체성 생산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성장주의 시대의 주체성 생산 전략을 되짚어 보면서, 이와 구별되는 탈성장의 주체성 생산 전략을 상상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성장주의에서의 주체성 생산 전략은 분명 성공주의, 승리주의, 자기계발, 속도, 효율성, 공리주의 등을 통해서 달성되어 왔다. 성장주의의 주체성 생산의 판은 지극히 근대적인 주인공 담론에 따라 무대와 배역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동시에 실험실 유형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공주의 중심의 입시 제도는 학력 차별에 저항하는 '투명가방끈운동'<sup>2)</sup>의 반격으로 주춤했으며, 승리주의 중심의 스포츠는 일본 월드컵 때 한국 선수들의 승리와 패배와 무관하게 경기를 즐겼던 패자의 품격으로 무력화되었다. 자기계발 담론 역시도 자영업자와 같은 과도한 자기 착취 유형의 삶에 반대하여 연대와 나눔의 거대한 사회적 경제의 물결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속도에서는 패스트푸드에 맞선 슬로푸드 운동이, 효율성에서는 하나의 효율적인 모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탄력적인 모델에 따르는 사회생태운동이,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기치로 한 소수에 대한 희생에서, 소수자 되기를 통한 공동체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탈성장에 최적화된 몸과 마음 만들기: 탈성장 인간형

여기서 문제는 탈성장 전환사회에 최적화된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종의 새로운 인간형과 같은 주체성 생산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성장 전환사회는 돌봄모듈의 강렬한 상호작용이나 커먼즈 기반 경제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지점은 자원으로서의 사물, 생명, 자연 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뒤따르던 성장주의 시대의

---

2) (편집자 주) 대학 입시 거부로 시작한 학력·학벌 차별 거부 운동

정동 경제가 무력화된다는 점에 있다. 자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축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등의 완충제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활력의 원천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정동 경제와 새로운 인간형을 상상해야 한다. 바로 자본주의 외부성과 접속하고 있는 예술가적 인간형이나, 활력의 자기 생산 노하우나 암묵지를 갖고 있는 활동가적 인간형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자원이 있고, 그 다음 활력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자원이 뒤따르는 것이 탈성장 전환사회의 정동 경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활동가 유형의 인간형은 탈성장 전환사회에 최적화된 몸과 마음 만들기의 정체이기도 하다. 활동가들은 소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활력의 순환과 보존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활력의 자기 생산을 위한 여러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동(affect)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그중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의 『분열분석적 지도제작』(1992, 미출간)에서 ‘기호의 반복이 활력과 에너지 발생으로 나타난다’는 논점이다. 이는 무의미한 주문(呪文)을 반복할 때 나타나는 주력(呪力)과 같은 영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쉽게 생각해 보면 “짜증나”를 여러 번 반복하면 짜증 에너지가 생기고, “사랑해”를 여러 번 반복하면 사랑 에너지가 생긴다는 구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기호는 단지 언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냄새, 색채, 음향, 몸짓, 맛, 이미지 등의 비기표적 기호계도 해당된다. 커피 향을 반복해서 접하면 카페를 가고 싶은 욕망과 활력을 만든다. 동시에 이러한 에너지와 활력으로서 사랑, 욕망, 정동 등이 반복되면 실물적인 사물이 된다는 것은 증여와 호혜의 선물(Gift)이 갖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결국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호의 반복 → 활력’으로 향하는 1차적 특이점과 ‘활력의 반복 → 사물’로 향하는 2차적 특이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활력 이후에 자원이 뒤따르는 탈성장 정동 경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탈성장의 투 트랙: 돌봄모듈과 커먼즈 기반 경제

탈성장의 강렬한 정동과 활력의 상호작용으로서 돌봄모듈을 살펴보자. 돌봄모듈은 2~3인 단위의 소규모 조직이 강렬한 상호작용 과정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남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돌봄모듈은 의존과 동일시의 사랑이라는 밀접한 관계만이 아니라, 협동과 견제,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어우러지는 우정이라는 거리 조절의 관계 속에서도 가능하다. 더욱이 국지적이고 지엽적인 근접거리 돌봄모듈은 자신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인 ‘연대’(solidarity)라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탈물질화 된 이야기들과 공통개념 등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연대는 다른 종이나 기후난민, 제3세계 민중 등에 대한 사랑으로 향할 수 있다.

또한 웨어링이라는 공동 이용 플랫폼이 아니라, 커머닝으로서의 공동소유, 공동 관리의 커먼즈 기반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탈성장의 특징이다. 탈성장은 커먼즈, 다시 말해서 공유지, 공동재, 공유자산 속에서 싹트는 관계 기반의 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도시사회에서 관계없는 사람의 정보와 지식을 전해 듣고, 관계없는 사람과 거래하고, 관계없는 사람과 벽을 맞대고 자는 등의 삶은, 커먼즈와 같이 공동 규칙을 갖고 있는 관계 기반의 경제 활동에 둔감하게 만든다. 그러나 탈성장 전환사회는 보다 많은 규칙과 약속을 깨알같이 만들어 내는 생태 시민성과 공동체성의 길항 지점인 커먼즈에서 발아하고 창궐할 것이다.

## 나오며 : 왜 탈성장에서 도덕주의/영성주의를 배제하는가?

탈성장에서 도덕주의/영성주의를 배격하자는 부분은 논쟁의 여지를 갖고 있다. 물질발자국의 실질적인 감축과 수축 과정에서 탈물질화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가? 이러한 탈물질화는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으로 비화될 수 있지만, 사실상 사물 기반 활력에서 비물질적인 기호 기반 활력으로 이행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는가 말이다. 사실상 물질발자국의 실질적인 감축을 가능케 하는 자발적 가난에 도달한 인

류의 경험은 영성주의/도덕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주지해 봐야 할 것이다. 탈성장에 있어 블랙박스화<sup>3</sup> 되어 있는 마음 생태에서의 복잡한 심리 역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귀결되는 수행성은 탈성장으로 향하는 행위 양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결국 도덕주의/영성주의 기반 탈물질화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수축과 자발적 가난에 이르는 심리 역동이나 공동체의 미시정치에 대한 사례는 2010년도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카 셰어링 과정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 과정에 나타난 바 있다. 다시 말해 도덕주의/영성주의가 신비주의가 아니라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간디는 평생 가게부를 썼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물을 샀을 때 함께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탈성장 전환사회를 추구하는 활동가들은 모두 간디의 후예들이다. 간디만큼이나 영성적으로 깨어 있으며, 동시에 마음의 흐름과 상호작용,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탈성장에 있어서 생태영성의 첨단점으로 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간디의 후예들인 탈성장 대안세력의 색다른 움직임에 주목해 보게 된다.

---

3) 밖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

# 체제 전환, 탈성장, 생명운동을 연결하기

홍덕화(충북대학교)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일하며 에너지전환을 주춧돌 삼아 '전환'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체제 전환이 던지는 질문들을 곱씹으며 전환 정치와 탈성장 연구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 주요 연구로 '커먼즈로 전환을 상상하기', '전환 정치의 이정표 그리기: 생태적 현대화와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의 분기점과 교차점', 『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 기술, 제도, 사회운동의 공동구성』 등이 있다.

✉ deokhwa.hong@gmail.com

### 모호한 경계 지대에서 탈성장 체제 확장할 조직화가 과제

기후위기가 가속화하고 기후정의운동이 확산하면서 체제 전환(system change), 나아가 탈성장이 우회하기 힘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탈성장에 대한 환호와 냉소가 여전히 공존하지만 관련 논의가 늘면서 탈성장에 대한 오해는 줄고 있는 듯하다. 대신 탈성장이 ‘관심 있는 소수의 미래에 대한 좋은 상상’을 넘어서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래 지향으로서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탈성장을 현실 속에 뿌리내리게 할 실천, 방법, 전략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에서 탈성장은 아직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기보다는 담론으로 떠돌고 있다.

다만 탈성장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분명해지고 있다. 탈성장은 성장의 한계를 생물리적 한계에서 사회적 한계, 자기 절제(self-limitation)로 확장한다. 탈성장은 기술낙관주의와 녹색성장, 추출주의를 비판하며 (선발 산업국가에서의) 물질흐름(throughput)의 축소와 제국적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적 한계와 자기 절제는 개인의 윤리적 실천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잉여 사용과 필요 충족의 방식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윤리 형성, 대안적인 삶의 양식 창출로 이어진다. 탈성장에서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실현하는 예시적 실천이 강조되는 이유다(prefigurative nowtopia, concrete utopia 등). 각양각색의 운동이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는 만큼 탈성장을 사회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대안적 움직임들의 모자이크로 묘사하는 일도 잦은 듯하다.

모자이크 이미지는 탈성장의 장점과 함께 난점을 보여준다. 이질적인 흐름의 교차점에 탈성장이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탈성장 안에는 공통점만큼 차이점이 많다. 탈성장으로 한발 더 내딛을 때마다 정치적 주체, 정치적 조직화, 이행 전략 등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하다. 자본주의나 (국민)국가에 대한 시각 차이를 예

둘러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의 교차점까지 와도 곳곳에서 입장이 엇갈린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답을 찾으며 탈성장의 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발표에 함축되어 있듯이, 물질흐름의 축소와 재분배 정치를 결합하는 것, 좋은 삶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면서 생활양식과 소비양식을 전환하는 것,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을 아우를 수 있는 계급 형성의 전략을 찾는 것 등이 우선적인 과제일 듯싶다. 이는 레닌주의 변혁 모델을 성찰하는 것만큼 환경·생명운동의 공백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의 환경·생명운동에서 자본주의 비판은 선언적이거나 부차적인 경우가 많았던 만큼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적 비판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다양하게 확산하는 것을 긍정하되 이를 연결해주는 공통의 기반을 다질 때 하나의 모자이크가 만들어질 것이다.

탈성장을 이념적,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운동 레퍼토리를 확장,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주의·성장주의·소비주의 비판, 대안적 경제 모색, 지구적·지역적 불평등 해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 탈성장론의 요소들은 20세기 후반 생태주의 사상·운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탈성장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것만큼 생태주의 운동의 좌초, 실패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진부할 수 있지만, 형성 중인 운동으로서 탈성장은 열린 태도로 실험하는 것만큼 좌초한 역사적 경험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모자이크 이미지는 탈성장을 이미 확립된 청사진이 아니라 잠재성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하는데, 역사성을 전제할 때 그 가능성을 한층 입체적으로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자이크 이미지는 하나의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시대 상황에 적절한 답변이지만 전략과 전망이 부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라이트의 다차원적 전략이 유용하지만 다양한 전략들의 공존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 기반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다차원적 전략의 모호한 경계 지대에서 탈성장을 확장할 수 있는 정치적 입장, 조직화 전략을 찾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레닌주의적 정당 모델로 회귀하거나 아나키스트적 자율성으로 도약하는 것이 곧바로 답을 제



시할 수 없다면, 경계 지대에서 탈성장 블록을 만드는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모자이크의 윤곽에 대한 합의가 창출될 때, 탈성장은 대항 헤게모니 블록의 씨앗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개별 운동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운동을 통해 체제 전환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체제 전환에 응답하는 움직임을 포스트 자본주의적 탈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하고 탈성장으로 엮힐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이유다. 기후정의운동이 다양한 사회운동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탈성장운동의 주체 형성, 연대 전략을 탐색하는 것 또한 기후운동을 중요한 매개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 탈성장운동 모자이크에서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2010년대 서구 환경운동의 변화에 주목하며 제도화된 환경운동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상황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녹색 자본주의가 부상하면서 제도화된 주류 환경운동은 현상 유지(business as usual)에 가까워졌다. 환경운동에서는 실용주의를 앞세워 시장주의적 접근법, 점진적 접근법을 정당화하거나 현실성을 내세워 정책 입안자들과 대결하기보다는 타협, 협력을 옹호하는 일이 늘었다. 환경 운동가에서 환경 사업가로 변신해 녹색 상품 시장의 활성화에서 길을 찾는 모습도 꽤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을 우선하는 접근법이 확산했지만 생태위기, 기후위기는 갈수록 악화했고, 제도화된 주류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중요한 분기점은 2008년 금융위기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지속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모순이 한층 가시화되면서 신자유주의는 헤게모니를 잃기 시작했다.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환경운동 내에서도 환경 불평등, 차별, 사회 정의를 강조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변화의 조짐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기후운동일 것이다. 점진주의를 비판하며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시민 불복종, 대중 동원이 곳곳으로 퍼졌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기후운동은 기후정의운동으로, 단일 이슈에서 체제 전환으로 확장해갔고, 제도화된 주류 환경운동의 영향력을 침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적 실험, 예시적 실천이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환경운동은 정치적 동원을 위한 미래 서사를 구축하면서 유토피아보다 재난·재앙으로 인한 붕괴·파국과 같은 서사를 더 자주 활용해왔다. 다만 환경운동의 비판주의는 조건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재난 서사는 미래의 재앙을 경고하는 것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재난,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한 상실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후재난이 뉴노멀이 된 만큼 쇠퇴, 상실, 혼란,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배경이다. 지역적 실험, 예시적 실천을 대중적 투쟁과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과 느리게 전개되는 지역적 실험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다만 두 갈래의 움직임 모두 제도화된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기후운동에서 기후정의, 체제 전환이 부상한 것은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이 가열될 것임을 알리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맥락이 다르고 시차가 있는 만큼 서구 환경운동에 비춰 한국의 환경운동을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도화된 주류 환경운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기존 환경운동의 제도화 전략이 지닌 한계는 한층 가시화되었다. 기후정의운동의 부상은 제도화된 환경운동의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라 할 수 있다. 다만, 다소 상투적인 표현을 빌자면, 낡은 것은 가고 있으나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듯하다. 어쩌면 낡은 것에 대한 진단도, 새것에 대한 전망도 빈약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한국 환경운동이 전략적, 조직적 측면에서 하나의 순환 주기를 끝내 가는 만큼 익

숙한 것을 반복할 게 아니라면 지난 궤적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비전을 찾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실체와 범위를 규정하기 어렵지만, 생명운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환경·생명운동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면, 체제 전환, 탈성장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발표에서 지적한 대로, 씨앗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운동으로 시야를 좁히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돌봄사회, 농(農) 등 탈성장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탈성장 프로젝트로 재구성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미 존재한다. 관건은 잠재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현재의 활동을 기후위기, 체제 전환, 탈성장에 부합하는 서사, 프로젝트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듯싶다. 예컨대, 지금까지의 활동은 탈성장이 추구하는 예시적 사회(prefigurative nowtopia)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탈성장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탈성장운동은 ‘나우토피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가시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 장소를 중시하는 데, 협동조합의 지역조직, 매장, 생산지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한편 체제 전환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사회주의에 탈성장이 쟁점으로 던져졌다면, 생명운동은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의 체계화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연장선에서 예시적 실천과 쟁투적 실천, 달리 말하면 회복력(resilience) 구축과 저항(resistance) 조직 사이의 관계와 이들의 결합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생명운동에서 탈성장 상상이 틈새적 변혁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다층적 전략으로 확장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협동조합과 복지국가의 관계 등 틈새 너머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현실적인 쟁점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생명운동의 정체성, 범위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생명운동의 지향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포괄하는지, 답하지 않고 걸음

을 내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탈성장운동에서 생명운동의 자리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흐릿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지만, 생명운동이 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탈성장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생명운동이 탈성장운동의 일부이자 그물망이 되려면, 분리된 움직임을 엮고 다른 흐름과 접속할 수 있도록 이념적, 조직적, 실천적 매개를 늘려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디까지 자신의 몫으로 할지는 더 고민해야 하겠지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탈성장운동의 모자이크 속에 생명운동이 또렷이 새겨질 수 있을 것이다.



# ‘생명운동과 탈성장’ 논의

정리: 김세진

## [질문1] 강민수 \_

김현우 선생이 내러티브를 강조하셨는데 반대편 내러티브도 있다. 기술주의나 사회혁신기술을 활용한 녹색자본주의와 ESG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 걸 포용해서 성장하자는 것도 하나의 반대편 내러티브인데, 그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 내러티브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 [질문2] 조미성 \_

전환을 하려면 실제로 전환의 블록, 헤게모니와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지지하고 동의하는 사람의 총량이 전환의 흐름을 만들 텐데, 대중은 탈성장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을 보인다. 탈성장이라고 하면 사람

들은 ‘실업’, ‘경제 침체’와 ‘내 삶의 불안’을 먼저 떠올린다. 아까 김현우 선생이 ‘긍정적인 활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긍정적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연결되는 이야기로, 한살림 같은 협동조합이 ‘탈성장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물품을 덜 만드는 거냐’고 오해하기도 한다. 거기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주류 경제와 자원 생산은 탈성장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시민사회나 대안 경제나 삶의 질과 같은 부분은 오히려 성숙하거나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차이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좋을까?

#### [답변] 김현우 \_

민정희 선생님과 같이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번역했는데 요즘 많이 읽어 주셔서 즐겁다. 얼마 전에 5쇄 들어갔다. 온라인 서점 판매 순위를 보면 이 책보다 두세 단계 위가 빌 게이츠와 마이클 셀런버거<sup>1)</sup>의 책이다. 이 역시 내러티브의 경합이다.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1972년에 발표되고, 1980년대에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녹색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생태적 근대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탈동조화<sup>2)</sup>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환경 단체와 연구자들도 탈동조화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몰두했다. 그런데 지구 행성적 한계는 더 이상 탈동조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두 가지를 들여다보자. 정말 잘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레타 툰베

1) (편집자 주) 마이클 셀런버거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의 저자다. 종말론적 환경운동을 비판하면서 기술적 해법과 원자력발전이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편집자 주)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탈동조화(decoupling)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리(Greta Thunberg)는 주저하지 않고 성장이란 신화고, 우리가 거짓말 같은 동화에 빠져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두렵고 막연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조미성 선생의 질문과 연결된다. 기발하고 유일한 방법은 없다. 기후행동이나 탈성장 인식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sup>3)</sup>를 만들어야 한다. 나 혼자가 아니고 『한살림선언』에도 있고, 프란시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에도 나왔던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하자.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의 주장처럼 이에 대해 이야기할 동료가 3.5% 정도 된다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말은 너무 멀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2030년까지 기후 재난과 탈성장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기후 시민과 활동가를 3.5% 만들자는 것은, 힘을 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 [질문] 조미성

홍덕화 선생은 ‘생명운동이 체제 전환을 생각한 것은 틈새 전략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한살림은 정치 집단이나 환경운동 단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 조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어떨 때는 한살림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걸 다할 수 없으니, 지금 한살림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외부에서 보셨을 때 탈성장과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한살림에 제안하실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

3) (편집자 주)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진입하는 급격한 전환점



## [답변] 홍덕화

한살림과 생명운동이 다르다고 하니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협동조합이나 생명운동은 틈새의 한정된 시야로 활동을 펼쳐 온 것 같다. 모든 활동을 다 하라는 게 아니다. 틈새 아닌 활동과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활동을 잘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통로를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이 정말 탈성장에서 이야기하는 실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 지역 소비자, 매장 등 물적 기반이 있다. 이 기반과 조직이 탈성장운동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을 다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가 탈성장운동의 매개가 될 것이다. 하나는 기존 활동을 탈성장의 맥락에서 평가하고 재구성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주요 매개는 기후정의운동이다. 이것은 동물권 같은 여러 운동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사회운동이 담지 못한 운동이 기후운동과 연결되고 그 과정에 탈성장운동이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 연결고리를 다양하게 확장해 가면서 탈성장운동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논의] 신승철

김현우 선생님은 탈성장의 서사 구조, 즉 내러티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래진행형으로 보여줘야 한다. 탈성장은 과거로 퇴행하는 게 아니다. 1970년대 수준으로 물질발자국이 1/10이 줄어들 거라는 말은, 그때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다. 미래의 어떤 현실을 두려움과 공포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내러티브)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도 친환경 물품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 형

성과 인식 같은,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물품에 넣어서 같이 팔아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나 정동 자본들이 판치는 시장 틈바구니에서 협동조합의 친환경 물품 판매만으로는 선도성과 혁신성이 떨어진다.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그런 이야기 구조를 확보하고 미래진행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논의] 김현우 \_

조금 덧붙이자면, 어떤 운동 영역은 틈새적 변혁운동에 가깝고 다른 운동은 공생적 변혁운동에 가까울 것이다. 틈새 운동을 하면서도 전체 그림과 캔버스를 의식하면서 ‘나는 틈새 전략으로서 이런 의미가 있어’, 또는 ‘다른 전략과 연결되고 공조할 수 있어’라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파편이 아니라 맥락으로 엮인다면, 바로 그것이 탈성장 모자이크의 이미지가 아닐까 한다.

#### [정리] 구도완 \_

생명운동이라는 문명전환운동과 협동조합이라는 어소시에이션(결사체)과 비즈니스(사업)의 결합체,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항상 갈등과 어그러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생명운동에는 체제 전환, 문명 전환이라는 거대한 비전과 전환의 기획이 있다. 지금 그 전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고 버렸다. 이때 협동조합이라는 비즈니스와 생명운동이라는 비전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이 자리다. 오늘 했던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다른 운동이나 협동조합과 대화하면서 가자. 에릭 올린 라이트가 말하는 하이브리드가 되든 모자이크가 되든, 아니면 김현우 선생이 이야기하는 탈성장이나 생태사회주의가 되든, 또는 경제민주주의가 되든, 방향을 찾기 위해 충분히 대화하면 좋겠다.



# 생명운동이 공통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조미성(모심과살림연구소)

기후변화 교육, 과학기술 시민성 등을 연구해 왔고 현재는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일하며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최근 글로는 '기후위기를 살아 내기: 함께, 즐겁게, 창조하며',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등이 있다.

✉jomiso@hansalim.or.kr

● 이 글은 필자 혼자 썼기보다, 2022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 찾기' 세미나와 생명운동포럼에서 나온 논의와 더불어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조언으로 함께 만들어진(공-생산된) 글이다. 깊고도 날카로운 도움말로 길을 잡아 주신 윤형근 님과 안새롬 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 들어가며 : 가슴 뛰는 언어를 찾고 싶다

우리는 어떤 말과 실천에 가슴이 뛰는가? 그 심장 뛰는 언어와 실천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언어가 적힌 하나의 깃발을 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단일하게 묶여 운동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여전히 누군가는 의미 있는 깃발을 쫓으면 다른 이들이 뒤따라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깃발을 쫓았는데 왜 따라오지 않느냐고 다그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가슴 뛰는 언어가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는다. 더이상 우리는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커먼즈(공통장) 활동가들은 운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이론들, 철학들을 한데 모으려고 한다. 이것은 과거 좌파운동에서 자주 보인, 가장 옳은 것으로 가정된 하나의 노선을 ‘정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를 배격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sup>1</sup> 생명생태 위기의 시대, 그래서 급속하고도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어떤 언어와 실천이 우리 각자의 가슴을 뛰게 할지, 서로 다르다면 그 다름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생태전환, 혹은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는 전략과 실천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주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그 한 방편으로 최근 전환운동 진영에서 활발하게 회자되며 또한 실험되고 있는 공통장운동에 주목하고, 공통장운동과 생명운동의 접점은 무엇이며, 생명운동이 공통장에서 배울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논의의 범위 : 한살림생명운동

초창기 생명담론을 이끌었던 『한살림선언』에 따르면, 생명운동은 “인간과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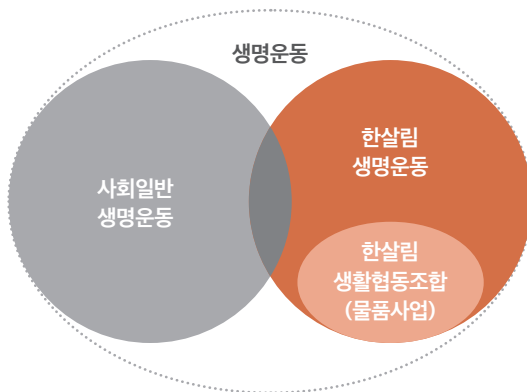
---

1) 정남영, (2017) '대안근대로의 이행과 커먼즈운동' 『오늘의 문예비평』 pp. 202-216.

의 생명을 소외·분열시키고 억압·파괴시키는 ‘죽임의 질서’인 산업문명 전반에  
대항하여 ‘생명을 총체적으로 살리는’ 사회운동’을 말한다.<sup>2</sup> 생명담론 선구자들  
에게 ‘크게 살리는’ 한살림운동과 생명운동은 동의어였다. 이들에 따르면, 한살림  
운동은 ①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 ②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 ③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 ④ 새로운 인식과 가치와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운동, ⑤ 생명  
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 ⑥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수양활동’, ⑦ 새로  
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활동이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생명운동은 말 그대로 생명력을 얻어 종교계 등  
을 중심으로 운동 진영에 퍼져 나갔다. 그중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은 생명운동을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현실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운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한국  
에서는 다수 생활협동조합들이 생태적 지향을 가지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40여 년이 흐르고 생명운동이 다양하게 확장·분화·변화하면서, 현재는 생명  
운동이 무엇을 지칭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논자마다 생명운  
동을 다른 범주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보다 명확한 공통의 이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체에 따라 생명운동을 구분해 보려 한다.

그림 1 생명운동의 주체별/영역별 구분



2)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꺼낸다』 그물코. 작은 따옴표는 필자 삽입.

먼저 전체 생명운동 진영에서 조직으로서 한살림이 주체가 되는 생명운동과 그 외 종교계 등 사회 일반의 생명운동을 구분하였다. 한살림운동은 다시 그 안에서 운동 영역과 사업 영역을 나누었다.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의 물품 사업은 한살림운동의 물적 기반이자 대안을 실험하고 있는 현실 경제 체제다. 원칙적으로는 한살림운동이 물품 사업을 통해 구현되고 사업에 운동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식에도 불구하고, 현실 시장경제 속에서 물품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운동성을 온전히 구현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이 있다. 이에 대한 성찰과 대안 도출이 절실하나, 이는 당위나 이상만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정교한 분석과 통찰이 필요하다. 이를 담기에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고 지면이 제한되어 향후 과제로 남겨 놓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한살림이 벌이고 있는 생명운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생활협동조합이 다 담아 내기 어려운 생명운동을 지금 이 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풍부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 생명의 연결성과 공생 : 생명의 존재 방식은 협동이다

잘 모르는 분들께 한살림운동을 간략하게 설명할 때, 편의상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이라고 표현한다.(물론 생명운동도 그 자체로 간단한 설명은 아니다) 그런데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은 나눌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생명운동은 근본적으로 협동운동을 포함한다. 생명담론을 처음 제시했던 김지하 시인의 말을 빌자면 ‘생명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지구와 우주의 전 생명계에 연결되어 생존하므로 자신과 함께 이웃과 자연생명을 파괴와 죽음, 즉 인위적 살해로부터 살려내야 하고, 또 그것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할할 수 없는 전체 속에 독특한 개별적인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는 우주적 전체 그물망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을 나는 생명의

패러다임이라고 부르지요.”<sup>3</sup>

생명운동의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사유는 생명의 그물에 대한 인식, 인간과 자연·우주의 유기적 연관이다.<sup>4</sup> 우주의 모든 것들이 생명의 그물 속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하고 공존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생명운동은 죽음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의 전환운동인데, 그 운동의 방식은 ‘연결’이다. 이 연결성은 단순한 협동을 넘어, 본질적으로 상호의존하고 깊이 연결돼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생명의 존재 방식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 그래서 결국 ‘죽임’에 이르게 만드는 모든 체제와 문화에 대한 저항이자, 재연결을 통해 ‘살리고자’ 하는 실천이다. 그래서 생명운동은 기존 사회 체제 내에서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는 운동이 아니라, 체제와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 자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모두 새롭게 창조해 내려는 문명전환운동인 것이다.<sup>5</sup>

개체 생명이 아닌, 연결되고 공생하는 생명에 대한 인식은 이제는 생물학, 생태학, 인문학, 사회학, 젠더 연구 등에서 새롭게 풍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일찍이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Lynn Margulis)는 ‘세포 내 공생가설’을 통해 진핵세포 생물들은 이종의 박테리아와 세균 등과 공생해 마치 키메라처럼 접합되며 함께 진화해 왔다고 주장했다.<sup>6</sup> 마굴리스의 주장은 그동안 자연계의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며 죽고 죽이면서 경쟁을 통해서만 ‘자연’의 선택을 받아 진화해 왔다는 신화가 굳건히 자리 잡은 생물학계에 돌맹이를 던졌다.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마굴리스의 공생가설을 생명이 ‘자기생

3) 다음을 약간 재구성하여 인용함; 김지하, (1996) 『생명과 자치』 솔. p. 55.

4) 윤형근, (2002) ‘한국 생명운동의 뿌리와 전통사상’, 최병두 외, 『녹색전망』 도요새. pp. 296-320.

5) 윤형근, (2002) 위의 글.

6) 린 마굴리스·도리언 세이건, 김영 역, (2016) 『생명이란 무엇인가』 리수.



산'(autopoiesis)을 중요한 특성으로 가진다는 마투라나·바렐라의 논의와 결합하여 더 확장하였다. 그이는 생명은 개체로 존재하거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공-생산'(sympoiesis)이라고 불렀다.<sup>7</sup> 여기서 공-생산은 주체A와 주체B가 협동하여 대상C(혹은 타자)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A는 B의 몸을 만들며 동시에 B는 A의 몸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다. 공-생산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공동체이며, 생명은 개체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도 공-생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도 '생태적 총체성' 개념에서, 생명이 개체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의존하며 종과 범주와 영역을 가로질러 재연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8</sup>

결국 한국의 생명담론이나 마굴리스나 해러웨이 등은 공통적으로 생명은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연결이고 협동이고 공생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존재'라는 말이 적합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생명은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고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생명운동은 그 안에 훨씬 넓은 담론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협동운동은 생명운동의 실천 방식 중 일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왜 지금 생명운동은?

지금의 한살림운동이 초기에 내세웠던 문명전환운동의 야심 찬 비전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살림은 급속한 확장기를 거치면서 조직이 거대해지며 관료화되고, 운동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9</sup> 또한 생명운동의 영역이 좁혀지면서 사회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간

7)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2021)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여기서 Sympoiesis는 '공-생산', '공동제작', '함께되기'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된다.

8)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2015) 『포스트휴먼』 아카넷.

9) 이소영, (2012) '생태담론과 생명운동의 정치적 함의', 『동양사회사상』 26: pp. 289-323.

과되거나 안빈낙도의 개인적 삶으로 오해되기도 했다.<sup>10</sup>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분석과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부족하고 거칠지만 몇 가지 원인을 논쟁거리로 제시해 본다.

### 1) 처음부터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거부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생명운동은 애초에 낭만적이었다. 낭만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크고 높은 이상은 있었지만 정책과 제도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우주적 비전과 미시적인 개인의 실천은 있었지만,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거의 없었다. 국가와 사회, 자본, 혹은 그것들 외부의 제3의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을 그려 내지 않았는데, 그 위에 그냥 협동조합이라는 옷을 입었다. 우주를 바꾸자는 엄청난 이상과,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비루한 현실,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물품 사업을 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였다. 한살림 살림꾼들은 가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한살림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건만 파는 것인가,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상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중간의 구체적 전략이 부재할 때, 자칫 과거의 이상은 현실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원리 원칙만을 따지며 현재의 살아 있는 인간들을 질타하는 교조주의로 왜곡될 수 있다.

### 2) 협동조합이라는 옷이 꼭 맞지는 않았다

한살림은 생명운동의 구체적 실현태이자 운동의 거점으로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것은 당시에든 최선이기보다는 현실의 선택지 중 그나마 가장 나은 차선이었다. 앞서 말했듯, 생명운동은 생협운동으로 치환하기 어렵고

---

10) 주요섭, (2002) '생명사상과 한국적 생태담론' 최병두 외., 『녹색전망』도요새. pp. 321-339.

생협운동이 다 담아 내지 못하는 훨씬 많은 것들을 품고 있다. 애초에 한살림운동이라는 목적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수단’으로 택한 것이 협동조합인데, 마치 협동조합이 원래 목적인 양 변질되기도 했다. 커다란 생명운동을 협동조합의 틀 속에 억지로 가두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운동 자체도 거시전략의 시대에서 미시전략의 시대로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변혁적 전망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는 흐름을 겪게 된다.<sup>11</sup> 협동조합운동이 품었던 가치나 이룩해 온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살림도 역시 변혁의 전망을 펼치기보다는 제도화와 보수화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운동은 협동‘조합’주의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되었다.

### 3)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제대로 품어 냈을까?

생명운동의 실천 방식을 핵심적으로 드러낸 단어는 ‘모심’과 ‘살림’이다. 생명담론이 단지 이론이나 영적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자연과 사람, 일과 노동, 세상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모심과 섬김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미물의 생명은 물론이고 인간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고통,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 위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의 삶과 생활문화, 사회적 관계를 협동과 공생의 문화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운동이 중산층 운동으로 대상이 축소되고,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노동자와 농민과 배고픈 젊은 세대에게 절실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는,<sup>12</sup> 실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

11) 신명호, (2021) ‘협동조합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관하여’ 『모심과살림』 18호.

12) 이소영, 위의 글.

약자를 돌보는 것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조악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서 개인의 영성을 강조할 때 자칫 보수화, 낭만화, 신비화, 개인화의 길을 가게 된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가?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도 혹시, 약간의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참여가 가능한 중산층 시민의 목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은가? 한살림은 유기농 먹거리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 조합원의 목소리만 가장 먼저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 4) 다양성과 유연성, 개방성 부족

한살림은 “협동을 ‘묶음’(bonding)이 아니라 ‘엮음’(bridging)으로 보았고, 엮음의 재료인 ‘밥’에 ‘생명’의 가치를 부여했다. 여기서 ‘묶음’은 동질적인 이들 간의 협업이고 ‘묶임’(band)을 지향해 ‘조합’을 낳는다면, ‘엮음’은 이질적인 이들 간의 ‘연대’로 ‘엮임’(network)을 지향해 ‘공생’을 낳는다.”<sup>13</sup> 즉 한살림운동은 협동‘조합’운동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협동운동을 하고자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충분히 다양하고 유연하며 열려 있을까? 생명은 유연하고 다양하다. 그런데 생명운동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

13) 한살림, (2017) 『한살림,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묻다- 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pp. 56-57.

## 모심과 살림의 공통장

### 1) 공통장은 무엇인가?

공통장(the commons)<sup>14</sup>을 ‘오래된 미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공통장은 새롭거나 특이한 관점이 아니다. 오히려 비근대적<sup>15</sup>이며 동시에 보편적인<sup>16</sup> 경제 양식이자 문화이고 사회적 관계다. 역사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서양의 산업화 이전 사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숲, 어장, 목장과 같은 ‘공유지(공동자원)’를 국가나 시장이 아닌 자율적 규칙에 기반하여 관리해 왔던 사례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생존과 생업을 공유지에 의탁하고 이로부터 혜택을 얻을 권리를 보장받았다. 공통장은 이러한 자원, 공동체, 규율, 관리 방식을 모두 아울러 일컫는 용어이며, 이는 오랫동안 민중의 삶에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뿌리 박힌 삶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정한 수준으로 취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 왔던 공유지들은 자본주의 종획(enclosure)과 축적 과정에서 빠르게 파괴되고 해체되거나 상품화되어 왔고, 최근 공통장운동이 재조명되며 부활하고 있다.

공통장은 담론이기보다 오랫동안 역사에서 실현되어 왔던 운동이기에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개념 짓거나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다양한 운동들을 범주화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론적 작업이 뒤따랐다. 그래서 공통장 논의는 자원 관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혹은 국가·시장·자본과의 관계를

---

14) The commons의 번역어는 ‘공동자원’, ‘공유지’, ‘공동재’, ‘공통재’ 등 다양한데 이 용어들이 ‘재화’와 ‘자연자원’으로 한정되거나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에 존재해 왔던 커먼즈의 역동성과 독특함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한국 연구자들은 번역하기보다 그냥 ‘커먼즈’로 사용한다. 그런데 원어의 함의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공통장’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대중적으로 소통 가능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천적 공감을 얻는 것이 한살림운동의 맥락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러 번역어 중 권범철(2019)이 제안한 ‘공통장’이 commons의 원래 의미를 상대적으로 잘 표현한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15) ‘비근대적’이라는 말은 ‘전근대적’이라는 용어에 함의된 ‘발전되지 못한’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거부하는 용어다. 근대적이지는 않으나 원시적이지도 않은 것을 의미한다. ‘비근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중철, (2020) ‘생명사상과 현대의 윤리’ 『녹색평론』 174호. 동시에 김환석(2022)도 라투어의 근대 비판을 ‘비근대주의’로 번역한 바 있다.[김환석, (2022)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과 한국의 사례’ 『과학기술학연구』 22: pp. 34-62.]

16) 보편적이라는 말도 적당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널리 퍼져 있었다는 의미이지, 모두 똑같은다는 의미가 아니다. Universal(하나로 일반화되지)하지 않고, pluriversal(복수 세계의), 혹은 지역화 되고 맥락화 된 보편의 의미다.

어떻게 설정하느냐, 사회구조에 대한 변혁적 비전을 얼마나 가지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sup>17)</sup>

흔히들 공통장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한다. “커머닝 없는 커먼즈는 없다”(라인보우)고 표현한다. 공통장은 공통재(common resources), 공동인(혹은 공동체, commoner), 공통화(commoning)를 모두 포함하며, 이 세 요소가 긴밀히 상호작용하여 구성되는 하나의 체계다.<sup>18)</sup> 한국 독자들에게는 ‘공통장’이라는 용어보다는 ‘공유지’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할 텐데, 이 공유지라는 번역어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커먼즈(공통장)를 마치 천연자원인 듯이 말하는 것은 최선의 경우에도 뜻을 오도하며 가장 나쁜 경우에는 위험하다. 커먼즈는 활동이며,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적 관계를 표현한다.”<sup>19)</sup> 더불어 자연자원이므로 공유지라는 용어는 공유하기, 행동하기, 평등의 함의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의미가 되어 버린다. 공통장은 사용자 공동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원이나 공간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실천(공통화)을 통해 재구성된다.<sup>20)</sup> 공통화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토대는 어떤 특정한 자연(자원)이 우리 모두의 것이며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깨달음이고 이것이 바로 공통장의 정수다.<sup>21)</sup> 결국 공통장이 공통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공동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고, 이 점에서 제도나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게 된다.

17) 이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안새롬, (2020) ‘전환담론으로서 커먼즈: 대기 커먼즈를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 연구 ECO』 24(1): pp. 333-370.

18) 맛시모 데 안젤리스, 권범철 역. (2019) 『역사의 시작』 갈무리.

19) 피터 라인보우, 정남영 역.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갈무리. p. 321.

20)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21) 줄리 리스타우, 박현주 역. (2013) ‘공유자가 되려면 월재스퍼 편저,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검독소. 기울임 체는 필자 삽입.

## 2) 왜 공통장운동에 주목하는가?

근래 대안 담론과 실천을 모색하는 한국의 논자들 사이에 공통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기후 생태운동 진영에서 공통장을 재해석하고 확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의 공통장 논의는 소규모 공동체의 지역 자원 관리를 넘어서 기후, 미세먼지, 지구 전체, 청년 세대, 지식, 디지털 플랫폼 등 규모와 주제의 영역을 넘나들며 확장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공통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지속불가능한 기후 생태 위기를 맞아 이 위기의 기저에 약탈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다는 분석과,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다른’ 시스템의 가능성을 공통장이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역사상 유토피아를 꿈꿔왔다. 늘 어느 한 켠에서 당대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왔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안적인 공간과 틈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지만 20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 그 상상들이 체제내화 되어 버렸다면, 약간 비어 버린 그 대안적 공간의 자리를, 한동안 잊었다 부활한 공통장이 다시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같다. 공통장운동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모델과 흡사해 보일 수 있으나, 조합 이기주의나 자본주의 내 공정시장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데 머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sup>22</sup> 협동조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버리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역할이 있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변할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의 언어로 포괄되지 않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공통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굳이 협동조합과 공통장의 관계를 상정하자면 포함 관계라고 생각한다. 공통장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다양한 공통장의 한 특정한 형태로 협동조합이 있는 것이다.

다수 운동가들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성미산마을의 예를 들자면, 그곳은 협

---

22) 이광석, (2020)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탈'로부터 읽기' 『문화과학』 101호, pp. 50-78.



동조합이라는 용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저항하며 대안을 만들고자 했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체제 안에서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려고 사용했던 일부 수단이 협동조합인 것이다. 그 관계망과 사람들의 활동은 협동조합이 아닌 공통장이라는 개념으로 더 매끄럽게 담긴다.

그 이유는 공통장이 제도나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통인(commoner)이라는 말은 원래 ‘평민, 일반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통장의 맥락에서 그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공통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통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통화 활동을 통해 공통장을 만들어 내고 구성하는 집합적 주체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유할 자원과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통화 실천을 통해 공통장을 만들어 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sup>23</sup>

‘공통인’ 관점의 미덕은 ‘시민’이나 ‘공동체’라는 용어가 포괄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지점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약점을 끌어안거나 보완하면서 때로는 가부장적 모습으로 권력관계나 위계적인 논리로 개인을 구속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기존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한편 ‘시민’은 정치적 단어로서 경제적 측면을 통합해 보기 어렵게 만든다. 마치 민주주의와 자발성이 경제 체제에서 시작된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거나, 경제적 관계를 외면하게 만든다. 시민이 경제적 맥락에 놓이면 ‘소비자’가 된다. 반면 공통장은 경제와 정치가 긴밀하게 결부된 공간이며, 시장과 이윤이 아닌 호혜와 적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경제를 이야기한다. 즉 공통장이라는 ‘경제적’ 공간과 관계망을 통해 공통인이라는 ‘정치적’ 주체가 형성된다.

공통장 논의와 생명담론이 전환 전략에서 인간 행위자가 차지하는 역할을 보

---

23) 브런치북, ‘소유보다 향유, 커먼즈 1화- 가진 것을 공유하고 공동의 것을 만들어 나눈다.’ <https://brunch.co.kr/@woolf/6/>



는 관점에는 유사성이 있다. 안젤리스(2019)는 혁명이든 정치 권력의 획득을 통한 개혁이든 이들은 정치 정당과 대중의 관계를 가르침-배움의 교화 관계로 상정하며, 대중을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로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비판한다. 반면 공통장은 정치적 기획을 폭넓게 보고 권력 장악보다는 대중의 자발성과 주체성, 일상을 중요시하는 기획이다. 즉 문제 해결의 뿌리를 대중의 생활양식으로 보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살림살이를 공동 생산하는 양식으로 극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sup>24</sup> 이는 생명담론이 문명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상정했던 생활문화운동, 협동적 생산 전략과 유사하다.

### 3) 모심과살림의 공통장

한살림을 협동조합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공통장운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다른 전환의 비전과 방향성을 띠며 다른 전환 전략을 세우게 한다. 공통장 관점이 생명운동의 실천에 주는 시사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공통장 관점은 보다 체제 전환적인 비전을 가지기 쉽게 한다. 물론 공통장이 이상향은 아니다. 여전히 인간 중심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장은 제도와 정책보다는 주체들의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체제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여지가 크다. 자본/국가와 협력하든 타협하든 대립하든, 공통장 패러다임은 현 시스템의 생산 관계와 소유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 상호 간, 인간과 자연 간에 착취가 아닌 공생과 협력의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협동조합이 제도화되거나 변혁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시스템에 내재된 사회 생태적 불평등이나 지배 관계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위계적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

---

24) 맛시모 데 안젤리스, (2019) 위의 책.

라고 본다. 생명운동 역시 불평등을 포착하는 날카로운 시선이나, 가장 약자를 포용하는 실천, 혹은 협동과 공생의 정치적 전략을 잃어버릴 때 전환의 비전을 잃어버리며 보수화되고 개인화 될 것이다.

둘째, 공통장 관점은 기후·생태위기에 보다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게 한다. 공통장 관점은 생태적 위기와 경제 시스템 위기, 인간(공동체)의 위기에 모두 주목하게 하고, 생태문제와 사회문제를 긴밀하게 결부된 시스템으로 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통장이 주로 자연을 매개로 한다는 점은 협동조합운동에 비해 생명운동과의 접점을 더 크게 만든다. 공통장 담론은 ‘이것(자연)이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자연)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묻는다. 즉 자연을 국가/시장/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을 자연이라는 체계의 한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로 본다. 공통장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시장 가치의 극대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욕구와 생태적 안정이다.<sup>25</sup> 공유지는 평민들이 생계와 생존을 의탁하는 기반이며, 공통인들은 장기적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충분함의 윤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자원을 보호하며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정도만 취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공통인은 생태적일 가능성이 높다. 공통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그들이 속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은 탈성장 담론 및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 4) 왜 청년들은 공통장에 매력을 느끼는가?

특히 실천적인 측면에서, 공통장은 여타 사회운동이론과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통장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운동임에도 최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 나는 왜 청년들이 공통장운동에 매력을 느끼는지 궁금했고 몇몇 지인들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25)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역.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

### 청년들은 왜 공통장운동에 끌리는가? (답변 요약)

“공동체는 좀 답답하고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커먼즈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점이 매력적이에요.”

“개인들이 자율적이면서도 개인주의를 넘어서 수 있어요.”

“제도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 없이, 누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저에게 커먼즈는 삶의 방식입니다. 공동체 감각이나 공유하는 방식, 문화라고 생각해요.”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뭔가 함께 만들어 낸다는 것에 끌리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연대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

공통장에 관심 있는, 내 주변의 청년들은 공통장이 가진 매력으로 ‘자유와 자율성’, ‘다양성’,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삶의 가능성’, ‘함께 만들어 내는 것’, ‘재미’ 등을 꼽았다.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공동체는 억압적이고 위계적이며 답답하다는 것이다. (잘되는) 공통장은 문턱이 낮아 언제든 들락날락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 나의 속도에 맞추어 활동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서로 나누는 것도 매력이다. 자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공통장운동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세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정서와 잘 들어맞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공통장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공통장운동의 현장에서 새로운 전환의 동력과 활력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공통장이 가지는 이 매력적인 부분을 생명운동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공통장의 활력을 새로운 시대의 문명전환운동의 비전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 건강한 공통장 만들기

### 1) 공통장의 부패와 왜곡, 흡수를 막기

공통장운동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 세계의 공통장은 부패하고 왜곡되기도 하며,<sup>26</sup> 자본에 흡수되어 협동의 기반을 약탈당하기도 한다.<sup>27</sup> 공통장이 부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가족·기업·민족인데,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체성과 동일성을 강요하기 때문이다.<sup>28</sup> 정체성이 동일성으로 둔갑하여 다양성을 억압하고 불평등에 눈감고 소수자를 차별하며 이방인을 배척하고 폐쇄적으로 변하는 순간, 공통장은 부패한다. 페데리치(Silvia Federici) 등(2020)에 따르면, ‘빗장 공통장’(gated commons)은 외부자의 이해 관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다. 이러한 곳은 기업처럼 운영되며 자원을 외부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빗장 공통장은 외부와 다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며 내적·계급적 분할을 심화할 수 있다.<sup>29</sup> 협동조합이 극단적으로 조합 이기주의에 빠진다면 부패한 공통장이 될 것이다. 만약 한살림이 물품을 구입할 경제력이 없는 외부인이나 비조합원을 배제하고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할 경우, 한살림이라는 공통장은 부패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폐쇄적인 빗장 공통장은 외부인을 배제함으로써 사유화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데, 이와 같은 위험성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장이 보유한 특정 자원이 사실은 ‘모두의 것’으로 ‘보편적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30</sup> 예를

---

26) 여기서 공통장의 ‘부패’나 ‘왜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 용법과는 다소 다르다. 부패와 왜곡에 대한 개괄적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부패”는 하트와 네그리(2014)에 등장하는 용어로, 공통장에 배제나 통제가 작동하여 ‘함께 사유하고 행동하는 공동의 힘이 감소하고 네트워크가 붕괴될 때’를 의미한다. ‘왜곡’은 안젤리스(2019)의 표현으로, ‘관료주의와 관리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다른 공통장과 신자유주의적으로 경쟁하는 공통장의 상태’를 의미한다.”[안새롬, (2020) 위의 글. 재인용]

27) 권범철, (2019)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창조도시 전략과 예술행동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3).

28) 네그리·하트(2014) 위의 책.

29) 실비아 페데리치·조지 카펜치스, 권범철 역. (2020)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서는 커먼즈’ 『문화과학』 101호. pp. 173-190.

30) 정영신,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pp. 237-260.

들어 한살림이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용한 자원은 사실은 인류와 생명이 공통으로 누릴 권리가 있는 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공통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개방되어야 한다. 참여의 문턱을 낮추어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고, 외부인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책임에 민감해야 한다.

페데리치와 동료들은 공통장이 대안적인 조직이 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한다. 그중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장은 자율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내적 분할을 극복하고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생산(재생산) 수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위계적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공통장은 사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며,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공유하는 행위 자체와 연대,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결국 공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화’이며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을 내리고, 집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힘을 되찾는 것이다.<sup>31)</sup> 공통장은 과거의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아닌, 착취 없는 생산과 위계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관계에 기반한 열린 구조를 필요로 한다.

## 2) 한살림 공통장의 열림과 넓힘, 재연결을 위한 제안들

앞서 크고 높은 이상과 현실 개인의 실천을 연결시킬 구체적인 다리가 부족함을 이야기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사이의 중간 세계, 혹은 다중 세계를 설명하고, 미시세계의 역동성, 개인들의 개성과 창조성, 자발성을 잘 연결하여 엮어 낼 수 있는 다수 공통장이 필요하다. 그런 장을 견고한 구조로 만들어 내기는 어렵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견고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유연하고 창발적인 네트

---

31) 페데리치와 카펜치스, (2020) 위의 글.

워크가 필요하다. 작고 큰 단위로 공통장들이 여럿 있고, 그들이 서로 포함하거나 포함되고, 혹은 중첩되고 연결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

① 주제와 영역의 확장: 지금까지 한살림은 주로 농업과 먹거리운동에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영역만으로 한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살림은 돌봄운동이나 탈핵에너지운동으로 영역을 넓혀 왔는데, 그러한 확장은 고무적이다. 향후 상조, 소액신용대출, 지역화폐, 재생에너지, 교육과 체험, 재활용, 예술, 대안 교통, 디지털플랫폼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운동과 사업 영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공통장의 관점을 빌자면, 공통장은 생존과 필요 욕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형성될 수 있다. 내 삶의 어려움이 닦혔을 때 자본과 국가의 방식이 아닌 생명과 돌봄과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본과 국가가 외면하는 영역에서 우리 공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 공간들은 생명운동이 생활문화운동으로 구체화되는 지점일 것이다.

② 디지털 세상에서의 생명운동: 공통장운동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지식 저작권과 온라인 플랫폼의 인클로저에 대한 저항이다. 사실 생명운동 진영은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 모두에서 기술과 디지털 영역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반생명, 반생태의 핵심에서 있기 때문이다. 약자와 생명을 희생시키는 구조는 기술-사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정당화된다. 더욱이 근래 디지털 영역에서 혐오와 배제, 반(反)지성의 문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낀다. 자본의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정서를 착취하고 머릿속을 통제할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면서 여러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카카오톡’과 ‘유튜브’가 없으면 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디지털 기술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다. 이 문자가 보이스 피싱이 아닐까, 누군가 내 정보와 재산을 털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디지털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이전의 어떤 도구보다도 강하고 빠르다. 그런데 좋은 영향력을 만드는 대안운동은 자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늘 뒤처진다. 디지털 세상에서 자본과 시민사회의 속도와 규모의 격차는 물질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간과할 수 있을까?

디지털은 독이 되기도 하지만 약이 될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 살림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활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들과 청년들, 지역민, 취약계층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 디지털은 그 시간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온라인 세미나 등 비대면 공간이 활성화되고 저변이 넓어지면서 지역 소외 문제가 상당히 극복되기도 했다. 우리는 ‘근접성 없는 친밀함’을 보다 다양하게 엮어 낼 필요가 있다.

③ 연결하기: 생명운동은 개체 생명의 소중함만을 말하지는 않았다. 나락 한 알, 풀 한 포기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협력과 연대의 관계망과 네트워크 자체를 생명으로 보기도 했다. 생명담론은 이 ‘연결’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밥 한 그릇에 우주가 들어 있다’는 식으로 다소 추상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하였으나, 해러웨이는 그보다는 약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해러웨이는 어떤 것도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이거나 개별적인 연결이 아닌, 부분적 연결로 세계를 접합하는 방식”이 유효하고, 그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sup>32</sup> 각

---

32) 도나 해러웨이, (2021) 위의 책.



자가 처해 있는 다른 상황과 위치에서 하는 ‘부분적 연결’이 먼저 필요하다. 부분적 연결이 다시 다른 부분적 연결들과 만나고 접합하는 것이다.

그 연결 방식은 참여와 창조와 공-생산이 적절할 것이다. 앞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생명운동을 언급했는데, 그 공간 역시 주입과 계몽의 공간이 아니라, 참여와 창조의 공간이 될 때 의미가 생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이미 고정된 것들은 매력적이지 않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이나 한살림 내에서도, 계몽적인 방식이나 일방적인 교육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이제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디지털 공간이든 물리적 공간이든, 문턱을 낮추고, 구조를 열어 놓고, 더 포용하며 참여자들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 내는 연결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댓글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디지털 공간에 생명 문화를 더 확장해야 할 것이다.

④ 생명운동에 대한 성찰적 재해석: 초창기 생명운동은 치열한 공부와 고민 속에서, 당대의 시대 정신을 주도하며 등장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주류였던 시대, 운동 진영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만큼 파격적이었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시대를 한참 앞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고, 오히려 시대를 앞서서 열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은 무엇일까?

확장을 위해서는 뿌리가 필요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명운동이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연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생명운동에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답이 필요하다. 과거에 답이었던 것이 지금은 답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열려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해석적 관점일 것이다. 생명은 무구하지 않고 모순투성이며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하나를 살리려면 다른 하나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



일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참사들은 생명에 대한 고민을 심화한다. 청년들은 자조적으로 말한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어도 죽고, 일하다가도 죽고, 놀러가서도 죽는다”고. 청년이든 비인간 생물종이든, 살아있는 생명의 물리적인 죽음이든, 살아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다른 방식의 죽음이든 죽음으로 내모는 시스템, 그에 대한 성찰과 저항이 생명운동의 핵심일진대, 지금 이 시대 그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체 생명인가, 온생명인가, 가이아인가, 혹은 오이케이오스인가?<sup>33</sup> 아니면 생명들의 연결 현상 그 자체인가? 생명운동이 생명력을 가지고 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물음들에 대한 실천적 논쟁과 성찰적 재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가며 : 자유로운 생명의 공통장을 향하여

비판은 쉽고 실천은 어렵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역량이 부족하여 추상적인 이야기에 머문 것도 아쉽다. 필자가 가진 알팍한 경험과 지식은 좁은 세계에서 형성된 ‘상황적 지식’<sup>34</sup>일 수밖에 없다. 부디 경험 많은 이들의 또다른 상황적 지식과 관점들이 덧대어지고 연결되어 풍성한 생명의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전환운동의 전략과 실천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꽃피었으면 한다.

---

33) 온생명(장희익), 가이아(제임스 러브록), 오이케이오스(oikeios; 제이슨 무어) 등, ‘생명’의 실체를 개체 생명을 넘어 연결된 관계망으로 보는 관점은 생명담론을 재해석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4) Donna Haraway,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 14, No. 3 (Autumn, 1988), pp. 575-599

# 일상에서 실천할 동사를 스스로 찾기

: 커먼즈 중심으로 바라본 한살림 생명운동

김자경(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 교수. 주류 경제학 중심의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커먼즈 그리고 마을로 연구 주제가 계속 바뀌고 있다. 주말에는 '달빛 숲감귤밭'에서 농사 짓고 있다. 공저로 『로컬푸드, 제주를 상상하다』, 『제주사회의 변동과 공동자원』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도시에서 커머닝은 어떻게 가능한가?-제주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sojuno1@hanmail.net

## 커먼즈<sup>1</sup>의 용법

자본주의 이전 생계 경제의 시대,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노동해야 하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사람들은 커먼즈를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며 상호부조하고 협동하는 조직을 만들어 왔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배타적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인클로저<sup>2</sup>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면서, ‘인간의 살림살이’를 구성해 온 커먼즈가 해체됐다. 단절되고 원자화된 인간은 생존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국가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는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생존을 걱정하게 만들었으며, 어떠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집합이 되어 버린 마을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생업과 삶이 마을에서 분리되는 그 지점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불공정, 불평등, 극단적 양극화, 빈곤, 돌봄의 위기, 공공성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생태위기,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위기, 고령사회 등은 현재를 드러내는 과제다.

커먼즈는 크게 자원과 마을 공동체 그리고 관습, 제도 또는 문화로 구성되고 있다. 자원은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필요한 공동의 생산 수단이자 삶

- 
- 1) 커먼즈(common)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한 단어로 합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커먼즈의 용법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에서 출발하는 개념으로서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 비배타성과 경합성을 중심에 놓고 ‘공유지’ 또는 ‘공유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는 활동하는 현장에 따라 ‘공통장’, ‘공동자원’으로 번역하거나 ‘커먼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2022년 10월, 커먼즈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커먼즈의 영역을 드러내며 계보학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커먼즈의 동사형인 커머닝(commoning)의 경우 공동자원화, 공유화 등으로 번역하지만, 제주에서는 ‘수놓다’(제주 방언)라는 동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각 지역에서 커먼즈 운동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 2) 인클로저(enclosure)는 종획운동으로 번역이 되며, 주로 토지 사유화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도시적 삶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커먼즈를 해체하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자연의 상품화를 고착하고, 신자유주의를 확산하며, 사람들을 고립시키며,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법과 제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상정하여 번역어를 선택하지 않고, 인클로저를 그대로 사용한다.

의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는 생업과 삶 속에서 매우 중요했던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관습과 제도를 만들어 왔다. 자연 커먼즈는 주어진 것이라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관리하고 규제하고 나름의 관습을 통해 만들어 온 것이다. 또한 마을에는 단 하나의 커먼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커먼즈가 존재했고 그에 따라 마을 내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한 마을에 커먼즈의 수만큼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낱줄과 씨줄처럼 서로 교차하면서 상호부조의 관계망을 구성했다. 실제로 커먼즈의 권리가 강해질수록 마을 공동체의 자치권이 강해지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커먼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커먼즈는 그 자체의 자원 단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삶의 단위가 마을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커먼즈를 통해 얻어지는 공감대를 ‘공동성’이라 부른다. 공동성이 누적되면서 공동체성이 발현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커먼즈를 계기로 활동하는 공동의 시간을 어떻게 축적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며 커먼즈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형태를 유지하며 자원을 함께 생산하고 관리하며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즉 공동 생산 수단에 대한 지배력이 개인이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코뮌, 결사체 등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생존 때문에 누군가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는 자원이었다는 점에 있다.

현재 커먼즈를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도시적 삶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필요(돌봄, 먹거리, 도서관 등)를 커먼즈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커먼즈를 함께 영위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일 것이다. 따라서 커먼즈의 원리는 협동을 통한 공동체적 문제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적인 삶의 필요’에 의해 커먼즈는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가꾸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 생명운동의 구체화, 밥의 사회화 운동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보건, 의료, 돌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 노인정 등 공공시설을 제일 먼저 폐쇄했고, 이곳에 갈 수 없는 이들은 집이나 방에 스스로 고립되었다. 심지어 무료 급식소도 코로나 확산을 빌미로 폐쇄되었다. 학생들은 급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농가들은 급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농산물을 산지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의 입장에서조차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의 점심식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밥상을 둘러싼 어떤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일상의 기반이 되는 것을 커먼즈라 부른다면, 우리의 밥상이, 커먼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구조에서 서로 고립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많은 복지 시설과 복지 정책이 이들에게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먹거리를 매개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나눔 냉장고, 공유 부엌 사례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 활동들은 밥을 사회화하는 먹거리 돌봄이라 불린다. 먹거리를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먹거리는 커먼즈가 되는 것이다. ‘한살림 30주년 비전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리한 『세상의 밥이 되는 공동체 운동』 그 자체가 커먼즈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한살림연합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먹거리공동체추진회의’가 있다. 2022년부터 ‘먹거리운동전략회의’라 명칭을 변경하고 ‘먹거리 돌봄’과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식생활센터와 함께 먹거리 돌봄 사업 공모를 시행하였다.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하고 실험해 보고 널리 홍보하여 정책으로 가져 가는 그 과정이 공공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때 한살림의 ‘밥의 사회화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커먼즈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커먼즈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데이비드 볼

리어(David Bollier)는 ‘공동체의 참여와 시장에 의한 자원 공급이 결합된 방식으로 재현지화 된 식량체계’를 인클로저에 맞서는 혁신적인 모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sup>3)</sup>

### 일상에서 실천하는 동사 찾기

한살림제주는 2008년 창립됐다. 창립 이후 활동은 사업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가 2015년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지역살림’운동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밥상살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20년 돌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임의단체인 ‘한살림제주모임회’를 구성하였다. 현재는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지역사회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먹거리돌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살림제주모임회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사회적회계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통한 가치 실현, 활동을 통한 가치 실현, 가치 실현을 위한 투입’이라는 한살림제주의 미션을 정하고, 매년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재정비해 왔다. 그리고 ‘제주 담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브랜드에 한살림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운동, 협동조합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운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살림제주의 사업과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살림의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의 사업과 활동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 조합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의 활동에 ‘일상 공동체’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언제부터인가 조합원들은 ‘일로 만난 사이’가 되어 삶을 나눌 기회가 부족했다. 그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에 급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가까운 먹을거리 비중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연합 물류의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주의 매장은 여전

---

3)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역(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8p.

히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합 중심의 사업과 활동을 극복하고, 한살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에서 균열을 내자는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커먼즈는 생활 세계와 동사를 강조한다. 일상의 삶 속에서 행동하고 서로 환대하고 유대를 느낄 수 있는 동사를 찾기 위해 고민했다. 특히 먹거리돌봄은 단순히 반찬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먹거리돌봄 활동을 점검하면서 ‘드러내기-연결하기-관계 맺기’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찬을 나눌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이웃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던 이유는 한살림제주가 지역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식재료를 기부받고 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을 연결하기로 보면, 역시 수월치 않았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였으나, 자원 봉사자들은 먹거리돌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먹거리돌봄이 무엇이라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수혜와 시혜를 넘어 ‘서로 돌봄’이라는 관계 맺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에 지속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먹거리 돌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 돌봄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는데, 그 속에서 캠페인 메시지를 발견하였다. 먹거리 돌봄을 실천하는 동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빈 칸을 두기로 한 것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자연스럽게 \_\_\_\_\_ 서로를 돌봅니다.”

빈 칸에는 ‘나누며, 만들며, 전달하여, 먹으며, 농사하며, 소통하며’ 등 각자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동사를 채우도록 한 것이다. 조리하는 자원봉사는 ‘만들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찬을 받는 이는 ‘먹으며’를 선택할 수 있다.

먹거리돌봄 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서 아주 작지만 변화가 감지됐다. 으뜸마을 부녀회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고, 나눔 냉장고를 통해 이주민

가정은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 공동체 텃밭을 통해 광평마을 노인회는 먹거리를 기부하고, 장터에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노형동 통장들은 텃밭을 가꾸며 나눔 냉장고를 채우기 위한 선의의 경쟁에 돌입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동사를 찾는 것이 생명운동의 시작이다.





# 공통장의 낭만화를 경계하고 생명운동 명확히 하기

안새롬(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재)숲과나눔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환경과교육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생태 전환과 정치, 커먼즈, 환경 교육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공저), 『커먼즈의 도전』(공저), 『기후 커먼즈 정치에서 청년 및 미래 세대론이 갖는 함의』 등이 있다.

✉ me2th@snu.ac.kr

발제문은 한살림이 표방한 생명운동이 재생산의 위기에 처했고, 특히나 이 생명운동이 긴급한 생태 전환을 주도할 역량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 기존의 생명운동에 내재한 낭만성, 2) 운동 방법으로 택한 협동조합이 가진 난점들, 3) 약자와 소외 계층, 사회적 책임과 돌봄에 대한 무관심, 4) 연대와 유연성 부족 등을 현재 생명운동의 문제로 진단하고, 한살림 스스로 생명운동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해석하고 실천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통장 이론과 실천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 토론문은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이를 따라가면서 대안 탐색에 필요한 논의거리를 보탠다.

**1 —** 생명운동의 밑바탕이 되는 사유에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공통장 이론과 실천이 이 변화에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발제문에서는 생명운동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생명의 그물 속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과 공존, 연결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연결을 가로막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모든 체제와 문화에 대해 저항하고 재연결을 통해 살리고자 하는 실천”이라고 했다. 연결(재연결)은 곧 살림과 공생이며 단절과 가로막힘은 죽음과 죽음이라는, 죽음의 문명 대신 살림의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는, 생명운동의 밑바탕 사유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일종의 비장함과 투지도 느껴진다. 이런 비장함과 투지는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 무엇을 바라보며 간절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와 수준의 단절과 연결일까?

이 질문들이 발제문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제문 중 언급된 바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생명의 그물이라는 비유

가 생명 사이의 생물리적 상호작용 망을 의미한다면, 어떤 경제 체계든 이 생명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부산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고 생물리적 결과를 도출한다. 여기에 살림/죽임의 사유를 적용해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계는 그것의 자원의 이용 범위와 속도, 수준, 방식 등으로 인해 유기체 사이에 왕성했던 연결의 단절, 결과적으로 죽음의 문명을 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연결을 다시 복구하고 살림의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반자본 경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생명운동의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자본주의 경제 체계는 생명 사이의 단절만을 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은 극도로 활발해지게 만든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떠나 어떤 새로운 경제 체계를 만들든 연결과 단절은 양날의 검처럼 존재하기 때문에(A와의 연결은 AC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단절 대신 연결, 이를 통한 공존과 공생이란 것은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꿈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경제 체계가 야기하는 문제들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명운동의 틀이 논리적으로 어색하고 빈틈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상 만물의, 모든 수준의 연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그럴 수도 없다) 어떤 의미와 수준의 연결/단절을 지향하는지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명운동은 만물의 연결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비유 내지 이미지로서 그물, 연결, 공생 등을 사용하면서 어떤 의미와 수준의 연결인지 밝히지 않은 채 연결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운동의 기반과 지향 모두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뿌옇다. 이것이 발제문에서 지적한 생명운동의 낭만화 및 추상화의 한 요인일지도 모른다.

공통장 이론과 실천은 이러한 생명운동이 가진 사유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단초를 제공하는가? 현재 발제문에서는 공통장 이론과 실천이 생명운동의 밑바탕이 되는 사유를 흔들고 다시 정립하기 위한 도구보다는 생명운

동의 전략을 가다듬고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공통장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공통장이 아니라면 어떤 도구가 유용할까?

- 2 —** 사실 공통장운동도 생명운동과 비슷한 난점을 공유한다. 공통장 이론과 실천에도 낭만화 문제가 있다. 종종, 역사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채 과거나 다른 지역에서 형성된 공동체, 공동 생산, 관리, 활동 등을 주요하게 참고하면서, 그런 공동체 및 공동체 활동이 감내하고 있는 것들(예컨대 장시간 노동, 갈등, 암묵적으로 전제된 위계와 분업, 생계 및 활동 유지의 어려움 등)보다는 그것이 이론 성취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한 공통장운동 토론회에서 어떤 연구자는 그 공통장이 내포하고 있었던 많은 협력/비협력, 자율/타율, 포용/배제 등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생추어리(피난처·보호구역, sanctuary)라 불렀다. 또 한살림 생명운동과 유사하게, 운동 방법으로 택한 공통장 활동이 제도화·상업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일부 마을 사업, 생태 관광 프로그램 등은 공통장을 만들고 함께 생산하여 향유하고자 출발했다.

집작건대, 발제문은 생명 담론과 운동에 비해 공통장 이론과 실천이 갖는 구체성과 변혁성에 주목하고 합의를 끌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통장 이론과 실천 또한 구체적인 이면들에 주목하지 않을 때 쉽게 추상화·낭만화 되어 왔으며, 체계 변혁적인 활동부터 제도를 수정하거나 제도의 틈에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는 활동까지 다양하여, 공통장을 참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현재 지적된 생명운동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극복하는 데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 3 —** 공통장을 경제와 정치가 긴밀하게 결부된 공간으로, 공통인을 경제적인 공통장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주체로 조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람은 경제 체계에서는 소비자이고, 정치(적 의사 결정) 체계에서는 이해 관계자 혹은 의사 결정자로서 시민이다. 그런데 이 두 체계는 공통장에서 더 잘 결부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예컨대 숲은 경제 체계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원이고, 정치(적 의사 결정) 체계로 들어가면 의사 결정 대상이 된다. 숲이 공동으로 관리되건 그렇지 않건 그렇다. 사람을 경제적 주체 혹은 정치적 주체로만 바라보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사람이 경제와 정치가 아닌 다른 체계에 놓일 때 가능할 것이다) 재정립하려는 시도는 유효하나, 경제와 정치의 통합적 공간과 주체를 그려 내고 그것에 공통장과 공통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색함이 있다. 또, 경제와 정치의 통합 내지 결부한다는 접근이 앞서 제기한 생명운동의 난점을 푸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통장이나 공통인이라는 용어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경제와 정치 체계와 별도로 공통장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경제 체계에서는 소비자, 정치 체계에서는 의사 결정자, 이해 관계자인 것처럼, 공통장 체계에서는 공통인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체계든(경제, 정치 등)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윤리로서 공통장을 규정하는 것이다(이 경우 공통인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경제 체계에서 생산, 소비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고 정치 체계에서 이해 관계 등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지만 그것들을 제약하고 조정하는 공동의 윤리가 있으며 그것을 공통장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후자처럼 경제 활동이든 정치 활동이든 더 많은 존재들과 이익을 향유하고 돌보는 방식을 지향하는 윤리를 설정하고 지향한다면, 생명운동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회적 책임과 돌봄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 한살림의 생명운동을 위한 제안은 영역과 매체를 확장하는 데에 치중해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둘러싼 논쟁적이고 치열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컨대 낙태 문제는 어떠한가? “천지만물 모든 존재가 우주보다 귀한 한 생명”이고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피고 북돋아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모심”이라고 보았던 생명운동은 이제 낙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

# ‘공동장으로 보는 생명운동’ 논의

정리: 김세진

## [질문] 구도완

먼저 공동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질문이다. 오스트롬은 공동장을 마을공동체 개념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점차 공동장 개념의 범위가 커지면서 지구 커먼즈, 기후 커먼즈까지 이야기한다. 그렇게 큰 범위로 이야기하면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조미성 선생이 보는 공동장은 마을, 협동조합, 그리고 우리 모두까지 개념이 넘나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생명운동과 한살림운동을 발전시킨다고 할 때 공동장 개념을 어떻게 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

둘째로는 공동장이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진보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커먼즈로서 협동주의 공화국 같은 이야기도 나



왔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공통장 개념을 어떻게 보고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까.

#### [답변] 조미성 \_

공통장과 자본주의와의 관계나, 공통장의 규모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안새롭 선생이 더 잘 말씀해주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저는 공통장을 한살림 상황에 대입해서 보고 싶다. 공통장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관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공통장 개념은 이것이니 이렇게만 해야 한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유로이 공통장을 끌어 쓰면 된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공통장이라는 결과가 아니어도 된다. 이름과 개념 자체에 천착한다면 그것은 교조다. 생명운동이든 시민사회운동이든 전환운동이든, 이 공통장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통장이 가지고 있는 활력, 사람들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방식, 에너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공통장을 동사로 보면서 접목할 지점을 뽑아 내야 한다.

#### [답변] 김자경 \_

협동조합에 대해 말하면서 자꾸 사업체에 집중하는 것을 반대한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다. 모든 의사 결정의 기준은 결사체다. 함께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방식으로 사업체를 선택한 것이지, 사업체를 위해 결사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살림제주는 지금 제2공항 설립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 문자를 조합원에게 보낼 때 가끔 “우리가 왜 반대운동을 해야 하나”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제2공항 설립은 반생명적이므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대의원 총회에서 2년 동안 논쟁했고 결국 이것은 생명살림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이게 결사체의 힘이고,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정치를 배제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안녕하기 위해 정치로 귀결되어야 한다. 폴라니가 말한, 시장을 사회에 복속 시키자는 체계가 전환의 중요한 기점이다. 자본주의의 보완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만들 서사를 그려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해 봤을까 생각하면 커먼즈론의 역사적 경험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현재 시각에서 민주주의를 보강하든 생태를 더 보강하든, 지금에 맞는 방식으로 커먼즈를 보완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마을 공동체와 기후 커먼즈를 많이 헷갈려 한다. 실제 인간의 삶의 기반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결사체가 된다. 기후가 너무 중요하면 기후 자체가 커먼즈다. 돈이 없어서 먹을거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거리가 커먼즈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커먼즈가 존재해야 한다. 먹거리를 확보하는 기반이나 통제하는 기제를 사회에서 안고 가는 게 운동의 지향이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 커먼즈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려낼지 하나씩 봐야 한다. 기후운동하는 사람들은 기후 측면에서, 먹거리운동하는 사람들은 먹거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질문] 구도완 \_

그러면 국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나.

#### [답변] 김자경 \_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핵심이다. 국가와 자본이 결합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었으니 국가에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커먼즈 운동가들은 국가를 파트너십으로 본다. 국

가는 커먼즈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지원과 제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커먼즈는 정치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운동의 또 하나의 기점이다.

#### [논의] 구도완 \_

그런데 국가는 억압하는 속성이 강하다. 한살림운동이나 생명운동은 국가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거나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국가에서 벗어나서 대안적 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서 만들었다. 그런 운동을 20-30년 동안 해 왔다면, 이제 제주한살림은 새로운 자치 공동체로 결사체와 사업체를 만드는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이것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연구해 보면 좋겠다.

#### [논의] 안새롭 \_

생명운동과 커먼즈를 결합하는 데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 생명 자체를 커먼즈로 보기 시작하면 오스트롬의 커먼즈와는 완전히 다른 결이 된다. 그동안 해 왔던 작업은 생명체를 인간으로 보고 인간이 기대고 있는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떤 자원이 생명을 담지하고 있거나, 인간 아닌 것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아예 다른 커먼즈 논의가 될 것이다. 저는 생명과 커먼즈를 함께 다루면서 얻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생명체를 생각하고 그 생명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계에 필수적인 자원이 제공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커먼즈 논의를 해 봐도 좋겠다.

조미성 선생의 발표를 들으면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고민이 진전되었다.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운동 담론이 어떻게 조합원의 삶과 연결될지, 어떻게 실천운동의 지침이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익했다.

커먼즈, 공통장은 요즘 많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과장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를 넘어설 새로운 체제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되었다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커먼즈도 그렇게 바라보면 나중에 실망할 것이다.

발표하신 글 중에서 공통장운동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부패하고 왜곡되며 현실 기반에서 약탈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통장운동 자리에 협동조합운동을 넣어도 들어맞는다. 협동조합은 변혁성을 추구했다. 세상을 크게 바꾸고 싶었고 그런 방향을 가리키다가 이것에 실패하면서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되고 변혁성을 상실했다. 재미있는 것은 만약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처럼 번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새롬 선생이 생명운동 담론이 가진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는데, 저는 생명운동 담론이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되레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랬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 같다. 이것이 땅바닥으로 내려와 버리면 변혁성이 사라지거나 세상을 바꾸자는 메시지가 없어질 것 같다.

협동조합이 가진 사업체와 결사체의 성격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기에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는데 그것은 협동조합의 운명이다. 거부할 수 없는 혼란을 의식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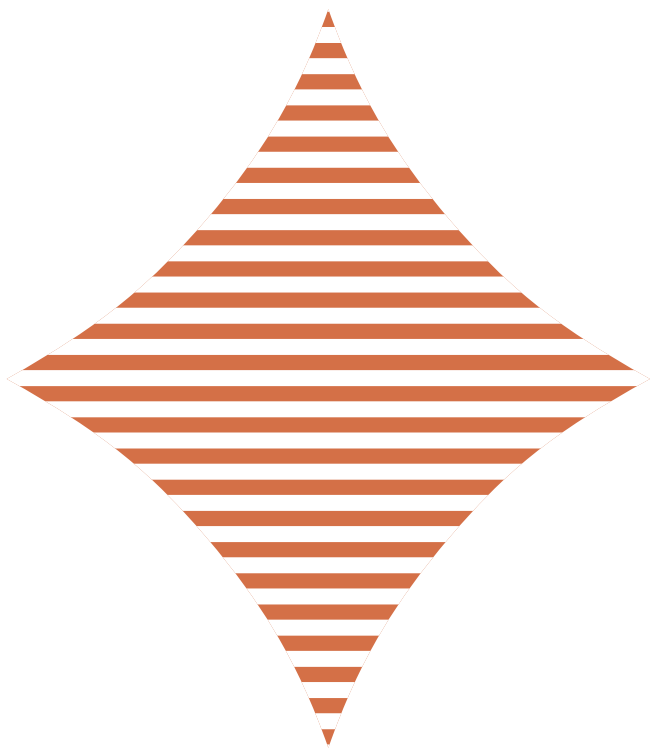
공통장이 매력적인 것은 공동체나 커뮤니티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건어냈기 때문인 것 같다. 공동체의 전근대성, 비민주적인 요소, 억압적인 요소를 건어 냈다. 공동체는 억압적이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좋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밖과는 단절되고 안에서만 연결된다. 공통장은 그런 것을 건어낸 이미지로 보여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만, 근본적인 속성에서 과연 다른지 의심된다.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 거리들이 오늘 많이 제시되었다.

### [정리] 구도완

오늘 굉장히 큰 이야기들을 했다. 탈성장, 공통장, 생명운동과 협동조합, 돌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모심과살림연구소와 한살림과 사회운동 영역에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언어에는 시적 언어, 종교적 언어, 운동적 언어, 사회과학적 언어가 있다. 사람들이 다 다르기에 각자 쓰는 언어도 다르고 담론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사회과학적 언어로 세상을 분석해서 “이 길로 가면 틀리고 저 길로 가면 잘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모심과살림연구소가 시적 언어, 종교적 언어와 함께 사회과학적 언어도 발전시켜서, “이 길로 가면 많은 사람이 덜 다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피난처가 되든, 변혁하는 저수지가 되든, 담론을 형성하고, 공동체와 울타리를 만들고, 사람을 키우면 좋겠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시선

---



# 현재를 위한 담론

한살림에서  
청년의 존재에 대하여

# 현재를 위한 담론: 한살림에서 청년의 존재에 대하여

김진아(한살림연합)

---

대학 내 학생 주도권 회복을 위해 대학생협에서 활동했으며, 모심과살림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로 '돌봄', '청년' 관련 연구와 활동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누군가에 종속되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며,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들과 불평등과 배제가 만연한 사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 jinah789@hansalim.or.kr





## 들어가며

한살림에는 20대 청년 조합원이 4,000여 명이나 있다. 하지만 한살림에서 20대의 존재는 낮설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먹거리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청년들은 어쩐지 한살림 가치와는 먼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일까? 그래도 꾸준히 한살림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의 새로운 일꾼, 새로운 소비 계층과 같이 한살림운동의 재생산을 위한 역할로 청년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미래 세대’는 중요하지만, 정작 미래 세대가 어떤 삶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이 지금 사회 구조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정상 가족을 이루어 아이가 생겼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니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 그것이 한살림에서 청년의 위치가 아닐까.

최근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한살림 청년 조합원 먹거리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팀의 문제의식은 그동안 한살림운동에서 청년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동적 존재로만 위치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맥락과 다양한 고민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연구 결과, 청년 조합원들은 일상의 먹거리 경험을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연결하면서 노동, 생명, 젠더와 같이 억압받고 배제되었던 다양한 영역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의제 연결성은 일상에서 경험적으로 체감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지점에서 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실천 현장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청년 세대는 우리 사회

---

---

구조 속의 억압과 배제를 삶의 위협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청년은 자기 생활의 주체로서 일상에서부터의 고민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며 다양한 일상의 실천을 조직해 나가고 있다.

억압과 배제의 경험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한살림을 대안적 삶을 실현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참여한다. 하지만 정작 한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유입된 청년들은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 속에서 기존에 자신이 꿈꿔 왔던 ‘다른 삶’에 대한 동력은 점차 흐릿해져 간다. ‘누군가를 위한 운동’의 도구가 되어 버린 청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운동의 동력을 찾기 어렵다. 사회의 억압과 배제를 체감한 이들이 대안적 삶을 위해 한살림에 왔지만, 결국 이 공간에서조차 억압과 배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감당할 수 없이 큰 허탈함이 찾아온다. ‘분명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떠나는 청년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남아 있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가 반가웠다면 한 걸음에 달려와 만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활동의 과정에서 지치지 않는 서로의 비밀 언덕이 되어 주기 위해 함께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글에서 연구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연구 결과를 가지고 모인 청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살림 청년 조합원 먹거리 연구

이번 연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20대 청년들의 주체적인 이야기를 담아 내고자 시행되었다. 먹거리 수다회, 인식 조사, 초점 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다양한 청년 주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전국 한살림 20대 조합원 약 4,157명 중 128명

---

---

의 응답으로 먹거리와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또 서술형 응답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키워드를 엮어 여섯 명의 20대 조합원들과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 1) 인식조사

2021년 조사에서 20대 조합원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한살림에 가입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진행한 <소비자 조합원 인식조사>에서 20대가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여, 가입 계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조합원들의 가입 계기인 ‘건강한’ 먹거리의 의미는 개인적인 건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먹거리에 관심을 가진 계기를 묻는 질문에 ‘기후위기 및 생태계에 관심이 생겨서’, ‘먹거리 생산 과정에 관심이 생겨서’, ‘먹거리 소비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심이 생겨서’가 각각 많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또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맛’과 ‘친환경성’,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에 뒤이어 ‘구입처에 대한 신뢰’, ‘생산 과정과 방식’, ‘유통 과정과 방식’을 택한 이들이 약 15%로 나타났다. 먹거리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는 ‘환경 문제’, ‘건강 위협’, ‘공장식 축산’ 순으로 선택되었는데, 특히 기후위기를 일상에서 체감함으로써 먹거리와 환경 문제를 연결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조합원들은 물품 구입처로써 한살림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20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한살림의 정신과 가치를 잘 알리는 활동’이 중요

---

---

하다고 응답한 데에서 물품 교환의 기능을 넘어 환경과 같은 사회적 의제와 한살림의 정신/가치의 연결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지역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조합원 공간 마련’에도 15.63%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청년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활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고 있고,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먹거리 의제를 인식하고, 한살림을 자신이 체감하는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실현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집단 인터뷰

집단 인터뷰로 선정된 주제는 ‘기후위기와 비건’, ‘성 불평등과 인권’, ‘청년과 지역 활동’이다. 각 주제들과 먹거리 고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한살림운동과 해당 의제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청년 주체들의 활동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조합원들은 삶 속에서 먹거리를 노동, 비건, 성 평등 등 다양한 의제로 확장해 나갔다. 이는 자신이 삶에서 마주한 문제들이 누군가의 삶(노동자, 동물, 여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데, 이런 연결을 인지할 때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것들에 사실은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는 대안적 삶의 공간(새로운 공동체)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으로 확장되었다. 대표적으로 노동, 동물과 같이 생명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직면하면서 그동안 당연히 여겨왔던 먹거리 생산 시스템에 의문을 던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공간으로서 한살림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사업 방식과 달리 먹거리 생산과

---

---

---

---

소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경계하는 한살림의 시스템이 조직의 차별성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들에게 ‘먹거리’ 의제는 먹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사회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사회적 의제들을 연결하는 매개임을 확인했다.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는 대안적 먹거리운동은 개개인이 삶에서 마주하는 구조적인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연구에 참여한 청년 조합원들은 이를 실현할 공간으로서 한살림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조합원들은 한살림의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논의를 만들어 가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작용, 수동적 존재로 가두어진 청년 정체성, 특정 세대에만 집중되는 활동 방식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런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더 다양한 가치와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청년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한살림 가치를 지지해 서가 아니라, 자신이 삶에서 마주한 고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한살림에 참여한다. 한살림운동이 지속가능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민으로 출발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주체들의 이야기가 공론장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공론장은 지역에서부터 형성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들에게 지역은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의 문제로 인해 큰 의미가 없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비밀 언덕’이라고 표현되는 수용과 지지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지역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한살림은 대안적 삶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청년들의 다양한 실천을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

---

---

### 3) 연구 결론

청년 조합원들은 세련된 한살림보다도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공간, 시장 논리로 인해 생명이 비가시화 되는 사회 구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한살림을 기대하며 참여하고 있다.

“물품을 다양화하면서 혹은 새벽 배송을 하면서  
한살림이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참여자 B, 25세 조합원)

이 연구는 ‘도대체 청년들은 왜 저래?’하는 질문에 답하는 연구도, ‘보편적인 청년들은 그렇다’는 결론을 내기 위한 연구도 아니다. 청년들의 삶의 고민과 연결되는 식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한살림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한살림운동에서 비가시화 되었던 청년들이 주체로 인정되고, 계도의 대상이 아닌 운동의 동료로 인정되기 바란다. ‘도대체 그런’ 청년은 보편적으로 규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대화를 가로막는다.

한살림운동은 ‘나부터 삶의 가치와 생활양식의 올바른 전환을 통해 실천’하는 대안 공동체를 지향한다. 삶에서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삶이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

---

---

했다.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공동체가 아닌, 청년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를 구상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살림은 청년의 개인적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먹거리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삶의 위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살림의 청년-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살림의 청년-되기’란 청년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조직, 그리고 실천 방식을 재구성하고, 내용을 확장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 현재를 위한 담론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청년 주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청년은 미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현재를 살아 내고, 현재의 삶을 바꿔 내고자 하는 삶의 주체들이다. 나이가 더 들어서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폭력이고 억압이다. 기성 세대는 너무나도 쉽게 청년을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존재로 상정해 버린다. 이번 연구는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연구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은 이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한살림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현재를 잘 살아 내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향후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1) 한살림에 존재하는 '청년'

(현이) 그동안 한살림에서 청년은 활동의 주체가 되기보다도 대상으로만 인식된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최근에 청년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 활동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행사들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보다도 주어진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현) 제가 느끼기에 아직 한살림이 청년들을 가시화하는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족 형태에 집중한다는 것을 사업과 활동에서 느끼고 있어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하더라도, 청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슬기)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적 맥락을 소거한 채로 먹거리와 유기농만 이야기하면,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안정을 갖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살림의 진정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불안정한 식생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이고, 취업이 어려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2) 청년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장벽

(은주) 한살림에 와서, 기성 세대 생산자 분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주축이 되어 해 보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시작하니까 생산 기술도 미흡하고, 익혀야 하는 기술도 많고, 내 농장도 가져야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도 않고, 결혼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우선순위가 많이 생기면서 한계들을 마주해요.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

---



---

---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민) 활동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살림 안에서 청년의 정체성 자체에 한계가 있다기보다도, 청년 조합원 대상 활동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활동가의 근무시간이 청년들의 활동 시간과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청년 조합원을 만날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내용 면에서, 청년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 그동안 기획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준) 저는 남성 활동가로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모임이 끝나고 제가 설거지하면 선배 여성활동가들이 설거지할 때에는 듣지 않는 칭찬을 받아요. 한살림이 여성 친화적인 조직이고 여성 활동가 비율이 높는데, 그 안에 연령과 같은 다른 위계들이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직 자체에서 노동이 성별화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여성 활동가들에게 1차적인 문제는 노동의 성별화와 연령에 따른 위계구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려비) 활동하다 보면 다들 나이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막 서른살이 되었고 미혼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잠재적 며느리가 되어요. 귀농, 귀촌의 꿈을 이야기하면 “그러지 말고 시집와라” 이렇게 넘어가요. 거기서 기존 조합원들과 느껴지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비거니즘’을 통해 그동안 정상이라고 규정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살림에 왔거든요. 그런데 한살림에 와서 다시 정상 가족 규범에 대해 강요받는다고 느끼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

---

---

### 3) 장벽을 허물기 위해

(준) 저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한살림 하면서 젊은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난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젊은 청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죠.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각자 지역에서 대의원도 하고,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의원을 하며 목소리 내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조직 작동 원리를 맞닥뜨리며 감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직적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은빈) 함께하는 계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석연치 않더라도 ‘왜 저거 밖에 못하냐’고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너머의 것을 보려면 결국에는 내가 애정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평등한 공동체는 누가 똑딱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명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야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멋진 비전이 있더라도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다소 용없다고 생각해요. 생명력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조직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숨통이 트이는 조직 문화가 필요한데, 숨통이 트인다는 것은 끊임없이 불안정하다는 의미죠. 폐쇄적이면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면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면 또 반대로 통제가 가능한 거죠. 이런 방식이 되지 않기 위해 조직 안에 계속 긴장이 있어야 해요. 불만이 나오고, 피드백이 나오고, 고치기 위한 실험이 나오고 그러면서 역동적인 상황이 발생하겠죠.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공

---

---

간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런 식의 수평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생명력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해요. 아무리 가슴 뛰는 선언문을 읽고, 가슴 뛰는 이데올로기를 만나도 결국 그걸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야 해요. 내가 불편했던 경험을 기분 나쁜 경험, 답답한 경험으로 남겨 두기보다 조직 안에서 어떻게 좋은 에너지로, 역동적인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궁극적으로 그 조직이 생명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영) 청년의 삶과 먹거리 의제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시간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챙겨 먹기 어려울 것이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도, 그래서 왜 챙겨 먹기 어려운지, 무엇이 식사를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만만한 선택지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만만한 선택지가 되려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해야만 해요.

#### 4) 한살림에서 할 수 있는 것

(슬기) 개인적으로 공동체 밥상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통 주거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만 보고, 먹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밥만 본다는 거예요. 집과 밥을 연결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회 주택을 운영하는 주체와 한살림이 협업해서 공유 주택을 운영하며 공동체

---

---

---

---

밥상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걸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동안처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들으러 오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두 열어 놓고 청년 조합원들이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무언가 재미있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름) 청년의 활동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불안하긴 해요. 공동체라는 것이 기획하는 사람이 실무도 해야 하는데, 삶이 불안정하다 보니 개인이 가혹하게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살림 조직이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끌고 가 주면 어떨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가혹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살림 청년들도 재미있게 무언가 같이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함께하면 좋겠어요. 한살림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영) ‘연결’의 측면에서 한살림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농부 친구 한 명을 두는 것이 훨씬 더 기후위기를 감각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온 한살림이니만큼 많은 친구들을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의 친구, 그렇게 조금 더 넓어지는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한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다) 현재 청년들은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로 과부하 상태이다 보니 먹거리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청년과 먹거리는 비연결 상태라고 생각해요. 비연결이 지속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

---

---

---

---

면서 스스로 어떻게 먹거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어려워요. 먹거리에 대한 권리도 상실되고 있는 것이죠. 한살림의 가장 큰 역할은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과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먹거리 빈부격차가 있어요. 그 간극을 좁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5)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대화’

(소현) 한살림은 큰 덩치를 가진 조직이다 보니 다양한 관심사와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 과정에 참여하면서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살림 안에서 육류, 수산물, 유제품 등의 가공품을 생산하시는 생산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권에 대한 이슈를 강하게 주장하는 집단이 있다해도 그런 욕구가 바로 변화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반드시 옳은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오랫동안 만들어 온 체계에 안주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이런 간담회처럼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변화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살림의 가치 지향에 함께 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으니, 다양한 지향을 가지는 청년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다양한, 때로는 가벼운 장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무거운 방향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가볍게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

---

(현이) 청년이 식생활에 대한 갈망이 적은 생애주기에 속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한살림운동까지 연결되어 함께하게 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물려줄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서 그 필요들이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먹거리와 관련한 연결고리, 동물권, 사회문제들을 찾아내고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무언가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표) 한살림에서 책임생산과 책임소비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소비자의 역할이 소비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산자가 소비자들은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를 궁금해하고, 소비자도 생산자가 어떻게 생산하고 지내는지를 궁금해하죠. 아마 그 지점에서 분명히 생산자도 생협도 막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이윤이 안 남는데, 이렇게 하면 품위를 못 맞추는데’ 하는 점들이요.

저는 소비자 입장으로 각자가 가지는 고민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되는지 생협이 판단해 주세요’라고 해 버리면 그건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협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생산자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 보고, 대화를 통해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죠. 딜레마와 갈등을 드러내면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



‘현재를 위한 담론-한살림 청년 조합원 먹거리 인식 조사’ 관련 간담회 현장에 참여한 청년들.

또,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생명으로 더  
불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  
었어요. 한살림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농업, 축산, 가공, 생  
협)들의 생명과 동물, 식물들의 생명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한 논  
의들이 조금 더 많은 곳에서 시작되고,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존재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이 한살림이 아닐까 하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 마치며

청년 먹거리 연구를 통해, 또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모인 간담회 자리를 통해 궁  
장히 오랜 시간 다양하게 존재하는 20대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간담회를 통해 공론장에서 드러남으로써 우리

---

---

는 서로의 고민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살림에서 청년 주체들은 지치는 순간도 많았고, 알 수 없는 장벽으로 인해 막막한 일도 많았기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해 볼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연결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한살림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많은 주체들과 연결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시도들에 연대와 지지가 더해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한 ‘한살림의 청년-되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현재를 위한 담론-한살림 청년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보고서 전문을 내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페미니즘 교육은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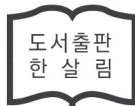
차이를 탐색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성평등교육을 위하여

교육으로 개인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할 수 있을까?  
성별 고정 관념을 버리고 '나다움'을 찾는 것으로 충분할까?  
오늘날 페미니즘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엮음, 엄혜진 외 5명 | 16,000원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성폭력 고발과 함께 우리는 무거운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교육으로 개인의 의식 변화와 구조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려던 전략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페미니즘 교육은 성폭력, 여성혐오 문제의 대안으로 꾸준히 호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은 왜 페미니즘 교육이 되지 못했나. 그 전에, 개인의 행실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페미니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일까? 페미니즘 교육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짚고 논의 수준을 높이자고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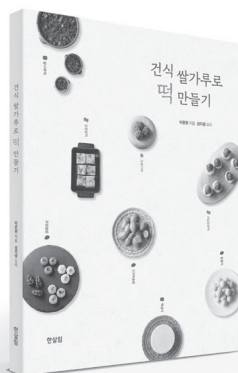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밥상을 모색하는 한살림 요리책



밥을 짓다  
사람을 만나다

고은정 지음  
값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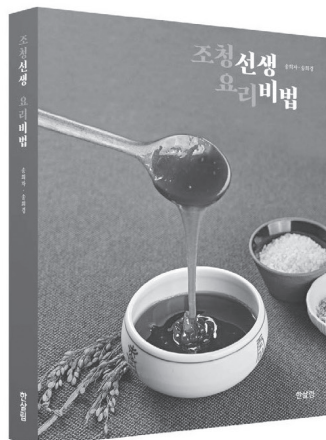
건식 쌀가루로  
떡 만들기

이준원 지음  
값 17,000원



우리 땅 친환경  
제철 먹을거리로 만드는  
한살림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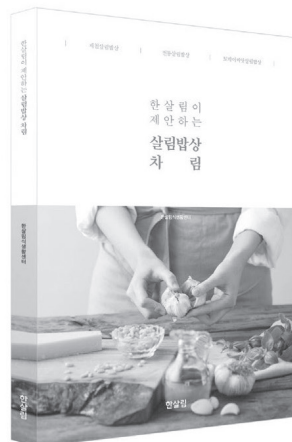
채송미 지음  
값 18,000원



양념의 통념을 깨고 조연에서  
주연으로 등장한 조청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음식에세이 & 요리책

### 조청선생 요리비법

송희자·송희경 지음 | 값 23,000원



밥상과 농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밥상차림, 이웃과 세상과 함께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한살림 살림밥상

### 한살림이 제안하는 살림밥상 차림

한살림식생활센터 지음 | 값 17,000원

한살림 장보기([shop.hansalim.or.kr](http://shop.hansalim.or.kr))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www.salimstory.net](http://www.salimstory.net) 이메일 [story@hansalim.or.kr](mailto:story@hansalim.or.kr) 전화 02-6931-3612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도서출판한살림



## 도서출판 한살림

한살림 장보기([shop.hansalim.or.kr](http://shop.hansalim.or.kr))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www.salimstory.net](http://www.salimstory.net) 이메일 [story@hansalim.or.kr](mailto:story@hansalim.or.kr) 전화 02-6931-3612



재생종이로 만든 책

